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 연구



2006年 12月

안 동 대 학 교 대 학 원

민 속 학 과 민 속 문 예 전 공

민 윤 숙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 연구

지도교수 : 천혜숙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민속문예전공

민 윤 숙

민윤숙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12월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원: (인)

위원: (인)

안동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6
3. 연구방법	13
II. 당신본풀이의 성격과 신들의 식성	16
1.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제주사회와 제주민의 삶	16
2. 본향신의 마을 차지 방법과 신들의 식성	24
III. 당신본풀이에 드러난 식성 갈등의 양상	30
1. 미식(米食)의 여신과 육식(肉食)의 남신 사이의 갈등	31
1) 날고기를 둘러싼 갈등	31
2) 육식을 둘러싼 갈등	39
3) 농우를 둘러싼 갈등	46
2. 대식으로 인한 갈등	53
3. 돼지고기금기와 신들의 식성 갈등	58
IV. 식성 갈등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	79
1. 날것과 육식, 그리고 농우 갈등의 문제	79
2. 대식, 식욕과 그 상징적 제재	82
3. 돼지고기 금기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88
1) 부정의 개념과 돈육 부정 관념의 형성	88

2)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문화적 차이	95
3) 가축으로서 돼지와 소의 쓰임 및 식용의 역사	113
4) 항해와 표류로 인한 타문화의 수용	135
5) 여신 축출의 기제로 쓰인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	142
 V. 결론	 148
 참고문헌	 152
 Abstract	 155
 부 록 <세화본향, 신양본향본풀이 채록본>	 158



표 목 차

<표 1> 주요 제보자 명단 및 조사 일정	15
<표 2> 미식의 여신과 생육식의 남신의 갈등	36
<표 3> 대식을 둘러싼 갈등	58
<표 4> 돼지고기금기를 둘러싼 여신과 남신의 갈등	61
<표 5> 식성 갈등과 의미	146

그림 목 차

<그림 1> 돼지고기를 둘러싼 여신과 남신의 갈등이 나타나는 당의 분포	60
<그림2> 돼지고기를 먹는 신격과 지리적 환경	108

I. 서론

1. 연구목적

제주에서는 무속제의에서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을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한라산과 바다 등 그 지리성을 긴밀하게 반영하며 토착성이 강한 자생신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 왔다.¹⁾ 뿐만 아니라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설촌 과정을 설명하며 마을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아직도 제의 속에서 살아 있어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²⁾

이 연구는 제주도의 각 마을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마을신화인 당신본풀이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나타나는 당신(堂神)들의 식성 갈등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갈등은 대체로 여신과 남신의 사이에서 일어나며³⁾, 갈등의 원인은 남녀신 어느 한 쪽이 육식을 하는 데 있으며, 곁가는 종종 따로 좌정하거나 살림을 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기대상이나 금기

1) 장주근, 「제주도 서사무가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11집, 1994, 24쪽.

2) 김현선은 '제주도 당본풀이는 일단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면 제주도에 당신본풀이가 전승되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현실 문맥적 기능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인접하고 있는 소수 민족 가운데 마을의 역사를 내세워 구비서사시로 부르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비서사시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민족에게서도 신화와 의례, 사제자와 신 및 청중 등이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다(「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구성 및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2005, 243쪽)

3) 남신들 사이에선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화살쏘기나 바둑 두기로 해결하며(<예촌본향>, <도순본향>), 여신들 사이에서도 좌정지를 선택할 때 안내를 하거나(온평리 명오부인과 토산여드랫당신), 처와 첩의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첩이 처의 귀양을 풀러가는 등 갈등양상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는다(토산알당). 그러나 남녀간의 갈등에서는 살림분산과 마을간의 교류를 금하는 등 갈등의 결말이 파국적이다. 식성으로 인한 갈등이 아닌, 삼각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애정갈등을 다룬 <서귀포본향>의 경우도 화살 쏘기나 뽕개질로 지경을 나누고, 각 마을간 단절을 선언한다. 즉 신들의 갈등이 '이성'간일 때 더 심각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파기의 주체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은 식육의 대상이 ‘날것’인가, ‘육식’인가, ‘농우’인가에 따라 그 의미와 양상이 다르다⁴⁾. ‘날것’은 ‘자연’에 가깝다. 날것을 먹는 한라산 계열의 남신은 미식의 여신에게 기피된다. ‘농우’는 농경의 자산으로 ‘농우’를 잡아 먹은 남신은 농경의 여신과 같아진다. 그런데 날것이나 농우처럼 금기대상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육식성’으로 인해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세화본향>에서는 백주또가 ‘소뺨와 말뺨로 누릿내가 탕천한’ 집에 사는 명동 소천국과 갈등하고, 제주도로 피란 온 금상이 ‘술⁵⁾도 장군, 고기도 장군’인 식성으로 인해 천자또와 갈등한다. 이들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 쪽 신의 육식성에 기인한다. 신화에서 육식성은 ‘추접하고 부정한 것’으로 육식을 취한 신들은 ‘바람알’로 쫓겨난다. 즉 육식성은 미식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식성이다. ‘날것’이나 ‘농우’, 그리고 ‘육식’은 신화에서 상징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나 모두 ‘육식’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이 육식성을 가진 남신은 미식성(米食性)의 여신에게 기피되거나 거부된다. 따라서 육식성의 신이 거부되는 것과 함께 ‘날것’, ‘육식’, 그리고 ‘농우’로 표상되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부부신 가운데 어느 한 편이 금기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어 살림을 가르거나 쫓겨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금기된 음식인 돼지고기를 취하는 쪽은 대체로 여신이다. 여신과 돼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표선면의 <토산여드렛당신본풀이>가 보여주는 바, 일명 모계전승의 사신(蛇神)신앙처럼 여신과 돼지 사이에도 ‘씨족적 혈연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⁶⁾ 물

4) 육식성으로 인해 남녀신이 갈등하여 별거하거나 살림을 가르치는 모티프는 그 대상이 ‘날것’이나 ‘농우’처럼 성격이 분명히 지워진 것도 있고(<아라본향>, <송당본향>), ‘고기’나 ‘소와 말’처럼 단지 육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세화본향>).

5) 맑은 신은 ‘고기’도 거부하지만, 술도 거부한다. ‘옛날 정성허던 심방들은 참 술도 안 올려놔어. 감주, 계알안주. 지금은, 술 다 써.(왜 술은 안 올려놔어요) 술 안 먹구 고기 곁은 거 안 먹는다 해서.’(양정순심방(74세) 제보).

6) 현용준은 「제주도 당신화고」에서 뱀이나 돼지나 토렘적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돼지사육 이전의 豚금기숭배가 있었을는지 모른다면서, 토산 사신은 조상이라 숭배하고 금기하나 그 외의 특징은 없는 반면, 칠일신은 일곱 쌍둥이 산출이라는 점이 혈연관계가 더욱 뚜렷하며 식용금기와 제일의 神聖食用이 어울릴 것 같다고 했다(앞의 책, 129쪽).

론 이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돼지에 대한 터부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 터부를 파괴하는 여신과 돼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⁷⁾

사실 오늘날 육고기 중 ‘남당알에 너발달린 흑사추물’⁸⁾인 돼지고기는 현재 제주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육고기라 할 수 있다.⁹⁾ 가령 어느 집에서 혼사든 장례든 집안의 큰일을 치를 때에는 ‘돼지를 몇 마리 잡는가’가 음식 장만에서 우선시되며, 잔치 기간 동안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돼지를 삶는다. 돼지고기만큼은 한 사람 앞에 한 접시가 돌아갈 만큼,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받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¹⁰⁾ 그런데 이런 돼지고기가 신화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며 돼지고기를 취한 신과 별거하거나 살림을 분산한다는 점이 의문스럽다. 물론 신화를 현실의 모사(模寫)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경우 ‘당시의 신앙, 사회, 경제생활과 제주민들의 현실인식이 신화화한 것’¹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¹²⁾ 또한 돈

7) 후술하겠지만 남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본풀이도 있다. 이 경우 여신은 돼지고기를 먹는 남신에게 바람아래나 서편으로 좌정하라고 하지만, 귀양을 보내거나 축출하는 경우는 없다. 또 이 때의 여신은 임신중이었다거나 출산후였거나 하지 않으므로 딸애기 일곱을 낳지도 않는다. 다만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점만 같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는 부정함에도 어떤 마을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돼지고기금기를 깨뜨린 신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8) <월정본향>에서는 돼지에 대해 ‘휘유두리 황발갈쇠’라 지칭한다. 이처럼 돼지를 ‘완곡’히 표현하는 것은, ‘돼지’에 대한 금기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9) 말고기 역시 제주인들이 좋아하는 육고기이나 부정하다는 관념이 있다. 특히 혼인이나 명절, 제사에는 말고기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상당히 부정하게 여긴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바닷고기와 함께 꼬치를 만들어 상에 올린다. 현재복(여, 69세)씨의 제보(2006. 8. 1. 자택에서 면담).

10) 이는 필자가 시택에서 시동생의 결혼, 시할머니의 장례, 시할머니의 소상, 시고모의 장례 등을 치르면서 직접 보고 겪은 것이다. 할머니의 장례와 소상, 시동생의 결혼을 모두 집에서 치렀는데, 친인척(웬당) 가운데 ‘여자삼춘’(이들은 모두 며느리계를 만들어 집안의 대소사를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고 있고, 친분을 유지시켜 가고 있다)들이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일을 도왔다. 돼지고기를 삶는 일은, 시아버지를 비롯한 남자 친인척들이 마당 한 칸 올래 쪽에서 가마솥에 장작을 태우면서 했으며, 여자삼춘 가운데 칼질을 잘 하는 분이 고기를 썰었다(옛날에는 도감이라 하여 돼지고기를 자르는 사람이 마을에 따로 있었다고 한다). 돼지고기는 한 사람당 한 접시를 대접하도록 했다.

11) 현용준, 「제주도 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17쪽.

12)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인 <문전신본풀이>는 신화가 현실 사회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

육금기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날 근동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돼지고기 거부 현상¹³⁾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제주도의 심방과 단골들은 당에 가기 며칠 전과 당에 가는 날에만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고,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히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면은 중동지역의 돼지고기 금기와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들의 대식성으로 인한 갈등을 꼽을 수 있다.¹⁴⁾ 종전까지 ‘식성 갈등’ 하면 육식의 남신과 미식의 여신 사이의 갈등만이 주로 논의되었고 대식성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대식성 역시 다른 식성 갈등의 예처럼, ‘한 신이나 한 사회가 문제적 식성을 가진 다른 신을 축출하는 계기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예외가 아니다.¹⁵⁾ 특히 신의 ‘대식(大食)’이 문제가

가 됨을 극명히 보여준다. 제주도의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의 경우, 그 어떤 제사이건 제일 먼저 ‘문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육지와는 다르게, 왜 제주도에서만 ‘문제’를 지내는지는 <문신본풀이>가 설명해주는 것이다. 물론 당신본풀이에도 이처럼 현실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로서 신화가 작용하는 예가 있다.

13) 프레데릭 J 시몬스 지음, 김병화 옮김, 『이 고기는 먹지 마라-육식문화의 터부사』, 돌베개, 2005, 30쪽. 이 책에서 시몬스는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는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고 현대의 비무슬림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구세계에서 근동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돼지고기거부는 근동 종교의 전파나 과거 종교로의 복귀 현상, 종교와는 무관한 근동지역의 문화전파를 통해 전해진다고 하였다. 돼지고기 금기의 기원에 관한 위생 가설, 선모충병가설, 경제적, 환경적, 생태학적 가설, 상징 및 신앙가설, 기타 목축민이나 인도유럽인들의 기여 가능성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문제가 보다 넓은 지리학적, 역사적, 사회·경제적, 종교적 시야에서 조명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돼지의 식습관이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인류의 반감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돼지고기 금기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14) 정진희는 당신본풀이의 유형을 나누는 가운데, 갈등 위주의 당신 내력담의 서사 요소로 좌정, 처소결정, 남신과 여신의 혼인, ‘식성 갈등’을 꼽았다. 그리고 ‘술도 장군 고기도 장군’으로 먹는 ‘대식’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도 식성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유형과 변천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1999).

15) 정진희는 신화전체의 맥락에서 식성갈등이라는 요소는 한 신이 다른 신을 축출하는 계기로서 기능한다며, 종전의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간의 갈등을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역사적 전개가 상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송당본풀이>를 이해하는 입장으로는 타당하나 식성 갈등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대식 또한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위에 있는 신이 열등한 신을 축출하여 별거하게 되는 신화적 내용이 실제로 마을에 신당이 존재하는 양상과 일치한다(위의 논문, 39-41쪽).

되어 용왕국에서 쫓겨나는 패턴이 송당계 본풀이에 등장한다. 신들의 대식성은 ‘육식성, 영웅성, 남성성’과도 의미적으로 상호 연관되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堂神)들의 ‘식성’¹⁶⁾ 갈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신들의 혼인이나 동거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식성이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때로는 극히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로 취급받기 쉽다.¹⁷⁾ 그러나 개인의 식성 뿐 아니라, 어느 한 집단의 식성 혹은 음식생활은 그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왜냐하면 ‘한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선택하여 마시고 먹으려는 행위 속에는 그가 속한 집단의 수많은 문화적 상징과 규칙이 담겨 있고¹⁹⁾, 특정 음식의 선택은 그 사회의 생산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식성 또한 의례를 통해 바쳐지는 제물이 결국은 그 신의 ‘단골’이 취하는 음식²⁰⁾이라는 점에서 신들의 식성 갈

16)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은 ‘선호하는 음식’이 뚜렷하며 이는 ‘미식’ 또는 ‘육식’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육식’의 경우는 어떤 특정 고기를 터부시하므로, 이는 ‘음식 금기 문화’현상으로 확대해 바라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돼지고기의 경우, 아직도 이 신앙을 믿는 십방과 단골들을 중심으로 지켜지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17) 주영하는 음식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나 사회과학적 연구가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음식과 음식물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음식을 단지 생물학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특정 음식물에 대한 선호와 맛에 대한 기호를 한 개인이 일정한 문화화 과정에서 익힌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돌린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주영하, 『음식 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2000. 16쪽).

18) 주영하는 음식에 대한 민속학적 조망에서, 음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식사는 ‘한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코드를 실천하는 행위’이며, 기호는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좋아하는 음식물의 선택과 맛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본고와 관련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물’도 포함되는데, 그에 의하면 이 기호의 경향성을 파악하면 그것을 소비하는 집단의 민속적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것이 (「식사, 기호, 민족음식; 음식에 대한 민속학적 조망」,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23쪽).

19) 주영하, 『음식 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2000, 20쪽.

20) 필자는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성산면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에서 치러진 마풀림제(2006년 8월 1일, 음력 7월 8일)를 참여관찰하였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어서 아침 7시 반 무렵에 제의가 끝났는데, 그후 단골들은 각자 준비해온 제물-백돌래떡과 메밀돌래떡, 솔래기를 서로

등을 통해 그 신화 집단의 삶, 사고, 가치관의 일면과 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²¹⁾ 제주도는 지리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이루면서도 크게는 한국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결국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 갈등의 연구는 그러한 본풀이를 생산해 낸 제주도에 대한 문화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²²⁾

2.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각 마을에 산재하는 당에 좌정하는 신들의 본풀이이다.²³⁾ 당신본풀이가 채록된 중요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199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서사무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이 가운데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와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 서사무가』는 당신본풀이의 선편집의 성격이 강하다.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은 큰굿, 작은굿, 당굿을 굿의 시종(始終), 집행과정, 제차 순으로 엮고 굿의

나누어 먹으며, 심방에게 산판점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 신에게 바쳐진 ‘백돌래떡과 메밀돌래떡 그리고 구운 솔래기(뚝)’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면서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음식이기도 하다.

21) 현용준은 신들의 제물은 인간의 음식물의 투영이고, 옛날의 귀중한 식료의 잔영이라고 보면, 제물은 고대적 생산 경제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육식의 신은 고기를 고급 식품시하는 생활문화를, 미식의 신은 쌀을 고급 식품시하는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며, 미식신과 육식신의 병존은 다른 두 개 문화의 습합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205쪽).

22) 신화가 우리들의 관심대상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신화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문화’ 때문이다. 즉 신화에는 어떤 집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그 집단의 문화와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전경수, 「을나신화와 탐라국 산고」, 『제주도연구』 9집, 제주학회, 1992, 257쪽).

2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44쪽.

진행에 맞추어 입체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제의언어를 그대로 기록·정리하여 주석을 달아놓았다. 당신본풀이의 경우 마을별로 대표적인 본풀이가 실려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는 지금까지 나온 『제주도무가집』 1, 2, 3권을 한데 묶은 것으로 500편의 본풀이가 실려 있다. 제주도의 고유한 발음대로 표기하였고, 구연자에 따라 이본이 다양하게 실려 있어 본풀이의 변이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당신본풀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문학적 관점, 민속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개별 당신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²⁴⁾, 당신본풀이의 기본형식과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²⁵⁾,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및 유형에 관한 연구²⁶⁾,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 및 다른 신화와의 비교²⁷⁾, 당신본풀이를 구전서사시로 보는 연구²⁸⁾ 등이 있다.

민속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당신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와 제의가 벌어지는

-
- 24)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2.
 김동섭, 「토산당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9.
 김현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바다의 세계-퀘네깃또 본풀이를 예증삼아」, 한국민속학회 제3회 민속학국제 학술회의. 1999.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25)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3집, 제주학회, 1986.
 유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4.
 김영일, 「당신설화의 서사구조 연구-송당리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신화의 서사모형론』, 세종출판사, 1996.
- 26) 장주근, 「제주도 서사무가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11집, 제주학회, 1994.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9.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2002.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 27) 박종국,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9년.
 권해효, 「제주도 무속 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 28) 김현선,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마을 및 신앙민들의 관계속에서 연구되었는데, 무속신앙 및 무속의례²⁹⁾, 또는 마을의 생활 민속과 신앙의례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되었다.³⁰⁾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주도의 당신앙을 당과 단골들의 생산양식등과 관련하여 당신앙의 기능과 체계를 살피거나³¹⁾, 당신화와 당의 역사 및 당신의 직능을 마을사람의 생업, 의식과 관련시켜 연구하였다.³²⁾ 이밖에 본향당에 영향을 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본향당 세력권의 확대와 분할, 및 계열에 따른 계층화의 형성 과정등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핀 연구³³⁾가 있다. 또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당신화를 해석하거나³⁴⁾ 생태학적 관점에서 당신화 및 당신앙을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³⁵⁾도 주목된다.

그런데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 즉 본격적으로 식성을 중심으로 갈등양상을 다룬 것은 많지 않다. 신들의 식성 갈등에 가장 먼저 주목한 진성기는 미식의 신이 길례(吉禮)와 선사(善事)를, 육식의 신이 흉례(凶禮)와 악사(惡事)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이를 각기 흑백 양과로 구분하고 이것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신을 대별하는 기준으로 보았다.³⁶⁾ 식성의 갈등이 당신(堂神)에

29) 진성기, 「제주도무신의 생태관」, 「고산리의 민간신앙」, 『한국문화인류학』 4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1., 「본향당의 신앙과 당신의 유형」, 『한국문화인류학』 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5 - 이들 연구가 『제주도 무속 논고-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으로 묶였다가 2003년 민속원에서 재판되었다.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

고광민, 「행원리의 민간신앙」, 『백록어문3·4』,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7.

현용준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0) 문무병, 「중문마을 민속과 신앙-중문, 색달, 대포리」, 『제주도연구』 9집, 제주학회, 1992.

31)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3.

32)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9.

33) 송인정, 「제주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8.

34) 양현숙, 「제주도 뱀신화 연구-칠성본풀이, 토산여드렛당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6.

35) 이기욱, 「제주도 사신숭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

36) 진성기, 「巫覡과 神格의 黑白 兩派」, 『蘭斯 석주선 박사 교회기념 민속학논총Ⅱ』 난사석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방의 출현 동기가 되는 <초공본>에도 등장하고, 식성이 다른 신들이 함께 좌정했을 때 제물이 어떻게 올려지느냐에³⁷⁾ 주목했다. ‘식성 갈등으로 인한 대립의 세계는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육식을 하고 싶었든지, 물이 그립든지 한 것으로 진심의 가장으로 표현되었을 따름’이고 여신이 돈모나 돈육을 취해 흑파신이 된 것을 ‘명백한 성교의 상징으로 후에 칠쌍자를 낳았다’는 의미로 결론내리고 있다. 전자는 송당본풀이의 백주신과 소천국신이 지닌 문화적 함의를 단순히 풀었다는 점, 후자는 남신이 돼지고기를 먹어 쫓겨나는 본풀이도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현용준은 당신들을 미식신과 육식신으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각각을 목축문화와 농경문화의 소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³⁸⁾ 특히 송당신화는 제주 선민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농남수렵의 생산경제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돼지와 관련된 칠일당신화는 일곱쌍둥이 산출이라는 점에서 혈연관계가 뚜렷하며, 돼지 사육 이전에 돈금기숭배(豚禁忌崇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³⁹⁾고 추정했다. 백주또와 소천국의 결혼과 별거는 수렵에서 농경으로 생업단계가 넘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나, 칠일당신화는 돼지를 취한 여신을 부정하게 여겨 축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돼지에 대한 조상관념이나 숭배관념과

주선선생고회기념간행위원회, 1982, 265-279쪽.

37) 진성기는 앞의 글에서 백파신과 흑파신의 사이를 백지로 가리고 백파신에게 제를 지낸 다음 흑파신에게 제를 올린다고 했다. 또 백파신에게는 백메, 백돌래, 청감주, 자소주, 계알안주를 올리고, 흑파의 제물에는 여기에 돈육을 더 올리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용권은 이는 미식과 육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증거로 보고 진성기의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하였다(강용권 「돼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민속학연구』 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8쪽). 그러나 필자가 구좌읍 세화리 큰심방인 오인숙님(82세)께 들은 바로는, 백주또에게 제를 지낸 다음, 백주신을 보내고 나서, 흑파신에게 제를 지내며, 이때는 다른 제물 없이 돼지고기만 올린다고 했다. 어떤 심방의 경우 종이를 사이에 두고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하자,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종이를 가리고 있어도, 부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백주신에게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구좌읍 세화리 큰심방 오인숙(여, 81세) 자택에서 청취 조사, 2006. 8. 2).

3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05쪽.

39) 현용준, 앞의 책, 128쪽.

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문무병은 송당신화가 수렵에서 농업으로 넘어가는 신화라는 점에서 현용준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는 농경 정착사회를 건설하여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도민의 이상과, 사냥과 육식으로 배고픔을 당장 해결하여야 하는 현실과의 갈등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⁴¹⁾ 돈육식 금기와 관련, 돼지는 농경사회의 터부이며, 돼지금기는 일종의 관습법으로 반농반목축의 혼합 경제 형태 내에서 선택한 생태학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마빈 해리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임신 중 돼지고기 파기는 정당화될 수 있어 금기를 파기한 여신이 농경신의 직능은 약화되지만 산육(産育)·치병신으로 역할이 분담된다⁴²⁾고 하였다. 그러나 도깨비신 등은 애초부터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으며, 식성 갈등을 겪은 후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 신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진 남신이 미식의 여신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농반목축의 경제 형태상 돼지고기 금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또 어느 시기부터 돼지가 제주사회에서 뚝거름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아, 돼지를 농경사회의 터부라고만 보기에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강정식은 식성 갈등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다.⁴³⁾ 그에 따르면, 동부지역 본풀이에는 육식 금기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서부지역 본풀이에는 육식 금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돼지털 관련 화소는 제주시에서 한라산 동쪽을 돌아 남쪽 서귀포시 보목리까지 분포하고 있다. 즉 동부지역의 본풀이에는 식성에 따른 부부신의 갈등이 드러나고 서부지역의 본풀이에는 가난으로 인한 딸들의 분거(分居)가 제시된다는 것이

40) 강용권도 돼지에 대한 터부와 혈연관계를 관련시키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높다면, 당신본풀이를 살펴보면 돼지는 숭배보다 혐오의 대상과 보다 관련이 있고, 돼지털과 접촉한 여신들이 돼지를 죽여 제물로 받고 있어 조상으로 숭배한다는 논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돼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민속학연구』 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41)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4, 11쪽.

42)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3, 115쪽.

43)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2002. 153쪽.

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부지역인 한경면, 애월면 등에도 돈육금기의 당신분풀이가 드러나고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돼지금기 모티프를 가진 당신분풀이에 대한 지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 여신의 입장에서 식성 갈등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 김정숙은 제주신화가 여성 중심의 무속 신앙임을 주지하고, 제주신화에서 농경신은 여신으로 본향당신인 경우가 많으며, 이 여신은 돈육금기를 지키는 맑고 고운 신으로 추앙된다고 하였다.⁴⁴⁾ 육식금기를 여겨서 ‘땅가르고 물갈라’ 살림을 분산하는 모티프를, 마을의 분리 및 확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마을의 형성 및 분포와 관련하여 여신들이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그런데 여신의 입장에서 보면, 임신한 여신이 결국 돈육 금기를 깨뜨려 쫓겨나고 남신은 새로 후처를 들이게 되어 자기 마을의 토주관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여신이 ‘임신’중에 입이 ‘굽뽕’을 변명하며 종속적 입장에서 그대로 쫓겨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남신들이 ‘부정하다’고 임신한 여신을 내쫓는 것은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의 성과로는 돼지에 초점을 맞추어 식성 갈등을 주시한 강용권의 연구가 있다. 그는 야생에서 길러지던 돼지가 제주도의 화전농경과 인구의 증가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는 집돼지로 키워져 뚝거름을 생산해내어 농경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를 항상 섭취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돼지는 초자연적인 금기의 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신앙에서 대우받던 육식신들도 더러운 신으로 강등되어졌다는 것이다.⁴⁶⁾ 이 연구는 제주도 당신의 육식, 미식의 식성 갈등 문제가 단지 식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사적 원인에 의해서 파생되었음을 밝히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육식신이 대우를 받다가 더러운 신으로 강등되었다는 해석은 문제가

44)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0.

45) 김정숙, 위의 논문, 45쪽.

46) 강용권, 앞의 논문, 24쪽.

될 수 있다. 일단 본풀이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식성 갈등에서는 미식의 신이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⁴⁷⁾ 돼지거름인 뚫거름이 농작에 사용되며 돼지가 초자연적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실제 돼지 사육의 역사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⁴⁸⁾ 당신본풀이에서 금기대상이 되는 돼지는 ‘통시’ 안의 돼지이다. 제주도에서 통시 안에 돼지를 기르며 뚫거름을 생산한 것은 한반도 내의 일반적 돼지사육 방법과는 다르다. 후술하겠지만 한반도나 제주에서 돼지 사육이 일반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돼지의 농경적 가치에 따른 금기 형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종국은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⁴⁹⁾에 주목하여 종전의 식성 갈등 논의에서 다루지 않은 신들의 대식 문제를 다루었다. ‘거식성’⁵⁰⁾은 신들의 비범한 능력을 담보해내는 장치로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케네깃또나 송곡성에게 보이듯이 신들의 대식성이 ‘궁핍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신들의 ‘대식성’은 오히려 또 다른 세계로 쫓겨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당신본풀이에 드러난 식성 갈등을,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이 갈등한다거나 혹은 여신이 돈육금기를 깨뜨려 갈등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풀이 내에서 당신이 또 다른 세계로 쫓겨나는 원인이 되는 대식성의 문제는 흔히 간과되었으며,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의 갈등에 있어서도 갈등의 주체나 금기 대상, 금기 파기의 결과 등이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

47) 현용준은 <세화리본향;금상님>에 육식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미식을 청결한 것으로 보는 관념이 드러나 있고 또 육식신은 하위, 미식신은 상위라는 위계의식도 보인다고 했다(앞의 책, 1986, 203쪽).

48) 김정희 『제주풍토록』(1521)에는 제주도의 특징적인 농사법인 진압농법이, 이건의 『제주풍토기』(1629)에는 우마의 변을 밭에 비료로 주었음이 기록되었으나 돼지거름 관련 기록은 없다(『탐라문헌집』, 제주교육위원회, 1976, 197쪽).

49) 박종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2.

50)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에는 많이 먹는다는 의미의 ‘거식’이나 ‘거식성’이란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대식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식’은 말 그대로 많이 먹는다는 뜻이며, 많이 먹는 사람을 일컬어 대식가라고 한다.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당신본풀이 연구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당신본풀이에 드러난 식성 갈등의 양상을 두루 다루고자 하며, 당신본풀이에서 신들이 왜 식성을 두고 갈등하는지, 돈육금기와 부정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관점

이 연구는 식성이나 음식습관이 한 사회의 문화적 상징 코드라는 관점에서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식성을 중심으로 그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식성 갈등이 패턴화되어 나타나는 ‘당신본풀이’이다.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과 필자의 채록 자료를 기본 텍스트로 삼고, 본풀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위해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과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를 참조하였다. 연구의 관점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 구조 분석 방법으로 식성 갈등 모티프가 들어있는 당신본풀이를 분류하고 식성 갈등을 유형별로 묶어 패턴을 읽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식성 갈등은 크게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 대식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돼지고기 금기를 둘러싼 신들의 갈등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은 그 대상이 ‘날것’인가, ‘육식’인가, ‘농우’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 돼지고기를 먹는 여신과 미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 양상이 반복되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구조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신화의 구조에 그치지 않고 맥락적 분석을 지향한다. 맥락적 연구는 한 신화의 시퀀스들이나 신화소로부터 출발하여 어느 사회, 어느 역사적 순간에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읽어내는 것⁵¹⁾이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제의 속에서 살아 있으며, 제주인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개인들의 적응적, 조정

51) 질베르 뒤랑 지음, 유평근 옮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살림, 1998, 297쪽.

적 행동을 규정하는 문화적 양식으로 기능⁵²⁾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지리적 혹은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육지와는 달리 당신본풀이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텍스트에 접근한다.

셋째, 현재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의 내용과 육식 금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풀이의 구연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곳을 참여관찰하였다. 2006년 8월 1일에 신양리와 수산리에서 열린 마풀림제에 참여하고, 단골과 심방, 그리고 일반인과 면담을 하여 돼지고기금기 현상과 이유 및 돼지사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당맨심방과의 면담을 시도하였는데, 신양리 양정순과 구좌면 세화리 오인숙과의 면담을 통해 세화본향과 신양본향을 채록하였다. 또 본풀이의 내용과 제의의 절차 등을 조사하였다.⁵³⁾ 성산면 신양리의 경우 아직도 당곳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고, 구좌면 세화리의 경우 큰 심방이 4대째 무업에 종사해온 까닭에 제보자로 선정했다. 특히 세화리는 본풀이의 갈등 내용처럼 마을의 통혼권과 생활권이 분리된 역사가 있는 만큼 본풀이를 확인하고 채록하였다. 면담일자와 제보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52) William G. Doty, 『Mythography-The Study of Mythos and Rituals』, Univ. of Alabama Press, 1986. p46.

53) 면담 결과 세화리 큰심방(2006.8.1), 신양리 큰심방(2006.7.31)으로부터 각기 <세화본향>과 <신양본향>을 청취하고 채록하였다. <신양본향>은 송당에서 가지갈라온 것으로 본풀이가 '가지갈라' 전승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산본향당에서 만난 온평리 강금자 큰심방은 스승인 조00심방이 젊어서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으므로, 당만 매게 되었고 본풀이는 전수받지 못했다고 한다(강심방은 온평리에 거주하지만, 스승 조00 큰심방을 계승하여 수산리 당맨심방이 되었고, 단골은 수산1·2리, 고성리 사람들이다. 온평리에는 온평리 당맨심방(안봉호, 71세)이 따로 있다. 당맨심방은 큰심방과 같은 말이지만 단골들은 큰심방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결국 수산당곳은 행해지만, 수산본향본풀이는 전승이 끊긴 셈이다. 고성리 오용부 심방에 따르면 본풀이 전승이 거의 끊겨서, 학자들이 펴낸 무가 사전이나 무당들 사이에서 도는 필사본 책을 보며 본풀이를 익히는 무당이 많다고 한다.

<표 1> 주요 제보자 명단 및 조사 일정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조사 장소	조사 시기
오용부	남	47	심방	고성리	자택, 수산본향당	2006.7.30, 8.1
강금자	여	62	심방	온평리	수산본향당	2006.8.1
강봉녀	여	65	심방	세화리	신양리본향당	2006.8.1
현재복	여	69	농사	고성리	자택	2006.7.30
정영평	남	72	농사	고성리	자택	2006.7.30-31
양정순	여	74	심방 및 물질	신양리	자택	2006.7.31
정창옥	여	75	농사 및 물질	신양리	자택 근처	2006.7.31
한희화	여	79	농사 및 물질	신양리	자택, 신양리본향당	2006.8.1
오인숙	여	81	심방	세화리	자택	2006.10.4
한해월	여	86	물질	온평리	자택	2006.7.31

심방과 단골들의 인터뷰 등으로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는 본풀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왜 그러한 부정 개념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가축으로서의 돼지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가 하는 실제적인 의문으로 되돌아가 어떻게 돼지고기 금기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돼지라는 동물에 형성된 부정 관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돼지 사육의 역사 등을 여러 옛 문헌을 참조하고 검토함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II. 당신본풀이의 성격과 신들의 식성

1.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제주사회와 제주민의 삶

이 장에서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 갈등을 알아보기 전에,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당신본풀이에 담겨 있는 제주인의 삶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식성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당신본풀이를 제대로 구송하는 심방이 드물다고 하지만, 흔히 제주도에는 500개의 자연마을에 300여개의 당이 있다고⁵⁴⁾ 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그 마을의 수호신이 좌정하는 본향당이라든가 질병을 관리하는 용왕녀가 좌정하는 일뢰당, 사신(蛇神)의 여드렛당, 또는 해신당 등의 당과 함께 당신본풀이가 전하고 있다. 물론 형식이 갖춰진 당신본풀이는 70~80여개라지만⁵⁵⁾, 이는 본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서사적 내용 없이 신명과 축사만 나와 있는 언어적 서술까지 포함하면 제주에 신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신본풀이는 그 마을의 구비역사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명백하게 반영한 지역사인 동시에 제주도민의 신앙생활이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생활사라고 할 수 있다.⁵⁶⁾ 뿐만 아니라, 당맨심방이 ‘본향한집’, 또는 ‘토주관한집’의 신내력을 되새기는 서사시로 신년과세제, 영등맞이, 마풀림제 등 의례에서 구연되는 살아있는 신화이고 단골들인 청중들이 들어 알 수 있는 신화이기도 하다.⁵⁷⁾ 살아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 및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⁵⁸⁾ 문화적으로 가장 정수가 되는 관습이 제의라면, 가장 정

54) 문무병, 「제주도 당신양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3.

5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44쪽.

56)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의 위상」, 『비교문화연구』 5호, 서울대학교문화연구소, 1999, 116쪽.

57) 김현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계보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4, 244쪽.

수가 되는 이야기가 신화이다.⁵⁹⁾ 따라서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결국 제주민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와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실존 과정과 마을사람의 삶의 역사를 담고 있다. 때로는 제주도민이 겪은 실제의 역사가 본풀이에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개인의 삶이 극적으로 담겨 있기도 하다. 먼저 신화가 역사적 인물이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자.⁶⁰⁾

고내 마을 본향 역사는 옛날에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있을 때, 우마와 각종 생산물이 많이 풍성히 될 때, 천주국에서 짐통정장수를 시켜서 탐라국을 돌아보라고 보내었는데, 짐통정장수가 와서 보니 우마와 생산이 잘 낫니 그것을 욕심하고 탐라국을 먹을라고 무류탕심하니, 천자국이선 짐통정 장수를 보내었습니다.(〈고내본향〉, 애월면 고내리, 582쪽)

옛날 영청 이목사 시절에 당 오백 절 오백 부수완 미력보살이 꺼꾸러져서난 과양 사는 이칩이서가 당설립했다.(〈미력당〉, 제주시 이도동, 325쪽)

영청 이목스가 제주도에 도입하여 들어오라 행복으로 출려가지고 제주일주를 하여 그 때는 사람 묻은 골충이 산담도 헛싸지고, 산도 쇠가 된 과불고 하니, 제주성내 들어와서 사출을 정하여 앉아두서, 대정원 정의원 모관원(牧官員)에 통지하여, “산담 헛고 파진 걸 잘 수리하여 놓라”고 할 때, “짐녕 괴너깃당이 처녀 하나씩 받나.”하는 소문을 듣고 이목스가 “강 보겠다”고 하여 짐녕 괴너깃당엘 간 보니, 귀신이 없어, “어느게 귀신이나?”하니, “심방 돌아당 곳을 치민 귀신이 눈에 뵈네다” 하여 심방을 돌아당 곳을 처가니(〈두레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제주시 이도동, 350쪽)

58) 천혜숙, 「민속신화의 범주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 『인문과학』 2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98쪽.

59) 천혜숙,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원전은 W.G.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and Rituals』, Univ. of Alabama Press, 1986, p.13.

60) 이하 제시되는 본풀이 예문은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2002)에서 가져온 것으로,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고 괄호 안에 쪽수를 제시하기로 한다.

신축년 난리에 이제수가 장도질을 하여 쭈물다섯에 이 당을 성교꾼이 부시와부난 이제수 장수가 일러세완 올히가 예원시해채우다. 이 당 앞이 스딘 선싱은 차씨선싱, 그 버금엔 성안에 박씨선싱, 막음골 전상 살던 양씨선싱, 짐씨선싱, 문씨선싱, 고씨선싱, 짐씨선싱이우다.(〈콧남밭〉, 545쪽)

위 본풀이에는 실제 역사적 인물인 김통정이나 이형상 목사, 이제수 등이 등장한다. 김통정은 고려말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에 와서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결국 김방경이 이끈 여몽 진압군에 패해 자살을 했다. 그런데 제주인에게 제주의 우마 생산을 탐낸 부정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다음 두 본풀이는 이형상 목사가 제주에 와서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순 것, 실제로 무너진 산과 성담을 수리한 일, 김녕 당신을 없앤 일 등을 제주민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콧남밭>당의 본풀이에는 신축년 천주교도의 당 탄압이 있었을 당시, 이제수가 이 당을 세웠고 그 이후로 당을 모신 심방들이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다. 본풀이에는 제주사람들의 역사상, 곧 역사적 사건들이 이를 겪은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제주사람들에게 당신이나 당제 자체가 역사인식의 기제로 작용⁶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사 전승의 기능을 당신본풀이가 수행하는 것이다.⁶²⁾

옛날에 열다섯 박씨할망이 바당에 나간 프래 매노랜 흐난 일본(일본) 사름이 낙배에 물식그레 오랏단 할마님을 겁탈호젠 흐연 다올려부난 노래연 볼랫낭 알레레 천장만장 돌아오난 죽어진 박씨할망 본향(〈신흥본향〉, 조천면 신흥리, 364쪽).

늦인덕이정하님이 남바당드레 배려보니 놈의 나라 팔대선이 떠옴네 다. “애기씨 상제님아, 흐단 스답을 거두옵서. 놈의 나라 팔대선이 떴수

61) 주변부화라고 성격지워지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주사람들의 역사인식은 피지배자로서의 위치 때문에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당제는 역사인식을 표현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김창민, 「제주도의 역사와 당제」,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288쪽).

62) 김현선, 앞의 논문, 250쪽.

다.” “어제 알 게 하였느냐?” “철리통을 놓고 보낸 질로 땀이는 계염일 다 붙네다.” 놈의 나라 팔대선이 떠오라가는구나. 우 벗인 놈, 알 벗인 놈 다붙려오라간다. “이만흐민 어떻흐리 저만흐민 어떻흐리 내 몸이나 금추저.” 애기씨 상제님은 앞 텃그려간다. “애기씨 상제님아 치매가 벗어집네다.” “치매가 벗어진덜 조롬(뒤)이 날서냐!” “애기씨 상제님아 썩이 늙네다.” “썩이 눈덜 쥐가 늘서냐!” 놈의 나라 팔대선은 호련 광풍을 만나 놓고, 검은여(여이름) 코지(꽃)로 배파산을 지니, 놈의 나라 외놈들 일곱 놈이 든물 수록을 훗젠 천리통을 내여 놓완 울리숫테레 배레보니, 애기씨가 고운 스답을 하였구나. 놈의 나라 외놈들이 애기썩 촌레격관을 해여부니, 애기씨는 새파랑케 죽어간다.(〈토산분향;알당〉,표선면 토산리, 487쪽)

위 본풀이에는 일본 사람에 의해 겁탈당한 제주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추자도와 제주 사이의 뱃길, 추자도와 관탈도 사이의 뱃길은 물살이 세서 배가 표류하는 일도 많았고, 또 중국과 일본이 왕래하는 길이어서 제주에는 여러 나라의 선박과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 중 일본인들의 배와 해적선이 제주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특히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상무역을 하여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상 뱃길을 오가며 물과 식량, 빨감을 구하기에 적격한 곳이었다.⁶³⁾ 그래서 그들은 제주섬에 정박해 식수를 구하기도 하고 제주의 미곡선이나 상선을 약탈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주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⁶⁴⁾ 위의 두 본풀이는 일본인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두 여인이 결국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경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⁶⁵⁾

63) 고려말 충숙왕 3년(1316)부터 조선 명종 11년(1556)까지 240여년 동안 30회 이상 왜구가 제주도를 침범해왔다고 한다(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134쪽).

64) 왜적이 제주의 미곡선을 약탈해가거나 추자도에서 제주의 상선이나 진공을 약탈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기록(세종실록, 1418, 1419, 1494)과 200여명의 왜구가 천미포에 들어와 포구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기록이 남아있다(명종실록, 1552).

65) 고팡민은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에서 실제로 제주 여성들이 왜침, 진상, 계급사회의 갈등(양반의 능욕이나 처첩간의 갈등으로 죽은 경우), 풍토적 악조건으로 억울하게 죽어 당신으로 모셔진 본풀이를 다루었다, <볼래낫할망당>과 <토산여드렛당>은 왜침에 의해 죽은 처녀들의 원령을 모시는 당으로 이 당이 위치한 곳은

아래 본풀이는 잦은 왜의 침입에 대한 방비책으로 성산읍 수산리에 성을 쌓았는데,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아 한 소녀를 희생시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안할망은 성담쓰굽에 할망을 놓안 성을 쌓난 진안할망이엿 흡네다. 옛날 고려적에 여배(왜배)에서 여놈(왜놈)들이 주주 친입을 호연 “성담을 돌르라”호디, 성담이 자꾸 멀어지연, 호로운 꿈에 산신이 나타나고 열시슬된 처녀를 놓왕 담을 쌓민 좋기엔“ 호난 열시슬 난 지집애기를 놓고, 성을 돌렸습니다. 그후로 성담은 잘 되었습네다. 단궐들이 하는 이력이 부족호나 집안이 펜치 못호민 이 할망안티 왕 빌민 펜안 흡네다.(〈진안할망〉,성산면 수산리, 442쪽)

한편 당신본풀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도 그대로 보여준다. 일반신본풀이에는 제주도의 지명이 나와 있지 않은 반면에 당신본풀이에는 실제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지리적 특성도 반영되어 있어 그 토착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손당당 열호켓 아들롭서 사농놀이 댕기단 가시내오름 오라 앓아 좌정호고 보니 한거리(조천면 와흘리 큰거리) 검폭날알(신팽나무아래) 큰도부인이 좌정호여 이서(〈와흘본향〉, 조천면 와흘리, 366쪽)

“물머리로 비석 새기라.” 비석 새겨 끝안 세화릿당에 댕기는 사름은 갯마리 못가곡, 명동이당 댕기는 사름은 세화릿당에 못오곡,(〈세화본향〉, 구좌면 세화리, 396쪽)

제주도로 피란 오라. 요왕 패두선을 둘러타고, 허구와당 트난 들물나민 서바당, 쓸물나민 동바당, 친즈님광 백조를 좇앙 가져. 새끼 청산, 소섬은 진질 깝 벨방 상코지 배를 부찌젠 호난(〈세화본향〉, 구좌면 세화리, 397쪽)

첫 번째 예문은 조천면 와흘본향의 산신백관이 와흘리 큰거리에 있는 팽나

왜구로부터 받은 피해의 현장이다.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한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는 조천면 신흥리와 표선면 토산리는 어느 지역보다 왜침을 당하기가 쉬운 곳이다(앞의 논문, 1982, 40~42쪽).

무 아래 큰도부인이 좌정해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 대목이다. 다음 두 예문은 명동소천국이 백주를 겁간하려 한 것에 대한 별로 천자또가 세화리와 평대리(갯마리) 사람들이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목과 금상이 백주를 찾아 제주도로 들어올 때, 성산(청산), 우도(소섬, 진질각은 소섬의 지명), 구좌면 하도리(벨방)로 배를 붙이는 대목으로 제주의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예는 소소한 것으로 당신본풀이를 보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이들 지명의 사례는 당신본풀이가 제주의 지리적 환경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탐라가 고려말 이후 한반도에 복속된 이후로 나라에 진상 보내는 일은 섬 제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배가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공물을 싣고 가는 배든, 다른 목적의 배든 뱃고사를 치렀다. 아래 본풀이에는 토산에 사는 강씨 형방, 한씨 이방, 오씨 형방이 ‘산촌, 중촌, 해각(해안마을)’의 토산물을 받아 배를 마련하여 육지로 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서울로 가는 길 역시 ‘큰과탈, 작은 과탈, 소안도, 명구미’ 등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당신본풀이의 상당 부분이 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월 동지기에 간 백물랫거리에 떨어지고, 서월 종노 뇌거리로 우리나라 안 태조 진상가는 팔도지스 가명오명 다 받아. 그 때 시절에는 진상을 한번 강오민 삼댄 먹고 삼댄 써도 남나. 경흐니 토산이 강씨성방, 한씨이방, 오씨성방, 산촌으로 초기, 중촌으론 고사리, 어래빚, 진피, 해각으론 우미, 전각, 초각매역, 팬푸, 고동, 생복 하영 받아. 이디 선간 째혀, 전배독선 흐여 벨도로 배를 놓아, 큰과탈, 작은과탈⁶⁶⁾, 소안도, 명구미, 배진, 고달도⁶⁷⁾, 서월 동지기 간(<토산분향;알당>, 표선면 토산리, 474쪽)

아래 본풀이들은 언제부터인지 제주 여인들에게 남성 중심의 유교적 관념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서사구조가 길면서 여신이 남신에게 쫓겨나는 내용의 본풀이에 나타난다.

66) 제주 먼 앞바다의 섬

67) 전라남도 섬의 지명

산신백관 산신대왕이 명암을 드리니, “이런 언관도서 곁은 양반이 우리 곁은 어리고 미육흔 예생에게 미신 명암입네까?” “아! 그런 말씀 마 십서.” 흐를 이틀 흐는게 알음이 되어.“뫼을 잡습네까?” 속습흐연 그영 흐여도 얼굴이 축지여가니 “떡구정흔 음식을 못먹어 그리 흠네까?” “예 술도 장군 괴기도 장군이요.” “게멘 우리 몫은 도광 흐디 못삼네다. 브름알로 좌정흔 십서.” 그영 흐연 사는디(<다락콧신대기므르>, 제주시 영평동, 343쪽)

“뫼짓자국에 물이 시연 물을 먹젠 흐난 뫼짓술이 콧고냥드레 썽하게 듭디다” “양반의 부인 행실이 부족흐다.” 물도 냥도 옛인 더위섬에 귀 양을 보냈더니, 예즈로 홀로 살 수 옛어 개삼싱(浦三神)이 느리고 애기를 일곱 개 배엿더니.(<토산분향;웃당본>, 표선면 토산리, 471쪽)

신중부인은 아길 일곱을 찻뫼같이 배여 놓고---그만쫓 흐 일에 귀양을 보내여시니 죽어도 아니갈로라 새로 금상이 말을 하되, “예즈는 지아자뫼법이 있습네다. 나 인정을 뫼, 읍서 가게” “아시 하는 일도 고맙다. 걸랑 기영 하라(<토산분향웃당본>, 표선면 토산리, 465-466쪽)”

<다락콧신대기므르>의 남신은 언관도서란 양반의 모습으로 명암을 내밀고 이미 좌정한 여신과 함께 좌정하고자 한다. 토산리 웃당본의 남신은 ‘뫼짓술’이 콧구멍에 들어간 여신에게 양반의 부인이 행실이 부족하다며 귀양을 보내고, 이 남신의 첩인 새로금상은 귀양간 신중부인을 데리러 가서는 ‘여자에게는 지아비뫼법이 있다’며 신중부인을 설득한다. 여신 스스로도 유교적 관념을 받아 들여, 서열상 남신보다 하위격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신의 이러한 모습들은 서귀포 동홍리 분향에 등장하는, 축지뫼에 능하고 ‘천근활에 백근쌀을 둘러박고’ 천기운간 별자리를 짚는 고산국⁶⁸⁾이나 해모살 할망의 대모신적 모습⁶⁹⁾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인격신이어도, 산신인 최지국

68) 서귀포 <서귀분향>에서 고산국은 자기의 남편과 함께 도망간 동생을 쫓아 제주도로 왔는데 천지가 컴컴하여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자 구상나무를 절벽에 꽂아 닭모양을 만들어 닭이 울어 새벽이 오게 하고는 남편인 바람운님과 동생 지산국을 붙잡는다.

69) 해모살 송씨할망은 한라산 셋어깨에서 스스로 솟어나 가지 벌여 자손을 번성시킨다. 진성기, 앞의 책, 417쪽.

의 아들을 나무에 밧줄로 묶어두며 큰소리치는 정좌수의 따님애기와도 거리가 멀다.

금악리 알당밧은 오일한집, 이 한집은 육지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 산신이우다. 옷당밧은 호근므르 정좌수의 따님애기 득신므들 축일한집이우다. 호로는 최지국의 아들이 질이바른 마세기총 들르고 사농을 갔더니 그리에 호근므르 정좌수 따님애기도 낭기 푸실새 호레 간, 산중에서 서로 대호여, 최지국의 아들은 스나이 소철로 정좌수 따님애길 붓잡으니, 정좌수 따님애긴 최지국 아들을 낭테레 짐패로 껌혀 묶어두고 낭기 푸실새 호연 걸머지젠 호난, 최지국 아들이 “살려줍서, 살려줍서” 호연, “날그라 누님이엿 호민 살려주키여” 호난.(〈금악본향〉, 한림읍 금악리, 567쪽)

그 외에도 제주인들의 풍토병 중의 하나였던 피부병을 당신이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람(토산 알당)이나, 달 밝은 밤 태뱃놀이하며 뱃고사를 벌이던 일(그시락당), 당집의 신축과 당맨 심방의 역사(신촌본향), 유월 만민백성이 물놀이 하는 모습에 대한 부정적 관념(송씨할망) 등 제주인의 삶의 한 모습과 사유가 반영되어 있다.

애기 호날 츠자보난 새끄르에 문들어부난, 새끄르에 몸을 다 질러부난 갱비리, 물비리(움의 일종), 녀억지시, 호허물(허물), 브жат손(부스럼) 불러주언, (〈토산본향;알당〉, 표선면 토산리, 484-485쪽)⁷⁰⁾

그시락당 용해국 대부인은 들 붉은 밤이 용연물에서 태뱃놀이 흘 때에 지주목스신디 뱃고스를 받아먹곡 수다많은 단궐에 스망일게(채수종게) 호여주는 용왕국 말궐뜰(〈그시락당〉, 제주시 용담동, 330쪽)

이 당의 당집은 조천면 서상동 큰물 남척 좋은 양철집입네다. 그전 므을 개관홀 때 이섯던 당집을 지금에 새로 건설했습네다. 신촌에 야라 이민은 이 당에 다 축수호는 본당입네다. 또 그 뿐 아니라 이 본당 설비는 옛날에

70) 김상현의 『남사록』(김희동역, 1992)에는 당시 제주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부병을 앓고 있고, 이것이 제주사람들에게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남사록』 風物편의 원문이다. 且民多癩疾瘡痍滿體者, 必是風土所厲(또한 백성은 곱추병과 상처와 헌데가 온 몸에 나 있는 자가 많은데 반드시 풍토가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는 신촌 사는 야라 이민이 호고 위로호였습네다. 그 신주는 날들 뽕월롭씨 일름이 본당이 되었습네다. 집동지 영감은 우쪽에 모시고 또 고동지 영감은 좌쪽에 모셨습네다(<신촌본향>, 조천면 신촌리, 362쪽)

이 본향 한집은 할루영주산에서 발을 번어서 당밭 좌정호였다가, 또 깨물수덕으로, 글로와서 좌정호였다가, 귀덕에 큰이물(귀덕리의 못이름)에 차정호였다가 한집이 “만민백성들이 유월영천에 옷벗어서 목욕하는 거 모든 것이 부찰호다”호여 해모살로 또 이동을 호였습네다.<송씨할망>, 한림읍 귀덕리, 563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마을을 차지한 신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모시며 살게 된 당시의 제주민의 삶과 제주사회의 특징적 모습들,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유, 제주도의 지명과 지리적 환경, 그리고 여성에게 강요된 유교적 관념 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마을과 마을의 관계, 통혼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마을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신본풀이는 제주도 촌락 신앙의 종교체계가면서 제주도 지리성과 문화사를 반영하고⁷¹⁾, 전승집단의 공동체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고찰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 본향신의 마을 차지 방법과 신들의 식성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당신들은 마을의 호적, 장적, 생산, 물고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토주관인 본향신으로 좌정하기 위해 대개 한라산으로 올라가 전경을 살펴보고는 ‘산설(穴), 물설(穴)’을 밟아 좌정하기 좋은 곳을 찾는다. 대부분의 한라산신 계열의 신들이 그러하며 이주신이어도 고산국이나 바람운님처럼 한라산으로 바로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로 혈기를 짚으며 단골 삼을 곳을 찾아 내려온다.

호를날 천즈님이 혈기를 짚어보니 상서화리 손드랑믈 떨어세믈 혈기가

71) 장주근, 앞의 논문, 26쪽.

떨어지니, 천자님이 손드랑미를 좌정하고(<세화본향;천즈당>, 구좌면 세화리, 407쪽)

할로영주 봉래 방장 오를목 느릴목을 하다가 설(穴)을 불러오는 것이 7다시 동편 동산 강구물동산으로 내려온 한집님.(<7시락당>, 제주시 오등동, 345쪽)

하로하로산이 올라가서 산설 물설 뵙아 내려오다 보니, 은기선승 늦기선승 부인네가 왔으니,(<아라본향;큰도안전> 제주시 아라동, 344쪽)

그러다 먼저 좌정한 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의 안내를 받아 좌정처를 찾아간다. 여기서 먼저 좌정한 신, 혹은 토착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오부인님께 선신문안을 드렸구나. “어딴 토조관이 됩네까?” “나주 영산 금성산 금바둑 옥바둑이 됩네다.” “어떻게 연 이런 고단 읍디까?” “절도절섬은 만민단골이 인심이 좋다 하여, 서친미련 반젠 오랐수다.” 명오부인님이 말을 하되, “여기는 땅도 내 땅이고 물도 내 물이고, 단골도 내 단골이 되우다.” “어디가 비였수가?” “토산땅 내가 비였수다.” 문씨 영감 통정대부 질을 세와, “저건 화강이우다. 저건 한골 신전이우다. 저것은 웃내기우다. 저건 알넷끼이다. 저건 토산땅이우다. 저건 가사봉이우다. 한집이 허울허울 오람더니,”(<토산본향;알당>, 표선면 토산리, 476쪽)

그런데 모두 이주신이거나 혹은 모두 토착신인 경우 좌정처는 어떻게 정하는가. 동일한 지위의 신들이 좌정처를 정할 때 모흥혈에서 솟아난 삼형제 신이 보여주듯이, 아마 가장 오랜 방법은 ‘활쏘기’가 아닌가 싶다. 서귀포 본향의 고산국이 활을 쏘려다 그 대신 치는 ‘뽕개질’은 돌을 감아 던지는 것으로서 활쏘기와 함께 수렵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산국 부인님은 화살 동꺽 질르고 내외간을 죽여불젠 뒤를 조차 오란 생각을 하여 보니 츠마 죽일 수가 었어. “땅도 가르곡 지경도 가르자”흡네다. 이젠 화살 동꺽 해서 활을 쏘으니 문섬 뒤으로 오란 떨어지고, 지산국 부인님은 뽕개를 치니 연뒤동산으로 오란 떨어지고 다시

고산국 부인님은 뽕개를 치니 흑담으로 오란 떨어집네다. 기영호난 고산국 부인이 말을 하되 “동서홍리 서귀간에 이제랑 서로 사둔도 아니 곡 몰믄쉬도 아니 바꾸곡 쇄믄쉬도 아니 바꾸기로 계약이 되니우젠 고산국 부인님은 서홍릴 좌정호고 브름운님광 지산국 부인님은 서귀포로 오라 좌정호니(<서귀본향>, 서귀읍 서귀리, 498쪽)

또한 신들이 좌정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형과 아우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흔히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 그리고 형이 된 신이 먼저 활쏘기를 하여 좌정처를 정한다. 형과 동생을 바둑이나 장기로 정하는 것은 힘에 의해 정하는 것보다 상당히 문화적이며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한 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신 모두 평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탐라국 삼신인의 고을차지를 연상시킨다.⁷²⁾ 여하튼 이렇게 형과 아우를 정한 다음에 마을 차지는 전통적인 방법인 ‘활쏘기’로 정한다.

옛날 할락산으로 솟아난 백관님은 큰성이고 도오님은 셋아시고, 조녹인 말춧아시우다. 곳인도또(신례리의 지명)에서 시성제가 바둑을 두다가 백관님이 바둑에 이겨부난 큰성이 되었수다. 백관님은 활쏘기로 바란 느르오란 예촌을 츠지호였수다. 그 때에 쌀이 박씨 집에 놀아드난 이 당은 박침이서만 맵네다.<신례본향②>예촌당> 남원면 신례리, 491쪽)

예촌 한집 산신 백관님. 할로영산 서남 어깨에서 솟아나고 강남천즈도운님광 칠오름 도병서광 서이라 칠오름서 바둑 장궐 두명, “바둑 장궐에 떨어지는 즈로 성, 아실 삼자.” 호연, 성, 아시 츠례를 곱렸수다. 조노기는 브름운이고 아시는 예촌. 상예촌 중예촌 하예촌, 매여기된발디 좌정하여 상을 받읍네다.<신례본향③>예촌당> 남원면 신례리, 491쪽)

그런데 어떤 마을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를 ‘무엇을 먹는가’ 하는 식성에 의해 정하고, 형과 아우까지 정하는 본풀이가 있다. 중문면 도순리의 도순본향이 그것이다.

72) 전경수는 삼신인이 각각 활을 쏘아서 각자의 거소를 정한다는 화소의 내용은 평등사회의 경쟁원칙을 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장, 차, 삼’의 서열화를 위계적인 힘의 서열우위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을나신화와 탐라국 散考」, 『제주도연구』 9집, 제주학회, 1992, 267쪽).

ㅁ을 차지한 열이화주, 나주영산에서 유람을 온 신전이 놀깃내가 나
 “어떻게 난 날빚내가 근당흡네까?” 신전님이 대답하되 “머리그자 기지
 속에 즈소줄 먹으니 언설내 단설내가 납네다.” “알로 느랴 샅서” 신전
 님은 알로 느랴 강당 큰당빚으로 좌정하여 도순 강정을 캣담을 곱을
 갈라 만민백성들에 제명을 받고. “화주님은 좌정처가 어딴네까?” “나는
 당밭들로 좌정하여 하원, 도순 백성을 그늘루저. 신전님이랑 월평 강정
 백성을 그늘황 받으서.” 그영호연 곱갈란 갔수다. 각기 본향으로 가 상
 을 받는 걸 보난, 강정 월평 츠지한 한집은 어떻게 흡을 몰라진다 삼신
 성월 열나흘날은 두 한집이 서로 앓아 놓고 말을 하되, “우리가 이제랑
 성, 아시나 곱리고, 지내는 게 어떻게우파?” “어떻게영 성 아실 곱립네
 까?” “먹는 음식으로 성 아실 곱립시다.” “강정 한집은 빚을 받으네
 까?” “삼신 정월 초흘날 제명 받고, 백록 팔월들 대보름날 제명을 받
 습네다.” “빚으로 받으네까?” “언메 단메로 받곡 즈소주로 받곡 우육이
 나 즈육이나 머리그자 기지숙이나, 백돌레 백시리 우거러라 츠청주나
 받으네다.” “도순이 한집은 빚을 받으네까?” “언메나 단메나 백시리 백
 돌레 맛이 좋아 청감주로 받으네다.” 도순이 한집이 말을 하되, “강정
 한집이 츠지한 음식은 우리는 안받습네다” “어떻게영 경흡네까?” “한집
 이 받는 음식을 보니 더럽고 나쁘니, 날보단 아실흡서.” 또시 도순이
 한집이 말을 하되 “난 양반의 음식을 먹으니 성을 호고” 강정한집이
 말을 하되, “게건 도순이 한집이 상을 받은 때랑 나도 불령 상을 받으
 서.” “결랑 기영호라” 그영호난 도순이 한집이 상을 받을 적엔 강정한
 집도 청호고 강정한집이 상 받을 적엔 도순이한집도 청호고, 만민단골
 들에 제명을 받으네다.(<도순본향;큰당>, 중문면 도순리, 519-520쪽)

본풀이 서두에 의하면, 도순한집이나 나주영산 신전집은 모두 나주 출신으
 로 한라산에 유람왔다가 만나게 된다. 도순한집이 먼저 제주에 와서 한라산
 오백장군 영실머리에 좌정하여 천리를 보다가 역시 나주에서 왔다는 신전한집
 을 만나 인사를 나눈다. 도순한집은 미식의 신이고, 나주영산 신전집인 강정한
 집은 육식의 신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식성으로 단골마을을 차지하고 형
 과 아우의 서열도 정한다. 이는 삼성신화나 <서귀포본향본풀이>에서 화살쏘기
 나 빵개질로 단골마을의 경계를 나누는 것과 상당히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

을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즉 화살쏘기나 빵개질은 사냥이나 수렵을 하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음식’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그러한 단계를 지나 생업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 일정한 음식습관이 형성되었으며, 그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제반 요소가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 즉 ‘백돌레, 백시레와 청감주’를 먹는 것이 ‘양반의 음식’이란 도순한집의 말이다. ‘미식’이 곧 ‘양반의 음식’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그것은 미식에의 긍정과 지향이다. ‘미식’이 보다 깨끗하고 우월한 식성이란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⁷³⁾ 그런데 제주도의 본향신들은 대체로 미식성이다. 이는 본향당에 차려가는 제물로 알 수 있다.

절에 갈 때도 안 먹고 도야지 고기 안 먹어 개고기 말고기도 안 먹어. ‘소고기는 산에 갈 때도 쓰고, 본향에 갈 때는 소고기도 아니 올려. 솔래기 있지. 바다에서 나는 솔래기 깨끗한 걸로 그거 하나 굽고, 우리 갈 때는 그거 하나 굽고 떡을 허던지, 동글란 돌래떡을 허던지 쌀 큰 쌀로 허던지 모물쌀 가루로 허던지 그래서. 그래서 가. 쓸 가지고 제빗 쓸을 뽑을려 허며는. 그 이 사람이 좋다 굶다, 식구가 좋다 굶다 허지 아니허야. 그래서 오늘 상 영 받지 아니허냐, 그런 거 쌀도 아정가고 계란 바닷피기 솔래기 피솔로 밥을 행 가든지 떡을 헤가든지 그렇게 해서 가.⁷⁴⁾

(그러면 상은 뭘 차려요) 떡, 밥. 떡헨 사람은 떡 해 놓고 밥 헨 사람은 밥 벌리고. 자기 헨 거대로 그거대로 그냥 올려. 해나든 말든 냉중엔 내병 버그러 다줘.⁷⁵⁾

73) 도순한집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양반음식이라고 하자 강정환집이 상을 받을때 자기도 불러 주기를 바라는 대목은 양반음식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 여기까지는 신들의 대화로 나오고 다음엔 심방이 이렇게 상 받을 때 서로를 칭했다고 구술하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이 같은 경우에는 식성 갈등이 심각하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고, 구전하면서 심방이 변이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4) 한희화(여, 79세) 제보. (2006.8.1).

75) 양정순심방(여, 74세) 제보.

성산면 신앙본향에 다니는 어느 단골과 신앙리 큰심방의 이야기다. 이 단골은 본향에 갈 때, 돼지고기 말고기 개고기 등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는다. 제물은 바다에서 나는 깨끗한 솔래기(옥돔) 구운 것에 쌀밥이나 쌀이나 메밀로 만든 돌래떡, 그리고 삶은 계란과 제비쌀을 가져간다. 이 제물은 깨끗한 것이고, 굶지 않은 것이며, 이 단골이 가는 본향한집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이 단골이 오래전부터 그 집단속에서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다. 심방 역시 단골들이 준비하는 떡과 밥이 신의 음식이며, 단골의 음식임을 말한다. 결국 음식의 문제는 사실, 음식 이외의 더 많은 의미들을 함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본풀이에서 신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물음’은 결국은 존재의 방식 또는 삶의 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음식’이라고 하는, 늘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단어’로 치환했기에 그 의미심장함이 숨어버린 건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사회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취한 음식은 우리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지극히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방법’으로 틀지워진 것이기에 음식습관이나 식성을 개인적인 성향이라 돌릴 수 없다. 특히 그것이 신화에 반영되어 음식을 둘러싼 갈등 즉, 특정 음식에 대한 금기로서 작용해 신들이 축출당하거나 과국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혹은 치열하고도 절박한 삶의 문제를 묻는 것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지역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기피하는 습관의 분류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나 문화의 문제⁷⁶⁾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식성 갈등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가고자 한다.

76) 캐롤 M. 코니한(Carole M Counihan)저·김정희역,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2004, 29쪽.

Ⅲ. 당신본풀이에 드러난 식성 갈등의 양상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기 전에 신들이 동거의 조건으로 식성을 확인하고, 식성이 같아 갈등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의 여신은, 육식의 남신과 식성 갈등을 일으키는 미식의 여신과 달리, 그 식성이 육식성이며 또한 토착신이어서 주목된다.

명동소천국 백조할마님 다섯찾아들 갯마리 명동소천국으로 좌정하고
지달피(두더지) 알통에 산달피 옷통에 무우나무 잘리(흑산호나무 칼자루)에 주
석이 단개에 반동개(반토막)칼을 둘러차고 관사농(밥사냥)을 나가서 굴미굴산
노주방산 올라사 노리 사슴 대강늑 소강늑 맞추서 혈을 빠져 자시고 교련 앞
으로 내려오고 안돌오름 밧돌오름 내려산다 손당머리 내려사고 굴레왓 뺨디
내려사 돈오름테레 상하연 보니 돈오름 상곡지로 우념소리가 나고 ‘필야곡
절허다’ 오름 옆으로 쌀쌀 바란 올라가서 총을 쟁약하고 들으시니 인간소리가
떨림이 없는고. “구신이나, 생인이나?” 물을시니 “오설령이 따냄애기 조막손이
단단춘이가 됩니다” 들어가보니 인간이 분명하고나. “옷설령이 따냄애기면 무
슨 음식을 먹느냐?” “은설(寒血)과 더운설(溫血)을 먹음네다. 녹미늑죽(鹿尾鹿
血)을 먹음네다.” “어찌해서 여기 오랐느냐?” “아방눈에 불효가 되고 어멍눈에
는 시찌가 나서 죽으라고 던져부니 여기를 오랐내다.” “십오세 전이나 십오세
후냐?” “십오세로소이다.” “나과 같이 가자.” 같이 들안 오다가 비지당콧의 당
허니 노리 사슴 맞춰 은설을 받아먹이고 달았노니 정송이빌레 송씨할망은 호
년호첩하고 오라시니 노렴이 당해여 부부간이 소천국과 갈리시고 오설령이 따
냄애기와 살림살이를 해여 송씨할마님은 노렴을 풀어사지 아니하니 신이성방
들아다가 송씨할마님 노렴을 풀기 위해서 천번 기도를 하고 만번 축원을 해여
사과를 드리고 축원허니 송씨할마님 노렴을 풀려 정송이빌레로 들어사 가는
선(船)도 찾일허고 정광선은 최곽선 개하르방 개할망 돈지서낭을 찾아허고 명
동소천 고비급상은 옷명동이 좌정해여 대강늑 소강늑 대똥 소똥 맞추다가 은
설을 받아 맥이며 오씨안당 오씨백당 단단춘이 조막손이하고 부부간을 무어
살림살이를 하옵대다.(<평대본향>, 구좌면 평대리)⁷⁷⁾

7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218-219쪽. 이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이나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 본풀이에 등장하는 명동소천국은 구좌면 평대리 갖머리에 좌정한 신인데, 밤에 사냥을 나가서 오설령의 딸을 만나 식성과 나이를 확인한 후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다. 명동소천국의 부인 송씨할망은 첩을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서 노여움을 풀지 않다가 단골들이 기도하고 축원하자 정송이빌레로 들어서 선박을 차지한다. 명동소천국은 웃멍동에 좌정해서 각록 산돼지 등을 잡아서 오씨안당 단단춘이 조막손이와 부부가 되어 살림살이를 한다. 처첩의 갈등문제는 논외로 하고 명동소천국과 오설령의 딸의 관계만 주목하면, 명동소천국은 사냥꾼이고, 각록이나 대뚝 등의 날피를 먹는다. 오설령의 딸은 날고기, 날피 등을 먹는 토착신으로, 소천국과 식성이 똑같아 이들은 부부가 되어 함께 좌정한다. 결국 식성이란 신들이 동거하거나 혼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이 본풀이는 여신과 남신이 둘 다 ‘날피, 날고기’를 먹어 식성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 토착신, 수렵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1. 미식(米食)⁷⁸⁾의 여신과 육식(肉食)의 남신 사이의 갈등

1) 날고기를 둘러싼 갈등

생식은 ‘음식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음’ 또는 ‘그런 음식’을 뜻한다. 어느 한 집단이 음식을 날것으로 먹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그 문화의 특징을 상징하는 코드일 것이다. 음식을 통해 중재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대립-예를 들어 날것과 익혀진 것, 자연과 문화, 혹은 인간과 동물-은 인간 사고의 보편적 경향을 나타낸다. 제주도 당신본풀이를 보면 ‘날내, 날핏내’가 나서 부정하다고 하며 좌정처를 옮기는 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날고기나 날피 등을 먹는 어떤 집단과 이와는 다른 식습관을 가진 집단의 접촉과 갈등

78) 제주도에서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2%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제주읍에 산도(山稻)가 조금 있을 뿐 벼는 없었다. 쌀은 호남 등지에서 무역을 통해 얻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신에게 올린 제물의 기본이 백메, 백돌래였다. 쌀은 귀할 뿐더러 농경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도 육식을 하지 않는 맑은 신을 미식신이라 지칭해 온 선행 연구를 따르기로 한다.

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먼저 해당 본풀이를 보자.

옥황상제 서녀국 말즈딸 애기 금시상 귀양정벨 내려오랴더니 웅성궁성에 좌정흐였더니 “내왓당 언관도서 호첩으로 들라”흐여 중매를 오니, 그덜 듯이 흐다가 “날뿔내 놀낭내 마치기 싹프다”고 해서, 남문통 천년 오른 금폭낭알로 석상 좋고 좌정홀만 흐니 글로 오라 좌정흐였으니, 짐씨 영감 어림 씨고 트림 썬 영감안티 밤이 피몽서몽을 드리더니, “수다 많흐 백성덜 나를 좇양오랴건 일로 보내여 주십서” 흐니, 각시당 한집 뒤에 삼천 백매 일만 초깃발에 짐씨 영감님도 상반읍서.(<각시당③>, 제주시 삼도동, 321쪽)

위 본풀이의 옥황상제 말즈딸은 이 세상으로 귀양을 와서 웅성궁성에 좌정했는데, 내왓당 언관도서가 호첩으로 들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다가, ‘날뿔내 놀낭내’를 말기 싫어서 ‘남문통 천년 된 금팽나무’로 좌정하였다. ‘날뿔내, 놀낭내’는 짐승을 잡았을 때 나는 피냄새와 비린내를 말한다. 그렇다면 내왓당 언관도서는 육식을 하는데 날것으로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시당 본풀이의 다른 이본은 옥황상제 말즈딸이 언관도서의 이러한 ‘날고기’를 먹는 습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늘옥황 말즈딸 애기가 귀양을 오랴다가 웅성궁성에 좌정하여, “부정하다”고, 그 단꺽 즈손에 아침 개동녘 붉아갈 때에 “나를 생각흐염거든 나 뒤를 딱라라”흐연 글씨후젠 각시당 동산에 올라오라 든 즈손을 그늘와줍네다(<각시당④>, 제주시 상도동, 322쪽)

위에서 알 수 있듯 말즈딸 애기는 ‘날뿔내 놀낭내’를 ‘부정하다’고 여긴다. ‘날뿔내 놀낭내’는 왜 부정한가. 그것은 말즈딸 애기가 어떤 신격인지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옥황상제 말즈딸이 부모 명영 거역흐시와 궁예신예를 물밥을 아니주어 궁예신예가 줄여 죽으니 상제가 명영흐시와 딸을 “인간으로 나가라”흐시니 “멀리 가라 송낙 씨고 장삼 입고 벽팔염줄 목에 걸꼭” 인간에 느려와 삼내 나목골 청대 그대왓드로 좌정하시고 상단골에 꿈에 선

몽드려 불도로 점지하시다가 “부정하고 부정하니 나는 남문 밖 대동산 만년폭낭알로 좌정하겠다”하여 선몽하니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 불도로 위하시는 한집입네다.(〈각시당①〉, 제주시 삼도동, 321쪽)

위 본풀이에 의하면, 옥황상제 말쭙딸이 궁녀선녀를 굶겨 그 별로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옥황상제가 ‘송낙 쓰고 장삼 입고 백팔염주를 걸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려와서는 불도로 좌정해서 단골 들도 불도로 위하는 한집이다. 즉 옥황상제 말쭙딸은 중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기에 동물을 잡을 때 나는 ‘늘핏내 늘낭내’를 부정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단골들은 ‘백매, 백돌래, 늦기당산메(늦사발에 쌀을 넣고 찌낸 밥) 청감쥐, 계알안주’로 각시당을 위한다. 그러나 모든 각편에 있어, 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도’의 옷이 이 옥황상제 말쭙딸에게 덧입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제주의 무속이 불교와 잘 융합할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신들의 미식성과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날내’를 부정하게 여기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날것’과 대별되는, 다른 식습관에 있다⁷⁹⁾고 생각된다. 제주시 용강동 <용강분향;괘당한집>에선 옥황상제 말쭙딸이 타작질에 반해 마을 하천가 굴에 좌정하자, 산신백관이 부부가 되려고 왔다가 ‘고기를 날로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서편에 좌정하게 되는 이야기다.

웃무드내 좌정하신 괘당 한집님은 하늘 옥황 옥황상제 말쭙따님 애기가 귀양정배를 느려 올 때에 건지동산엘 와 앓아 천리를 보니 인간이 열두 시만국 벌이 농작(農作) 태작국(타작질)을 보니 반하여 아방국에 올라가서 “인간이 느려가서 열두 시만국 저울려 얻어 먹겠습네다” 아방국의 분불 말안 느려오는다, 건지동산 느려사 건지하여 “예즈는 으시기 사는 법이라” 천년 오른 내창 괘 알로 좌정하여, 그 밋을 굴존이 굴쟁민 불러다가 장적 호적 무어 들이니, 난는 날 생산, 죽는 날 물구

79) 천지왕의 아들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인간 세상을 구경 왔다가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지어 놓은 것을 보고 그 중 색깔 좋은 나락 하나를 먹고는 옥황상제에게 쫓겨나 당신으로 좌정한 다(진성기, 앞의 책, 348-349쪽). 이 역시 제주인들의 농경에 대한 선호 및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적 호적 물호적 츠지하여 시니, 하로하로산이 산신백관은 산설 물설 사농 땡기다 천기지기를 집떠 보니 천년 오른 궤 아래 오란 좌정흔 상 싫어, 건지동산 오란 명암을 들이는데 야밤중에 들어가시니 “왜흔 인간 입네까”“이 밤이 무신 일로 올 필요가 싯겠느냐? 당신안티 흔 말씀 여 쥬와 불 말이 싯다. 나도 홀로 싯노라” 부배간을 무어. “뵈을 잡습네 까?” “밥도 장군이요, 술도 장군이요, 석석 양에 석석 간내 서운 설 단 설 진홍염 태디(태두) 별집(허과)을 좋아흫네다.” “서편으로 좌접흔 싯 서.” 올래 삼천백매 일만 초깃발 불려오던 신당 한집.⁸⁰⁾

<용강분향>에서 말쭈뜰 아기는 인간이 농사짓는 것, 특히 타작을 하는 것을 보고 반한다. 벼를 타작하는 수확의 풍요로운 장면을 보고 반한 것이다. ‘천년 오른 내창 궤’는 하천이 있는 굴 아래를 뜻하는 것으로 농사에 필수적인 ‘물’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 좌정하여 호적을 차지했으니, 결국 말쭈뜰 아기는 토주관으로서 이 마을사람들의 생업인 농사를 돌봐주는 신직을 수행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한라산의 산신백관이 사냥 다니다가 천기를 짚고는 말쭈뜰 아기를 찾아와 부부가 되기를 청한다. 그런 산신백관에게 말쭈뜰 아기는 무엇을 먹는지를 묻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활동’으로 ‘음식습관은 의미전달을 위한 주요영역이다’⁸¹⁾. 따라서 함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조건이 ‘무엇을 먹는가’이므로 이를 묻는 것이다.⁸²⁾ 산신백관이 따뜻한 간과 피, 콩팥과 허파를 좋아한다고 하니 말쭈뜰 아기는 우월한 위치에서 산신백관을 서편에 좌정케 한다. 서편에 좌정케 하는 것은 함께 좌정하지 않고, 하위격의 위치에 따로 좌정케 하는 것이다.⁸³⁾ 이는 캐롤 코니한(Carole M. Counihan)이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특징을 형성하고 남과 구별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80) 진성기, 앞의 책, 341쪽.

81) 코니한, 52쪽.

82) 프로이트에 따르면 “누군가와 먹고 마시는 것은 사회적 공동체의 상징이며 확인이기도 한 동시에 상호의무 수락의 상징이며 확인이기도 하다. 코니한, 위의 책 42쪽에서 재인용.

83) 육식이나 돈육식의 신들은 ‘서편, 바람알, 해안, 지경밖’으로 쫓겨나는데, 이 때 ‘서편, 바람알, 해안, 지경밖’은 모두 미식의 신들보다 하위격에 자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말쭙똥 아기가 산신백관의 식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하나는 산신백관이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냥’이란 생활방식은 농작의 경우에 비해 안전하게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농경이라고 하는, 보다 더 문화화된 상태에서 자연과 우연에 더 많이 기대는 삶의 방식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티프를 가진 본풀이로는 <영평본향;다락콧신대기므르>와 <아라본향> 두 편이 더 있다.

이 두 본풀이는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서사구조가 단순하며 서로 유사하다. 또 여신의 이름도 ‘은기선승 늦기선승’으로 같다. 이들 본풀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신백관 산신대왕/ 강남목골 미양산산/ 녀은드르 대섬드르/ 솟핏골서 솟아난/은기선승 늦기선승/ 애기 마을을 거느리고 앓았으니/ 산신백관 산신대왕이/ 명암을 드리니/ “이런 언관도서같은 양반이/우리같은 어리고 미옥한 예생에게 미신 명암입네까?”/“아 그런 말씀 마십서.”/하를 이틀 흐는게 알음이 되어/ “뿔을 잡습네까?”/ 속습하연/그영흐여도/얼굴이 축지여가니/“먹구정한 음식을/못먹어 그리 합네까?”/“예 술도 장군 피기도 장군이요”/“게멘 우리 맑은 도광 한디 못샅네다/바람알로 좌정하십서”/그영 하연 사는디/흐를날은/상단궐 꿈에 선몽하야/“산신을 잘 위로하민 자손가지네 펜고하리라”/하연/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이 위로하고, 올래 굿문으로 삼천백매에 일만초깃발 불러오는 신당한집.(<영평본향;다락콧신대기므르>, 제주시 영평동, 343-344쪽)

간드락에 좌정흐 큰도안전은 손당 여닭체아들롭서 삼천백매 초깃발을 불러 석석 양내 석석 간내 녹미녹설 더운설(血) 단설을 좋아해서 하로하로산이 올라가서 산설 물설 붉아 느려오다 보니, 은기선승 늦기선승 부인네가 앓았으니 명암을 드리니 “뿔을 잡습네까?” “사농놀이 땡기명 더운설(따뜻한 피)도 좋고 단설(맛있는 피)도 좋고 진홍염 태디 벌집 소지도 장군이요 술도 장군이요.” “우리 맑은 도광 따로 갈라상 바람알로 좌정하십서”그영하연 은기선승 늦기선승 애기마을은 바람우로 좌정하여 오던 신당한집.(<아라본향>, 제주시 아라동, 344쪽)

앞에서 살펴본 각시당, 용강분향과 함께 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미식의 여신과 생육식의 남신의 갈등

당이름	갈등의 주체		만남의 계기	먼저 좌정한 신	갈등의 계기	결과	신격의 우위
	여신	남신					
영평분향 다락콧신 대기므르	은기선승 늦기선승 (미식)	산신대왕 산신백관 (육식)	산신백관의 인사 및 결연시도	은기선승 (애기마을을 다스림)	남신의 육식성	산신백관이 바람알로 좌정	미식의 여신 (맑은도)
아라분향	큰도안전(은기 선승늦기선승) (미식)	손당여덟째아들 하로하로산 (생육식)	하로하로산 의 인사 및 결연시도	은기선승 늦기선승	남신의 생육식성	은기선승 바람우로 좌정함	미식의 여신
용강분향	옥황상제 말жат딸	하로하로 산신백관 (생육식)	산신백관의 결연요청	큰도부인	남신의 생육식성	산신백관을 서편에 좌정케 함	미식의 여신
각시당 ⁸⁴⁾	옥황상제 말жат딸	내왓당 연관도서 (생육식) ⁸⁵⁾	연관도서의 후첩 요청	내왓당연관 도서가 이웃마을에 좌정	날핏내의 부정함	옥황상제 말жат딸의 거부	미식의 여신

위 본풀이들은 하로하로산이나 송당계의 남신이 이미 마을에 좌정한 부인이나 아가씨를 보고, ‘명암을 드리며’ 함께 좌정하려 하지만 식성갈등으로 인해 결국 따로 좌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들은 모두 미식의 신인데, 옥황상제 말жат딸이 귀양왔거나(용강분향, 각시당), 큰도안전이 ‘강남목골 미양산산 넘은 드르 대섬머들 솟핏골서 솟아’나서 좌정한 경우로 이주신이라 할 수 있다. <다락콧신대기므르>의 경우 은기선승늦기선승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명(神名)이 <아라분향>과 같으므로 이주신일 가능성이 있다. 남신들은 <아라분향>의 경우에만 손당 여덟째 아들이고 모두

84) <각시당>의 옥황상제 말жат딸은 <내왓당> 연관도서의 후첩이 되려다 ‘날핏내’가 나서 그만 둔 것으로, 위의 세 경우와 약간 다르게 두 신의 만남과 갈등이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85) <내왓당> 연관도서의 경우 <아라분향>이나 <용강분향>처럼 더운 피나 시원한 간을 먹는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날핏내가 난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의 식성이 생육식성임을 알 수 있다.

한라산신 계열인 산신백관으로 토착신이다. 이들 남신의 식성은 ‘밥도 장군이요, 술도 장군이요, 석석 양에 석석 간내 진홍염 태디 벌집을 좋아하거나’(아라본향, 용강본향), ‘날핏내 늘낭내’(각시당)가 나는 음식, 혹은 ‘술도 장군, 고기도 장군’(영평본향)으로 모두 육식성이다. 그리고 ‘따뜻한 간, 따뜻한 피, 허파, 태두’등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먹는 음식은 날고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신에게 올리는 고기는 익히지 않은 날것이어야 한다⁸⁶⁾는 사실과 결부된다. 또한 ‘날것’을 먹는 한라산신은, 사냥 수렵을 하던 선주민들의 식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림읍 금악리 <금악본향>⁸⁷⁾에서 사냥꾼 정좌수가 임종을 맞으며 딸에게 각록의 생간 핏감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냥을 하던 선주민들의 식성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한라산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미식의 여신과 육식, 그것도 생육식을 하는 남신간은 서로 화해하지 않고 따로 좌정함으로써 식성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는데, 단골의 반응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예 술도 장군 피기도 장군이요”/“게멘 우리 맑은 도광 한디 못살네
다/바람알로 좌정하십서”/그영 하연 사는디/흐를날은/상단궐 꿈에 선몽
하야/“산신을 잘 위로하민 자손가지네 췌고하리라”/하연/상단궐 중단궐
하단궐이 위로하고,

앞의 영평본향인 <다락궐신대기마르> 본풀이의 뒷부분에 나오는 위 대목은 은기선승과 따로 좌정한 산신이 상단궐의 꿈에 나타나 자기를 잘 모셔야 자손네가 편안하다고 현몽하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 육식의 신을 모신다는 것이다. 신들끼리는 갈등하는데, 단골과 신의 관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⁸⁾

86) 산신제에는 도, 량, 서, 직의 네가지 메밥에 네 가지 채소, 그 밖에 돼지머리, 쇠고기 또는 간, 아니면 해어로 생선 따위를 올리게 되나 이 때에 올리는 고기 따위는 반드시 익히지 않은 날고기 그대로이어야 한다(진성기,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신성출판사, 1997, 58쪽).

87) 문무병, 앞의 논문, 59쪽 참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라산신 계열의 신들은 한라산이 주거지였다면, 미식의 여신들은 농사를 주 생업으로 했던 중산간 마을을 지리적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여신들이 바다나 잠수를 차지했다는 표현이 없으며, 농사에 반하여 인간 세상에서 머물게 된 것으로 볼 때, 농업을 생업으로 한 마을사람들이 섬기던 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바람우		바람알
신의 성	여신	↔	남신
신의 식성	미식	↔	생육식
출신	이주신	↔	토착신
문화적 배경	농경기반	↔	수렵 기반
지리적 배경	중산간	↔	산간

이 도식은 이주신이며 농경문화를 가져온 여신과, 토착신이며 사냥하던 남신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삼성신화의 기본적인 모티프를 이 당신본풀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⁸⁹⁾ 또 후술할 미식의 여신인 백주또와 농경문화에 발을 딛기는 했으나 그의 본질적인 식성인 육식성으로 갈등을 빚게 되는 소천국이 등장하는 송당계 본풀이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⁹⁰⁾고 여겨진다. 왜냐

88) 돼지고기는 굿 할 때도 안 쓰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돼지고기는 못 올려. 돼지고기는 이 산에 가도, 이 보살들은 돼지고기 등어리 칼에 꽂아놓고 불공하거든. 기도드리는데. 우리는 안 해. 산에 특히나 안 해. 산신백환이라해서, 산신백환이라해서 산신신령이 그만큼 좀 깨끗하다는 거지(아, 산신이 깨끗해서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는 얘기죠?). 양정순 세화리 큰심방(여, 74세).

89) 물론 삼성신화는 토착 남신과 이주 여신의 결합과정에 갈등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90) 종전의 연구는 대체로 송당계본풀이를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송당계본풀이의 세력권과 관계있다고 판단된다. 고대경에 의하면 구좌읍 송당리 수호신인 금백조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여 가장 많은 마을의 수호신이 된다. 흔히 ‘금씨 하르방’이라는 수호신들은 대부분 금백조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제주시 애월읍 하加里, 광령리 등의 신화를 보면 금백조의 자손인 금씨 하르방이 宋씨할망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송씨 할망이 먼저 자리를 잡고 김씨하르방이 뒤늦게 좌정한다. 이로 보아 송당계 계열의 신들의 등장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형상 목사 등 조선 시대 관리들이 신당을 탄압할 때 중요한 당으로 취급받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고대경, 『신들의 고향』, 도

하면, 이들 당신본풀이에서 한라산신들은 생육식성으로 대별되는 그 본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식의 여신과 결연하는 것 자체에 실패하나 소천국은 일단 농경문화에 동의하며 밭을 갈다가 농우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또 전자가 날 것의 고기를 그대로 먹는 반면, 소천국은 사냥하던 시절에는 날 것 채로 먹었다가, 밭을 가는 시기에 와서는 소를 ‘새비냥게 불에 구워’ 잡아먹기 때문이다. 같은 산신격이어도 날고기나 날피를 먹는 단계와 익혀서 먹는 단계는 그 문화나 생업단계가 확연히 다름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우를 둘러싼 소천국과 백주또의 갈등이 그려진 <송당본풀이>와 달리, <세화본향>에는 ‘소뻘과 말뻘’로 가득찬 곳에서 사는 명동소천국과 백주또, 그리고 육식을 하는 금상과 천자또의 갈등이 그려져 있어, 이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육식을 둘러싼 갈등

구좌면 세화리의 <세화본향>에서는 천자또, 백주뉘, 금상뉘의 본풀이가 별도로 존재한다.⁹¹⁾ 이는 이들 본풀이가 원래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며, 나중에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⁹²⁾ <세화본향>에 드러난 <천자또>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 ① 천제뉘는 한로영산 지질게 백록담에서 솟아나다.
- ② 천자문과 동몽선습에 통달하다.

서출판 증명, 1997, 229쪽)

91) 구좌면 세화리 웃동네 오인숙 큰심방(81세)을 면담하고(2006.8.2) 세화본향본풀이를 채록하였다(부록참조). 기존의 채록집에는 천자또, 백주또, 금상뉘의 본풀이를 따로 구별하여 기록하였으나, 심방이 구술해줄 때는 개별 본풀이가 아니라 전체가 잘 짜여진 하나의 신화로 들었다.

92) 실제 전승현장에서 신앙의 변화에 따라 개별신의 본풀이가 결합되기도 하고, 이미 결합된 신의 본풀이가 분리되기도 한다면서, 개별적인 신에 대한 내력담이 전승의 기본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09쪽.

- ③ 백돌레나 백시래 청감주를 먹는다.
- ④ 금붓 금책 금배릿돌로 옥황문서 이승문서를 다룬다.
- ⑤ 조화를 부려 농사를 좋아지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자또는 ‘천자문, 동몽선습’에 통달하며, ‘금붓, 금책, 금배릿돌’로 문서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백돌레나 백시래’를 먹는 미식신이며, 자기를 모시게 하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조화를 부리며, 농업농사도 좋아지게 하고 해상농업도 좋아지게 하는 도주관이다.

천자님이 혈기를 짚어 상서화리 손드랑마를에 좌정한데 아무도 ‘떡으라 씨라’하는 자가 었어 ‘청폰체를 그져드려/삼시번을 푸꼰더니/호런 강풍이 일어나/해상으론 태산같은/누가 일어나고/드르으론 온갖 푸실새가/ 다 좇아 죽게 될 때에/ 상서화리 동넛 사람들이/ 농업농스에 대단히/걱정이 될 때에/질 구석마다 앓아 의논 공논’하여 제를 드리니 ‘호런 강풍이 잔잔해지고/해상영업도 좋아지고/농업농스도 좋아지니/일로 좌정한 천즈님이우다

<세화본향>에 드러난 <백주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백주또는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솟아났다.
- ② 부모에게 미움을 사서 용왕국에 가 열두부술을 받는다.
- ③ 제주에 오는 길에 삼천선비에게 영험을 보인다.
- ④ 허정승따님에게 백돌레, 백시리, 청감주, 개알안주로 상을 받는다.
- ⑤ 소뻘과 말뻘로 가득찬 명동소천국의 집을 보고 욕을 한다.
- ⑥ 명동소천국이 잡은 손목을 깎아버린다.⁹³⁾
- ⑦ 천제할으방에게로 찾아온다.

이 본풀이에서는 백주또가 천제할으방을 찾아 오는 길에 ‘지달피 알통에 산

93) 구좌면 세화리 웃동네 오인숙 큰심방에 의하면 ⑥의 의미는 손목의 살을 깎아내는 것이다.

달피 옷통에 무우나무 줄리에 반동개, 칼을 둘러차고 모깃돌을 당흔’ 명동소천국을 만나 천제 할으바님 있는 곳을 물어보는데, 명동소천국은 길안내를 해준다고 하고는 먼저 가서 양반차림으로 갈아입고 자기 사는 집으로 백주또를 데리고 간다. 이 때 명동소천국은 사냥꾼신이나 이본에 따라 ‘세경 땅에 밭을 가는’ 어른으로도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집이 ‘소뻘, 말뻘’로 가득한 점은 변함이 없다. 이 ‘소뻘와 말뻘’는 송당리 소로소천국과 달리, 명동소천국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테우리)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래 대목에선 백주또가 천제할으방을 찾아오다가 명동소천국을 만나 ‘쇠뻘 말뻘’로 가득한 명동소천국의 집을 보고 놀라며 천제할으방은 이런 곳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이 신의 성격이 드러난다.

‘소천국 사는 집을 당도흐니/누릿내가 탕천흐다/쇠뻘 말뻘이 이셨더라/ “쇠도독놈 사는 디로구나” 하여 나오젠흐니/치맷각을 붙잡는고/ 털뜨리고 나오니/ 홀목이를 비여잡는고. 토시동이 전전마기를/내여놓고/ 홀목이를 기차두고/천제 할으바님신디 오라서⁹⁴⁾

한편 자기를 찾아온 백주또에게 천자또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어본다. 백주또가 ‘백돌래, 청감주, 계알안주, 닭내장’을 먹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함께 좌정할 만하다고 말한다. 이는 함께 좌정하기 위해서는 식성이 최우선 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백주에게 묻기를 “느네 미신 음식을 먹느니?”/“쌀로 빈 정전피 먹읍네다/ 백돌래 먹읍네다/청감쥐에 계알안줄 먹읍네다/ 독은 잡으민/거죽은 술내 납네다/안전지로 먹읍네다.”/“훈공 좌정홀만 흐다.” 좌정하여 사노랭⁹⁵⁾

신들이 함께 좌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그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한 집단의

94) 진성기, 앞의 책, 388쪽.

95) 진성기, 앞의 책, 394-396쪽.

전통과 음식문화가 규정하는 것⁹⁶⁾으로, 그 집단의 정체성 혹은 준거의 틀로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화분향>의 <금상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상은 아양동축산 으나장따서 솟아났다.
- ② 날로 장수 달로 벼슬을 받는다.
- ③ 일곱 살에 대병군사를 거느리고 머리 열둘 돋은 장수목을 빈다.
- ④ 역적으로 몰려 제주로 천상배필인 백주또를 찾아온다.
- ⑤ 백주와 부부간 언약을 하나 식성이 달라 천자또에게 거부당한다.
- ⑥ 자신의 식성을 포기하고 백주와 결혼한다.
- ⑦ 얼굴과 몸이 축나자 백주와 천자또에게 이전 음식을 허락받는다.
- ⑧ 금상은 dot제를 받아먹고 재계 후 백주또를 찾아간다.

식성갈등이 나타난 ⑤~⑧부분의 본풀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천자를 만난 후 “백주님이 천상배필 ㄱ음 당호여지여 백줄 찾
안 오랴수다/ 할오바님안티 허락받져 오랴네다/천제 할오바님 말씀하
되/ “무신 음식 먹읍네까”/ “술도 장군 밥도 장군 안주 장군, 제육안주
는 전머리로 먹읍네다.” 일르시니, “투 더럽다. 나고갑서/우린 인간 손
으로 만들민/ 인간내 나곡/ 칼로 비민 췌내 나곡/ 춤썰로 빈 점정피나/
청감쥐나 개얏안주나, 득을 잡으면/안전지나 먹읍네다” 호니/ 금상이
백주님만한 배필을 못내 무으랴 하며 나오다가 백주님의 설득에 다시
돌아가 “전이 먹던 술광 안주를 춤으리다”일르시니 천제님이 말씀호되/
“막무간아니로다” 허락하니/ 백주님광 부부간 무어/ 혼달 두들 연석달
살아가니/ 피골이 상접호는고/ 백주님이 말씀하되. “낭군님아 낭군님아,
어찌호야 전잇 얼굴 전잇 기상이 엇느니까?” “전이 먹던 술광 안주를/
춤아지니/ 피골이 상접호는니다”일르시니/ “죽음광 삶이 맞스랴” 호연

96) 개인의 입맛은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주영하, 앞의 책, 184~187쪽 참조).

상단골 새시방 새각시에 영험을 주어 ‘검은 족발 한족발/ 흰 귀 화렴을
 하여/백근글랑 채와/ 호건 대잔치 할 때/설에 자소주 탕 올리고/열두
 신 빼를 세여 올리고/내여 안칩을 세어 올려서/열두 빼에 열두 설반을
 호고/억만병 대병 군스라/신의 나신/열두 반을 놓고/대잔치 할때 받아
 서/ 백주님께로 돌아갈 땐/꽃죽 쑤어/목가시고 신가시고/청감주로는 목
 육을 하고/즈소주로는 박두 영집하여/백주님안티 돌아가고/ 알당으로
 들어샀단./삼일후에는 혼공일공하여/부부간이 살림살이를 흥웁데다⁹⁷⁾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상은 대단한 장수로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이 영웅성으로 본국에서 쫓겨난 금상은 천상배필인 백주또를 찾아 제주에 온다.⁹⁸⁾ 그런데 백주또와의 결혼을 허락받고자 하는 금상에게, 천자또는 ‘무슨 음식’을 먹는지 물어본다. 금상이 장수이거나 다른 지역 출신이거나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금상이 ‘술도 장군, 밥도 장군, 괴기도 장군’이라 대답하자 천자또는 ‘더럽다’며 나가라고 한다.⁹⁹⁾ 결국 금상은 자신의 식성을 포기하기로 하고 백주와 결혼하나 육식을 포기하여 점점 피골이 상접해진다. 이에 대해 ‘삶과 죽음이 맞서라’는 천자또와 백주의 관용으로 이전대로 육식을 먹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식성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대째 무업을 해온 구좌면 세화리 큰심방에게 들은 바로는 백주와 금상은 부부신이 아니며, 본풀이 내에서 그리고 실제 의례에서 백주또, 천자또와 금상은 ‘상’을 함께 받지 않고 시차적으로 받음으로써 식성에 따른 구별을 분명히 하고 한 당에 함께 좌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백주님이 “어떻힌 금상한집은 죽을상이 됴수겜?”
 “피골이 상식이 되어 죽을 사경이 됴수겜난?”
 “우린 먹던 음식을 못 먹으난 피골이 상식 되난.”

97) 진성기, 앞의 책, 393쪽.

98) 구좌면 세화리 오인숙 큰심방에게 들은 바로는 금상은 본국에서 그를 이길 장수신이 없어 역적으로 몰려 제주로 피난 왔을 올 뿐이다. 오심방은 금상과 백주또는 부부신이 아니라며, 식성이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부록> 필자 채록본 참고.

99) 천자또가 육식을 ‘더럽다’하는 것은 육식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돼지고기금기를 파기 하는 여신도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진다.

백주님 이제 천자할으방님한테 골아사

“금상한집은 먹던 음식을 못 먹으면 죽을 사경이 됩수다”

“계면 우리가 상을 받아 도라상 뒤에 금상한집만 떨어여땅,

이제 먹던 음식을 먹으랜.”

(우리 세화리는 계난 우리도 피기 잘 못 먹지. 못 먹어 못 먹는 게 아니고 불공을 댕기려고 못 먹지. 열에 이틀 돌아오정 하면 벌써 이틀날만 이틀들부터는 그냥 피기를 못 먹어).

(중략)

허난 이디 해두 다 청허기는 다 곳찌 청해여 잉 다 고찌 청해

불공은 다 해뇌잉 이제 잔 집혀 (잔 집히는 거 아라져? 잔 올리는 거)

잔 집혀그넹 이젠 “조상 읍서읍서” 조상 이젠 계난 잔 집혀멍,

이제 먹음 갑생 하지 갑생 하연. 그 맑은 조상을 몬딱 보내동

도새기나 잡앙 대접할 적에는 여 금상한집만 특별 안집서.

잔 집혀멍 “다른 조상은 다 갑사 갑사당 금상한집만 뒤떨어집서.

이제 자손논들 아무 자손 남도리도 네발공사 올리쿠다.

백근근량 준주위 초흐레 열두살반 호곤 대잔치 왜계할류 올리코다”¹⁰⁰⁾

위 채록본에 따르면, 금상이 전에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을 사경이 되었다는 말에, 천자또는 ‘우리만 먼저 상을 받고, 금상한집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먹던 음식을 먹으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실제 굿을 할 때도 처음에 신을 다 함께 청하더라도 맑은 조상에게 먼저 상을 올리고, 맑은 조상을 모두 보낸 후 금상에게 돛제를 올린다. 이는 미식의 맑은 신은 맑은 신끼리 먼저 상을 받고, 육식의 신은 나중에 떨어져 상을 받음으로써, 서로 다른 식성은 분명히 구별되되, 식성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두 가시¹⁰¹⁾라는데, 두 가시 아니야. 어디 그렇게 그 고기 먹는 조상광 백주님이 두 가시 할 수가 있어. 어쁜 모르는 사람 말이
전 두 가시 하는데, 우리 할마임넹 우리 할마임네가 나꺼정 사대야, 사
대. 우리 증조할망에, 우리 고조할망 증조할망 당할망 나 이렇기.¹⁰²⁾

100) 세화리 큰심방 오인숙(여, 81세), 구술. 부록에 필자 채록본 참조.

101) ‘두 가시’는 부부를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102) 세화리 큰심방 오인숙(여, 81세) 제보.

필자 채록본 <세화본향>에서 백주와 금상은 부부가 되지 않는다. 사실 <세화본향>의 5개의 각편에서 백주와 금상이 부부로 설정된 경우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¹⁰³⁾ 백조또와 금상이 부부로 설정된 각편에는 금상이 역적으로 몰려 제주에 피난을 오고서는, 천상배필 백주또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이야기 전개상 자연스럽지 않다. 다른 각편이나 필자 채록본에는 제주로 피난을 와 천자할으방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개가 자연스럽다. 여하튼, 백주와 금상이 부부가 아닌 각편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식성 갈등이 대체로 남녀신, 부부신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갈등의 결과 따로 좌정하는 결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화본향>의 백주또와 금상의 개별본풀이에 나타난 갈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개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①은 <금상님> 본풀이에, 갈등②는 <백주또> 본풀이에 나온다.

	갈등 ① (금상님본)		갈등②(백주또본)	
갈등의 주체	천자또	↔ 금상	백주또	↔ 명동소천국
식성	미식	↔ 육식	미식	↔ 육식(소,말)
신격의 성	남신	↔ 남신	여신	↔ 남신
출신	토착신	↔ 이주신	이주신	↔ 남신

<금상님본>에선 천자또와 금상이 식성으로 인해 대립한다. 이것이 갈등①이다. 천자또는 피난 온 금상에게 ‘무슨 음식부터 먹는지’를 묻고는, ‘육식’이란 말에 ‘투 더럽다 나고 갑서’라며 바로 거부한다. 그러나 금상의 장수됨에 반한 백주는 금상에게 ‘말’이라도 잘 ‘하라’고 한다. 이에 금상은 자신의 이전 음식을 끊고 천자또처럼 먹겠다고 하지만 육식을 포기한 금상은 갈수록 피골이 상 접해진다. 이는 본질적으로 ‘식성’이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기호가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하는 ‘본질’적인 어떤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천자또는 금상이 ‘dotje’를 얻어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갈등의 주체인 천자또와 금상이 동성의 신인만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10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388-408쪽.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돛제를 받은 금상은 백주에게 돌아갈 때는 팻죽을 쑤어 목을 가시고 청감주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다. 육식이 부정하므로 맑은신인 천자또, 백주또와 함께 좌정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여하튼 육식성의 금상이 천자또, 백주와 함께 좌정함은 결국 생육식이든, 돈육식이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본풀이가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이 세화리가 굴인질을 경계로 두 마을로 생활권이 나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갈등②). 지금까지 갈등②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의 직접적인 계기는 명동소천국이 백주또를 겁간하려 한 것 때문이지만, 본풀이의 문맥을 따라가면 이는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의 식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명동소천국은 백주또가 마음에 들어 부부를 맺고 싶어 양반차림으로 바꾸고서는 백주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명동소천국의 집은 ‘쇠뿔과 말뿔’로 가득했다. 백주또가 이에 기겁을 하고 돌아서자, 명동소천국이 백주의 손목을 잡고, 백주또는 이를 칼로 깎아낸다. 이에 날뿔내가 나니 천자또가 노하게 된다. 결국 천자또가 세화리와 평대리를 분리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뿔과 말뿔로 가득해서 누릿내가 탕친한 명동소천국’과 이를 거부하는 백주또의 식성에 따른 갈등인 것이다.

3) 농우를 둘러싼 갈등

‘미식(米食)’의 여신과 ‘농우’를 잡아먹는 남신의 갈등에 관한 송당계 본풀이는 ‘돼지’를 둘러싼 여신과 남신의 갈등에 비해 일찍이 주목되었다.¹⁰⁴⁾ 백주또

104) 기존 연구는 식성갈등을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으로만 살폈다. 앞 절에서 보았듯, 갈등의 원인은 남신이 단순히 ‘육식’을 한 데 있지 않고, ‘날것’을 먹는 다거나 ‘농우’를 먹는 것으로 차별화됨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돼지고기 금기를 둘러싼 갈등이 ‘돼지고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금기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람에 의해 특정 음식의 섭취가 금기되거나 제한되는 것’(캐롤 코니한, 앞의 책, 52쪽)이기 때문이다. 강용권 역시 앞의 논문에서 소천국이 그냥 육식신이 아니라 ‘밭가는 소’를 잡아먹은 신이며, 이를 농경생활에 대한 심각한 거부로 해석하였다(13쪽). 필자 역시 이와 같은 견해인데, 사실 강용권의 논문을 읽은 것은 이 논문을 다 쓰고 나서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천국이 농우를 잡아먹은 점, 돼지고기를 먹는 당신의 분포에 대한 표 작성이 비슷한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와 소로소천국의 신격을 두고 식성으로 인한 부정(不淨) 때문에 흑백(黑白)의 양파(兩波)로 갈리고 있다는 견해¹⁰⁵⁾가 그것이다. 진성기의 연구에서는 ‘백주와 소천국은 제주 무속사회의 당신의 최초 창조신이며 소천국은 농우(農牛)를 잡아먹음으로써 그 혁명적인 신제도의 집약으로서 여계 중심에서 남계 중심의 군장으로 출현한 성신(聖神)’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신본풀이 안에서 살림의 분산을 요구하는 등 우위에 있는 신격이 미식신인 백주임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보다는 이 신화가 ‘제주 선민의 생활 그대로의 표현’¹⁰⁶⁾이라 보고, ‘여신이 농사를 지은 것은 여농남수렵(女農男狩獵)의 생산 경제 형태 내지 농업 경제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살림을 분산하자고 부인이 먼저 제기하고 남자가 딴 살림을 꾸려 나가리만큼 처우위적 부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유형의 신화 중 가장 오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대중본 <송당본풀이>이다.¹⁰⁷⁾ 이 자료는 2세대인 송곡성과 용왕녀의 내력담이 없이 철저하게 1세대에 관한 것으로 백주또와 소로소천국의 내력만을 풀이하고 있다.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천국과 백주님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산다
- ② 자식이 많아지자 처의 권유대로 농사를 짓기로 한다.
- ③ 삼신산 중이 소천국의 점심을 다 먹고 가버린다
- ④ 소천국은 밭 갈던 소를 잡아먹는다
- ⑤ 백주님은 소천국과 살 수 없다고 살림을 가르다
- ⑥ 백주님은 손당머리,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마르에 좌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에 전하는 <송당본향>¹⁰⁸⁾

연구는 식성 갈등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다루며, 그 문화적 의미 추론도 달리 하고 있다.

105) <백주>처럼 결백한 신을 白波로, 소천국처럼 부정한 신을 黑波로 하자면서, 白波는 주로 吉禮와 善事를 주로 하고 黑波는 凶禮와 惡事를 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성기 「巫覡과 神格의 黑白 兩波」, 『민속학논총』 2(석주선박사 고회기념), 1982, 265쪽.

106) 현용준, 앞의 책, 117쪽.

107) 강정식, 앞의 논문, 77쪽.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후 이들의 아들인 송곡성이 불효하여 석함에 담겨 용왕국에 가는 2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중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⑦ 송곡성은 소천국을 찾아가나 불효하여 석함에 담겨 바다에 띄워진다.
- ⑧ 용왕국에서 말쑥딸과 결혼한다.
- ⑨ ‘대식’으로 인해 말쑥딸과 함께 다시 강남천자국으로 쫓겨난다.
- ⑩ 강남천자국에서 세번을 막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 ⑪ 부모와 동생들을 각기 좌정케 하고 송곡성은 한라영산 브름목에 앉는다.

그러면 이 여신과 남신의 갈등양상을 살피기 전에 본풀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이 신들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보기로 한다.

소천국은 하상천자지국에서 날 적에 그는므들 존소남밭 알로서 탄생되었다.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그림질 알에서 탄생되었다. 소천국이 제주도 와 한라영산을 올랐다. 대강늑 소강늑 노리 사슴 산뿔 꿩 궁작 노리바께 눈에 보이는 게 읍섰다. 배는 고파지고 흐니 앞바른 마세기 총으로 마쳐 생식을 하여 대노리 소노리 대뿔 소뿔을 먹어 가죽옷을 입어 살아가니, 옷통은 청달피 알통은 흑달피 소록비감티 소록비보선, 출리고, 항상 제주 십삼장엿 중생을 먹고 살아

소로소천국의 모습은 사냥하며 사는 수렵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천국은 한라산에서 사슴, 노루, 산돼지, 꿩 등만이 눈에 보여 이들을 생식, 즉 날것 상태로 먹고 이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면서 살았다. 그러다 백주와 함께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나뭇잎으로 아이들을 떼어 주고’, 산쟁이질 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천국이 이를 보고 같이 살자 하여/손당으로 올라갔다/어욱밭(억새밭) 맹개남밭(청미래덩굴밭)에/어욱광 맹개냥기 탕천하니/애기들은 츠날
섰을 흐연/덕거주고/ 부인님은 애길 질루고/소천국은 산쟁이질을 하였
다/산뿔피기 궁작노리를 /잡아다가 애길 맥여 살리고

108)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408~415쪽.

그러다가 소천국과 백주할망 사이에 아이들이 더 늘자 백주는 농경을 권유한다.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광/ 배합되난/ 딸만 애길 야답을 배였다/ 이 애기를 낳아 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하되/“우리가 이 애기를 키우 쟁/흐민 산쟁이질론 못사니/농사를 집시다.”

백주가 농사를 짓자고 권유하는 것은 ‘산쟁이질’로는 많은 식구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처음 농사짓는 곳은 한라영주산 앞이며 곡식은 기장, 조, 콩과 같은 밭작물이다. 이는 수렵사회에서 초기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천국은 용잠대 용명에 용가린석 출리고/쇠는 금강산 옷학서 운철 방이/ 암쇠 솟쇠 둘을 /제주산에 보내여 주난/그 쇠를 질파서/아홉 해 만에/ 쇠도 새길 한 해에 하나씩/ 아홉을 낳 놓아/소천국대감님은/ 큰 쇠 부룻일 몰아가지고/ 한라영주산 앞이/갈만 한 밧을 갈아/ 지장씨 아홉말지기/팻씨가 아홉말지기/콩씨가 아홉말지기를 갈며는/

그런데 삼신산 중이 소천국의 점심을 다 먹고 가버려 소천국은 밭 갈던 소를 잡아먹고, 배가 덜 차서 이웃집 검은 암소 한 마리를 마저 먹어버린다. 소천국이 여기서 밭 갈던 소뿐만 아니라 다른 밭의 소까지 잡아먹은 것은 소천국의 식성이 대식일 뿐 아니라, 그의 ‘식성’의 본질이 ‘육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⁹⁾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가 ‘농우’로서 가치가 있는 ‘소’를 잡아먹었다는 데 있다.

소천국이 밭갈던 농이를 잡아/새비낭게 불살란/구워먹으난 양이 안 찼다/ 경하여도 배가 고평/감은암쇠 하나를/다시 뺏겨 먹어사 양이 찼다/쟁기를 쇠가죽으로 뒹여/뺏부기에 대연 밧을 갈암시난/백주가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와 보난, '백주할망은 후욕을 하여, 싸움이 되니/ 살럼이 분산된다/백주할마님은 부회가 나니/바름목 옷손당테레 올라산다/소

109) 권해효도 이에 대해 소천국이 ‘본질적으로 지녔던 육식성으로의 회귀’라고 했다(「제주도 무속 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96쪽).

천국대감님은 할 수 있어/알손당테레 내려산다/ (중략) 백주할망은 옷 손당서 고사리를 격그고 냥야름(나무열매)을 탕 먹으멍 살아가는디, 소천국은 백주할망광 사님을 갈릴 적이/오백장군 오백서 딸을/소첩을 삼아 살아간다.

따라서 백주가 와서 보고는 화를 내고 살림분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 아니라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농우’를 잡아먹은 소천국과 자신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음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¹⁰⁾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백주또는 분명히 농경신의 모습을, 소천국은 수렵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농우를 잡아먹은 소천국보다 미식의 여신 백주가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렵문화에 대한 농경문화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갈등의 주체	백주또	↔	소천국
식성	미식	↔	육식(농우)
신격의 성	여신	↔	남신
신의 특징	농경 기반	↔	수렵 기반
출신	강남천자국 혹은 서울	↔	토착신
갈등결과	옷손당 좌정	↔	알손당 좌정
신격의 지위	위	↔	아래

여기서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농우를 잡아먹은 소천국이 농우 없이 혼자 받을 갈고 있었다는 점과 소천국과 갈라선 이후에 백주가 나무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전자는 농우만큼의 힘을 소천국이 가졌음을 보여주고, 후자는 백주또 혼자서는 노동력이 필요한 농사일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110) 이본에 따라 소천국이 소를 잡아먹은 것에 대해 백주가 ‘내 농애 내가 뜯려 먹기는 정한 스실이건만, 남의 농애까지 뜯려 먹어시니, 물 도둑놈 아니냐, 쇠 도둑놈 아니냐’ 며 나무라는 대목이 나온다. 현용준은 남신이 밭 갈다가 남의 소까지 무심코 잡아먹고 부인이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필시 사유제가 움터가는 단계일 것이라고 보았다(앞의 책, 117쪽). 권혜효는 이에 대해 실상은 그의 육식성에 대한 불만일 뿐이라고 보았다(앞의 논문, 97쪽).

그런데 이 신화의 내용처럼 실제 웃송당과 알송당은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마을 형성의 과정면에서 대립, 갈등해 왔다고 한다.¹¹¹⁾ 즉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한 산간부락인 이 마을에는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이 있는데, 서쪽 위에 자리한 웃송당과 동쪽 아래에 위치한 알송당은 각기 생수(生水)와 봉천수(奉天水), 동성집단과 혼성집단, 신앙 대상(백주또와 소천국)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 마을간에 실재적으로 상존해 온 갈등, 대립의 양상이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것이다.¹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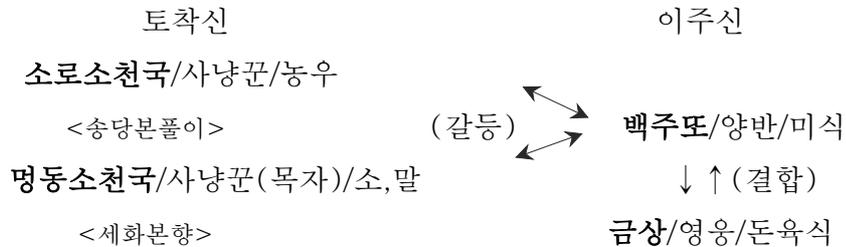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송당의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갈등은 살림분산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고, 앞서 <세화본향>의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의 갈등 역시 한 마을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 <세화본향>의 ‘백주와 금상’은 함께 좌정한다는 사실이다.¹¹³⁾ 일단 명동소천국, 소로소천국과 금상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상이 영웅적인 신임에 비해, 두 소천국은 그냥 사냥꾼신인 것이다. 또 백주와 금상은 둘다 이주신인 반면, 소천국은 토착신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신이 식성으로 인하여 갈등을 하지만,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이나 <세화본향>의 명동소천국은 ‘농우’나 ‘소와 말’을 잡아먹음으로써 뚝제를 허락받는 금상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송당본향의 ‘농우’와 <세화본향>의 ‘소와 말’은 모두 농경 및 목축의 자산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금상이 받은 뚝제의 돼지는 아직 ‘뚝거름’을 생산해내는 농경적 가치의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미식의 신 백주또와 육식의 신 금상은 금상이 뚝제를 받은 후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111) 고광민,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송당, 세화, 서귀포 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112) 고광민, 위의 논문, 160쪽.

113) 강정식은 앞의 논문(13쪽)에서 식성으로 인한 갈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좌읍 세화리의 경우를 하나의 신당에 육식 신과 미식 신이 좌정하는 예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는 당을 따로 두지 못할 사정이거나, 혹은 따로 두었던 당을 불가피하게 한 곳에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당곳에서 미식의 신인 천자또와 백주또에게 먼저 상을 올리고 이 신들을 보낸 후 금상에게 뚝제를 올린다. 제의 과정에서 식성에 따른 신들의 구별이 나타났다. 필자 채록본 참조.

통해서 함께 좌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토착 여부와 식성이 대립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가지 의문은 남는다. 남신간인 도순한집과 강정한집의 경우는 식성이 달라도 남녀신 사이의 갈등에서처럼 파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⁴⁾ 이것은 이들 식성이 다른 남신들은 서로 다른 마을에 토주관을 삼았으며, 단지 식성으로 형과 동생을 가렸을 뿐이라는 점도 이유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동성의 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¹¹⁵⁾ 그러니 살림분산이나 귀양이나 별거 같은 파국은 일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백주와 소로소천국의 갈등은, 농경신과 수렵신의 갈등, 수렵에서 농경으로 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수렵사회의 남성적 역할보다 농경사회의 여성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단 백주와 소로소천국이 여신과 남신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풀이에 나타나는 식성 갈등은 대체로 남녀신이나 부부신 사이의 갈등인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지닌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다가 갈등을 일으켜 별거에 이른다는 인간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¹¹⁶⁾ 때문이다. 신화가 삶의 전범으로서 하나의 모델 혹은 ‘현장’과도

114) 행원리 남당에 좌정한 중의또 역시 돼지고기를 취했는데, 이미 좌정한 다른 신들과 여타의 갈등을 빚지 않는다. 다만 서편에 홀로 좌정할 뿐이다. 중의또가 남당에 좌정할 때 이미 남당 할망, 할으방 부부신과 큰도안전부인신이 좌정해 있었다.

115) <세화본향>에서 천자또가 금상에게 dot제를 허락한 데에는 이들이 동성 간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풀이를 통하여 ‘신앙의 규범과 실생활의 양식’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신화의 시대만 하더라도 미식의 농경 여신이 우월하나, 후술할 돈육식금기를 파기한 여신을 쫓아내는 모티프가 패턴이 되어 일정하게 나타나는 신화에서 여신은 열세한 입장에 놓인다. 돼지고기 금기가 주로 여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는 실제 가부장적 삶 속에서 특히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점을 많이 두었던 제주인의 삶에서 본처를 쫓아내는 현실적 논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¹¹⁷⁾

2. 대식으로 인한 갈등

당신본풀이에서는 신들의 ‘대식성’이 문제가 되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식은 일단 ‘많이 먹는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¹¹⁸⁾ 그런데 신들의 ‘대식성’은 신이나 영웅과 평범한 인간을 구별하는 요소이다. 일단 대식인 신들은 소천국, 삼신산 중, 궤네깃또나 송곡성(소천국 2세대), 그리고 장수신인 금상¹¹⁹⁾이다. 많이 먹는다는 것은 박종국의 지적처럼, 신의 비범한 능력을 담보해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¹²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대식가이면서 남신이라는 것이

116) 강정식, 앞의 논문, 134쪽.

117) 김상현의 『남사록』(1601)에는, 마을에 남자보다 여자가 3배는 많다는 『표해록』의 기록을 인용하며, ‘내가 알아보니 본주(本州)의 성 안은 남정이 오백이고 여정이 팔백이라며, 고을의 풍속이 처첩을 아울러 둔 자가 많다고 했다. 성비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처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18) 박종국은 설문대할망 신화, 당신본풀이, 전설 등을 대상으로 거식성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에 의하면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관계 없이 제주도 사람들의 곤궁한 일상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거식성은 제주도 사람들이 가진 허기와 좌절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라고 했다(「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2002).

119) <세화본향>의 금상은 장수신으로 대식성을 갖고 있으나, 대식성으로 갈등을 하지 않고 육식성으로 갈등을 하는 만큼 대식성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다. 그리고 식성은 삼신산 중을 제외하면 모두 육식을 한다. 이들의 대식 관련 부분만 뽑아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자.

㉔ 소천국과 삼신산 중(<송당본향>¹²¹), 구좌면 송당리)

삼신산 중이 넘어가다가 소천국 대감님 밭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 징심이나 흑곰 주시오, 시장이나 물령 가쿠다.” 소천국대감님이 말씀하되, “질매 앞에 가고 봐라. 밥이 있다.” 소천국 대감님은 밥이 예레듭동이 국이 예레답동일 먹어야 식양이 차는 성인인데, 삼신산이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도합, 예레듭동일 다 먹어두고 갔다. 소천국대감님이 밭을 갈다가 시장이 되어 밥을 먹자고 하니, “삼신산이 혼동이나 먹을카?” 혼게 다 들러먹고 가부렀다. 아젠 밭갈단 농이를 잡아 새비냥게 구워 먹으난 양이 안찼다. 경허여도 배가 고파, 검은 암쇠 하나를 다시 뱉겨 먹어사 양이 찼다. 쟁기를 쇠가죽으로 뒹여 뱃부기에 대연 밭을 갈암시난

㉕ 레네깃또/송곡성(<송당본향>¹²²), 구좌면 송당리)

“제주에서 오신 맹장님은 음식이 좋나. 느지나 어째서 배린 채도 아녀십니까?” 송곡성이 말을 하되, “나는 궤기라도 전머리, 득이라도 전머리, 쇠라도 전머리, 돛이라도 전머리, 늘피, 늘돛간, 양 전머리로 거를 먹어야 내 양이 찬다” 용왕이 생각하되, “사위손 하나야 못 대접하느냐?” 흐를에 돛도 전머리, 쇠도 전머리, 득도 전머리로 잡으니 흐로 일은다숫머릴 먹었다. 석달 열흘을 뱉여가난 용왕국의 동창께 서창께 남창께가 비여간다.

㉖ 천자또(<내왓당>, 제주시 용담동)¹²³

(전략) 조반식스상을 들러가난 눈도 거도 아니트어, “무사 상을 안받 읍네까” “우리 대국이서 음식상을 받을 때에 백메, 백돌래, 백시리, 즈소주에 계알안주 되육칠반상을 받읍네다.” “요왕국이선 내 기강을 ㄱ

120) 박종국, 앞의 논문, 18쪽.

121) 진성기, 앞의 책, 410쪽.

122) 진성기, 앞의 책, 421쪽.

123) 진성기, 위의 책, 326쪽.

지고 사위 하나 대접 못하랴. 동창제도 알리라 서창제도 알리라.” 흥명
 미심대로 출려주언, 석달 열을 백일을 출려가니, 동창제도 비여간다 서
 창제도 비여간다 남창제도 비여간다. 북창제도 비여간다. 가시아방, 동
 해용궁은 말을 하되, “말젓말애기야, 늘로 하여 얻은 사람이여.” 사위손
 을 부르고 말을 하되 “지집을 들양 어서 나고가라.” 동해용궁은 사위가
 말젓말을 들안 나갈 때엔 “브름웃또 배실을 주었습니다.

㉞ 아들(<중문분향>, 중문면 중문리)¹²⁴⁾

(전략)말젓말애기는 아방왕이 들어가고 “사위손은 잘 하였습니까?”
 백일을 지나되, 남너구벨을 몰릅네다 “사위손을 불르라.” “어찌하거늘
 백일을 산들 남너구벨을 몰른단 소리가 웬 소리냐?” “이 국은 대국은
 대국이로되, 우리 소국만 못함네다.” “소국서는 뭇을 먹고 살았느냐?”
 “쇠 잡아도 전물제, 돛 잡아도 전물제, 즈소주에 먹고 살았습네다.” 게
 니, “사위손을 흥 백일 가남 었겠느냐?” 동창제도 열리라 서창제도 열
 리라 남창제도 열리라 북창제도 열리라 석달열흘 백일을 백이니, 동창
 서창도 비여온다. 남창 북창도 비여온다. 이제는 예나라광 당나라가 병
 난이 이니 황정싱은 선봉대장을 맡아. 말으니 황정싱이 호이 근심이
 지어, 사위손님 하는 말이 “처부미도 반부미네다. 지가 대신 가고 오리
 다”“게민 사위하는 일도 고맙다” 이제는 그 비수금을 출리고 예나라
당나라 들어가고 보니, 억만군사 삼천군사가 범벅져 시니 황정싱 사위
가 들어가 비수금을 그치고 는다 들러 삼천군스 외우 들러 억만군스를
비여 녹져. 피는 시내에 넷물이 되었다. (이하 생략)

㉟ 딸(<드람지계 불목당>, 중문면 중문리)¹²⁵⁾

(전략) 이제 떡거리 진지상을 출려서 죽은 딸애기 들어가니 진지상을
 받아놓고 흥는 말이 대국은 대국이라도 우리 소국만 못내 합니다. 어
 쟈서 너희 소국만 못 흥나. 큰 대자를 써놔서 대국일망정 우리 소국만
 못한 것은 이제 소국서는 사위 손님을 대접호젠 흥민 산 득은 비개를
틀고, 죽은 득은 옥저를 틀고 이제 흥올런 대잔치를 올령 상을 받게
웨 잇수다. 그건 결혼식을 오리라 흥 거라. 겨난 신부상에는 신랑신부

124) 진성기, 위의 책, 523~524쪽.

125) 이 <중문당본풀이>는 문무병·고광민 채록본이다. 문무병, 앞의 논문(1993) 부록 참조.

상에 독 잡아 올리는 것이 그 식이주게. 아 그러면 사위 훔칠 못 백일 수가 있느냐. 해선 동창 서창래를 알리라 해서, 다 팔대문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다 소비시켜서, 잘 석달 열흘 훔쳐온 대잔치를 시켜라. 그래서 이젠 석달 열흘을 대잔치를 한 거주. 쉼잡아도 휘양놀이 지판자를 걸쳐놓고 독잡아도 죽은 독에 비자특을, 산 닥에 위턱을 풀어서, 산 쉼잡아 휘양놀이 지판자를 걸쳐놔서 석달 열흘 백이단 보니, 텅텅 비어, 아무 것도 없어 옛날 같으면 먹는 것에도 망하주게. 다 이젠 스칸드레 시습하게되면 망하단 말이여.(이하 생략)

먼저 ㉔에 나타난 소천국과 삼신산 중은 ‘아홉동이 밥과 아홉동이 국’을 다 먹는 대식가이다. 소천국은 중이 밥, 국 각각 한 동이를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삼신산 중은 소천국의 밥과 국 열여덟 동이를 모두 먹었다. 그는 대식가인 것이다. 여기에 소천국과 삼신산 중의 갈등이 있다. 소천국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밭 갈던 소를 잡아먹고는 그래도 양이 차지 않자, 이웃의 검은 소까지 잡아먹고서야 양이 찬다. 사실 소천국이 농우를 잡아먹어 백주또와 살림을 분산하는 <송당본풀이>에서, 사실 최초의 갈등은 삼신산과 소천국 사이에 일어난 ‘밥’ 싸움이다.¹²⁶⁾ 이는 전혀 예상 밖인 삼신산 중의 ‘대식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소천국과 삼신산 중의 식성에는 차이가 있다. 소천국은 육식성인 반면, 삼신산 중은 미식성이란 점이다. 서로 대식이면서 식성의 본질이 다른 소천국과 삼신산 중의 갈등은 소천국의 식성이 본질적으로 육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는 농경신인 백주또와 살림을 가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육식이면서 대식인 소천국은 ‘밭가는 힘’이 있는 반면 미식신인 삼신산 중은 없는 것으로 봐서, ‘육식-대식-힘-남성’의 의미가 연계됨을 알 수 있다.

㉕는 소천국과 백주또의 2세대인 송곡성이나 케네깃또의 대식성이다. 송곡성은 아방 눈에 걸려 용왕국으로 쫓겨나나, 그 곳에서 ‘닭도 전(全)머리 소도 전머리 뚫도 전머리’ 잡아 하루에 75마리를 먹어 석달 후에는 용왕국의 창고를 다 비우고 말았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식가인 것이다. 이 일로 그는 용왕국

126) 이전 연구에서 이 부분은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천국과 삼신산 중의 밥싸움이 계기가 되어 백주또와 소천국의 갈등이 생긴다.

에서 추방된다. 즉 대식성은 용납될 수 없는 음식습관이다. 바다가 아무리 철마다 먹거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바닷속 용왕국 역시 그 엄청난 ‘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는 제주의 현실적 삶의 빈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쫓겨난 송곡성은 말갯딸 아기를 데리고 용왕국을 떠나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변을 막고 자기의 고향인 제주도로 온다. 결국 송곡성의 ‘대식’은 그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의 영웅성은 소천국과 백주또가 스스로 죽게 만들 만큼 위력적인 것이다. ‘대식-육식-영웅-힘-세대교체’가 연관된다.

㉔-㉕는 케네깃또나 송곡성과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진 본풀이다. 따라서 이는 <송당본풀이>인 ㉔의 영향을 받은 변이형으로 보인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서사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모에게 불효한다.
- ② 그 댓가로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에 띄워진다.
- ③ 용왕국에 가 말갯딸에게 장가 든다.
- ④ 대식성으로 인해 용왕국에서 쫓겨난다.
- ⑤ 강남천자국이나 용왕국의 병란을 막는다.
- ⑥ 그 대가로 다시 제주로 돌아온다.
- ⑦ 좌정하여 단골의 제를 받는다.

그러나 각 신격의 아방국, 어멍국이 약간씩 다르며 병란 또한 용왕국의 병란이기도 하고, 물 위 세상인 강남국의 병란인 점도 다르다. 제주에 와서 좌정하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히 ㉕는 케네깃또에 해당하는 인물이 딸이어서 용왕의 말갯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울해 하며 울자 진궁부인이 위로차 단골을 삼아주고 좌정케 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3> 대식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본풀이

	㉠송당본향	㉡내왓당	㉢중문본향	㉣다람쥐계불목당
신명	송곡성	천자또(바람웃또)	중문본향한집(아들)	중문본향한집 (딸) ¹²⁷⁾
버러진 이유	불효	불효	불효	행실이 곱음
이계 여행지	용왕국	용왕국	용왕국	용왕국
이계에서의 행위	말갓딸과 결혼	말갓딸과 결혼	말갓딸과 결혼	말갓딸과 결혼
식성	대식성 (소, 돼지, 닭)	대식성 (백돌레, 되육칠 반상)	대식성 (소, 돼지, 자소주)	대식성 (닭, 소)
대식 결과	쫓겨남	쫓겨남	쫓겨날 위기에 처함	쫓겨날 위기에 처함
업적	병란을 막음	병란을 막음 ¹²⁸⁾	병란을 막음	병란을 막음
병란 장소	강남천자국	대국천자	에나라와 당나라	동의용왕국과 서의용왕국
좌정처	한라영산바름목	제주시 오라동	중문리 불목당	중문리 불목당

결국 ㉠-㉣의 본풀이는 한 두가지 변이는 있어도 서사구조가 같으므로 하나의 본풀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부모에게 곱은 행실을 보여 불효가 되어 바다로 쫓겨나는데 그 곳에서마저 대식성으로 인해 쫓겨나니, 여기서 그들의 식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3. ‘돼지고기금기’와 신들의 식성 갈등

앞 장에서는 여신과 남신의 갈등이 ‘미식’인가, ‘육식’인가, 육식 중에서도 날 것인가, 그냥 육식인가, 아니면 농경의 자산인 농우인가 등에 따라 전개되었고, 그 결과가 대부분 별거나 살림분산과 같은 형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당신본풀이들에서는 육식 가운데서도 ‘돼지고기’가 문제가 되며 ‘돼지고기 금기’를 여신이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장의 ‘미식’으로 그려진 여신의 모습과는 상충된다.¹²⁹⁾

127) ㉢, ㉣에서는 신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128) 다른 본풀이에서는 용왕국에서 쫓겨나서 병란을 막거나, 쫓겨날 위기에 병란을 막아주는 데, ㉢의 경우에는 용왕국에서 바로 제주도로 와서 제주시 오라동에 좌정해 있다가, 대국천자 아방국에 세변이 일어나 이를 막으러 간다.

‘돼지고기금기’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본풀이는 금기의 대상이 ‘돼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기과기의 결과는 별거나 귀양, 혹은 내쫓김, 첩을 들임 등으로 여신의 입장에서는 ‘과국’으로 치단는다. 대체로 본풀이 맥락상 돼지고기를 터부시하는 것은 남신이며, 이를 깨뜨리는 것은 여신이다. 여신이 이 금기를 깨뜨리는 것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 ‘입이 굵빠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신 중이 아니고 단순히 ‘먹고 싶어서’인 경우도 있다. 또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려 따로 좌정하게 되거나 내쫓김을 당한 여신 중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그만씩 한 일에 귀양 보낸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여신도 있어서, 돼지고기를 둘러싼 수수께끼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금기대상은 분명한데 금기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금기를 깨뜨린 여신 혹은 남신에 대해 ‘부정하다’, ‘추접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부정한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늘날 제주인의 음식 문화 가운데 마을 사람이 모여 ‘추렴’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 돼지고기인 반면, 아직도 심방과 단골들은 제일을 며칠 앞두고 엄격히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해명이 요구된다.¹³⁰⁾

사실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가 있는 신화는 칠일당계 신화¹³¹⁾로 이미 주목을 받아 왔다. 즉 ‘돼지발자국의 물이나 돼지털을 먹어 일곱쌍둥이를 낳는 모티프는 칠일당신화의 주요 모티프’이다. 흔히 일렛당이라 일컬어지는 이 신화는 그

129) 게다가 남신이 돼지고기를 먹어 여신이 이를 부정하다고 하며 따로 좌정케 하는 본풀이가 몇 편 있다. 이러한 본풀이들은 서사구조가 매우 단순하며 여신의 경우처럼 귀양을 가거나 축출되거나, 딸애기 일곱을 데리고 애기마을을 다스리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 한편 서사구조는 거의 흡사한데 금기대상이 돼지가 아니고 ‘말’인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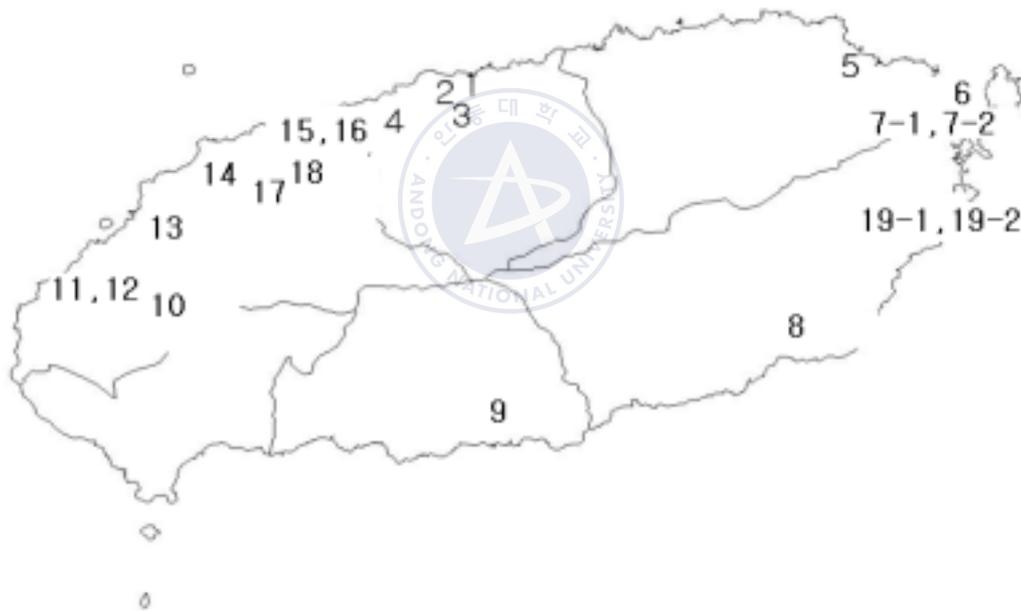
130) 돼지고기 못지않게 ‘즐거운 추렴잔치’의 대상은 ‘말고기’이다. 이 장에서도 ‘돼지고기금기 모티프’와 거의 같은 내용에 ‘말’이 등장하는 본풀이 (신풍면 <자운당본풀이>)가 있어 흥미롭다. 제주에선 말고기가 오랫동안 食肉의 대상이었다. <송당본풀이>뿐 아니라, 여러 편의 본풀이에 ‘말뼈 소뼈’ 가득한 곳이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주에서 조정으로 진상한 품목에는 살아 있는 말뿐 아니라 포로 만든 말고기도 있어 눈길을 끈다.

131) 현용준은 모티프를 중심으로 제주 당신화들을 해신당계, 본향당계, 칠일당계, 팔일당계로 크게 나누고, 본향당 신화들을 다시 신의 출신지에 따라서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신계, 기타로 나누었다(앞의 책 83쪽). 이 논의와 관계있는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가 있는 본풀이는 이 가운데 칠일당계에 해당된다.

제일(祭日)이 7일인데서 명명된 것으로 그 신명(神名)도 일렛도 또는 일렛할망이라 불린다.¹³²⁾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에 수록된 본풀이 가운데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가 본풀이 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은 18편이다. 그리고 이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졌으나 금기의 대상이 ‘돼지’가 아닌 ‘말’인 경우도 있어 함께 살펴본다.

이들 본풀이가 나타나는 당은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일대 서북부 지역과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등 동부지역으로 대체로 해안가 마을과 중산간 마을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다. 그리고 해안가나 바람 아래로 쫓겨난 여신들이 거처하게 되는 당 역시 해안가에 있음을 볼 때, 이 당들의 분포는 어떤 특별한 지리적·문화적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1> 돼지고기를 둘러싼 여신과 남신의 갈등이 나타나는 당의 분포

132) 현용준, 앞의 책, 101쪽.

1: 제주시 내왓당, 2: 제주시 용담동 궁당, 3: 제주시 오라동 남새본향, 4: 제주시 외도동 외도본향, 5: 구좌면 월정리 월정본향, 6: 구좌면 종달리 종달본향, 7-1: 구좌면 평대리 평대본향, 7-2: 구좌면 평대리 수되깃당, 8: 표선면 토산리 토산본향, 9: 서귀읍 보목리 보목본향, 10: 한경면 저지리 저지본향, 11: 한경면 판포리 산지당, 12: 한경면 판포리 널갯당, 13: 한림읍 금릉리 큰당; 14: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 15: 애월면 하귀리 개할망당, 16: 애월면 동귀리 동귀본향, 17: 애월면 어음리 비매닛당, 18: 애월면 금덕리 금덕본향, 19-1: 성산면 신흥리 자운당, 19-2: 성산면 신흥리 자운당.¹³³⁾

돼지고기 금기를 마련한 주체와 파기의 주체, 이로 인한 결과 및 단골의 반응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¹³⁴⁾

<표 4> 돼지고기금기를 둘러싼 여신과 남신의 갈등

번호	당이름	당소재	금기마련주체 ^㉑	금기파기주체 ^㉒	금기파기이유	대상	㉑의 반응	㉒의 반응	결과	단골의 반응
1	내왓당	제주시 용담동	바람웃또/대국천자아들/신격	동해용궁말조딸	임신중	돼지털	부정하다	여신이 화가 남	따로 좌정	
2	궁당	제주시 용담동	상서대왕/서천서역/	정절상군농	임신중	돼지털	양반의 부인으로 부정하다		처첩을 축출/상군농은 댁제받음	
3	남새본향	제주시 오라동	남인님	남새할망 송씨대부인님	임신	제육부찌	부정하다		남새할망이 팻볼래 남알로 좌정	신령 좋고덕을 주는 남새할망

133) 단, 19-1, 2에서는 말고기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134) 강권용(2004)도 앞의 논문에서 비슷한 표를 제시했다. 강권용은 식성갈등이 등이 나타나는 본풀이를 표로 나타낸 것(9쪽)으로 <송당본향>, <세화본향>, <행원리 남당>, <김녕계네깃당>을 포함했다. 필자의 것은 돼지고기 금기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본풀이만 표로 나타낸 것으로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필자는 논문 발표를 마친 후 강권용의 논문을 보았으며, 도표의 작성 또한 전적으로 필자의 아이디어와 분석에 입각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4	외도 본향	제주시 외도동	김씨 할으방	송씨 할 망	돼지고 기에 대한 육구	돼지 털			할으방 은 우렁이 로 할망은 해촌으 로 갑	당집을 지언 할망을 본향으 로 모심
5	월정 본향	구좌면 월정리	태오또/산신	황토고 을황정 승의 따님	출산/입 이 곱빼서	돼지 털	큰사람의 부인이 될 수 없음		서당머 체로 딸일곱 과 좌정	딸과 황정승 부인을 위해 dot제법 마련
6	종달 본향 ⑤	구좌면 종달리	백록담서 숫아난 백조노산주/ 산신	일퇴중 좌할망	임신 중 입이 곱빼서	뒷간 의 돼지 털	큰부인 노릇 못함		할망은 바람알 로 좌정	아이들 몸의 허물 건어주 는 어진 한집님
7-1	평대 본향	구좌면 평대리	신선또	서당할 망(강원 도)	출산	돼지 고기			살림분 산 서당할 망은 애기와 좌정	dot제 마련
7-2	수되 깃당	구좌면 평대리	수되기서당 한집	서당할 망	출산	돼지 발자 국물 과 돼지 털	큰부인노 릇못함/땅 가르고 물가름		할망은 지경 바깥, 할으방 은 동네안 좌정	아플때 할망상 에 도새기 잡아 올림
8	토산 본향	표선면 토산리	바람운님/육 식	신중부 인	임신	돼지 발자 국물 과돼 지털	부정하다	부정한 일 없다/‘그 만썩한 일’	신중부 인의 귀양 및 후처를 들임	만민단 골의 정성 받음

9	보목 본향	서귀읍 보목리	조노기한집/ 산신	허씨과 무집	돼지고 기를 먹고파 서	돼지 간과 내장	부정하다		막동골 로 좌정케 함/후처 를 들입	
10	저지 본향	한경면 저지리	정좌수부인 의 죽은말жат아 들	한디 사는 할망		돼지 고기	추접하다		손두물 머리로 가 따로 좌정	
11	산지 당	한경면 판포리	하로하로산	축일당 장씨할 망		돼지 고기	부정하다		따로 좌정	
12	널갯 당	한경면 판포리	오일본향정 씨할으방	축일본 향 김씨할 망	임신	통시 의 돼지 털	부정하다		할으방 은 하늬바 람펜, 할망은 마브름 펜	
13	큰당	한림읍 금릉리	장씨할마니	소왕물 술일할 으방		돼지 고기, 술	부정하다		따로 좌정	
14	고내 본향	애월면 고내리	황서 병서	용왕국 별궁자 따님		돼지 고기	부정하다		살림 분산, 황서병 서는 바람우, 부인은 알로 감	일년에 한번 상봉함
15	개할 망당	애월면 하귀리	바람웃또송 씨할망	바람알 또김씨 할으방		돼지 고기	부정하다		바람 위 아래로 따로 좌정	
16	동귀 본향	애월면 동귀리	웃당 송씨할망	김씨할 으방(부 부)	바다의 어부, 잠수 차지	돼지 고기			할으방 이 알당에 좌정	웃당, 알당 제물 구별

17	비매 닛당	애월면 어음리	할으방 동산당	할망	속이 씨서	돼지 발자 국의 물	추접하다		할망은 바람알 로, 할으방 은 위로	
18	금덕 본향	애월면 금덕리	선씨영감	허씨할 망	먹고 싫어서	돼지 고기			할망의 굴속 자살	할망의 죽음 후 당설립
19- 1	자운 당	성산면 신평리	양사또	개로역 한집	목이 말라서	말굽 의 물	큰부인 노릇을 못함		넋창물 먹고 살게 함	
19- 2	자운 당	성산면 신평리	개로육섯도	큰부인	넋가의 물을 먹음	넋가 의 물	부정하다 하여 내쫓음		넋가에 좌정	마소를 잃으면 와서 뵈

위의 표 가운데 13, 15, 16은 금기를 파기한 주체가 남신인 경우이고 19-1, 19-2는 성산면 신평리의 자운당본풀이로 금기대상이 ‘말’이다. 7-1과 7-2는 구좌면 평대리의 평대본향(신선당)과 수되깃당의 본풀이인데, 서당할망이 돼지고기를 먹자 신선도가 쫓아내 서당할망이 수되깃당에 좌정한 이야기를 공유하므로 상호 이본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³⁵⁾ 그리고 18은 현씨 영감이 서울에 진상갔다가 오는 길에 데려온 허씨 할망이 끝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다가 할으방과 헤어져 굴속에 들어가 살다 죽자 이 할망을 위해 당을 세운 것이다. 죽은 할망의 원혼이 신격이 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일뤼당신화와 다른 면이 있다.

먼저 여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린 본풀이 15편(1~12, 14, 17)을 살펴보자. 신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금기를 마련한 남신격은 대체로 한라산에서 내려온 산신(1,5,6,7,8,9,11,17)으로 신명이 산신백관이나 하로하로산, 브름웃또,

135) 이 글에서는 금기를 깨뜨린 여신이 쫓겨난 당이 수되깃당이므로 수되깃당의 본풀이(7-2)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내왓당과 궁당의 본풀이도 구좌면 평대리의 본향과 수되깃당처럼, 이본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왓당과 궁당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 다르고, 내왓당의 경우는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받아 궤네깃또처럼 용궁 세계를 여행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궁당에는 없어서 여기서는 일단 별개로 취급한다. 더 구체적인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노기한집 등이다. 그리고 인격신인 경우가 5편(3,4,10,12,18)이고 초나라나 서천서역 등 이계에서 온 경우가 2편(2,14)이다. 남신은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착신이다. 여신은 용왕국에서 온 경우(1,8,16)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격신이다. 여신의 경우 토착신으로 보이는 것은 3,4,6,9,10,11,12,17로 모두 8편이고, 나머지 7편은 이주신이다.

돼지고기 금기 파기가 여신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것은 모두 9편(1,2,3,5,6,7,8,9,12)인데 3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돼지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뒷간에서 돼지털을 그슬리거나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다가 돼지털에 찢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단지 돼지고기에 대한 식욕 때문인 경우는 모두 7편(4,9,10,11,14,17,18)으로 전체 수의 반을 차지한다. 이들 여신의 돼지고기에 대한 욕구는 이전에 이미 돼지고기를 맛보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씨 영감을 따라서 서울에서 온 허씨 할망(18)이나 강원도에서 온 서당할망(7)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은 이전의 식습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기존의 연구들처럼 여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린 것을 임신이나 출산과만 연결시킬 수만은 없다.

금기 파기의 결과로 살림을 분산하거나 따로 좌정하는 것은 전편이 똑같은데¹³⁶⁾, 남신은 돼지고기를 먹은 여신을 대개 ‘바람알, 마바람편, 해촌, 지경밖’으로 보낸다. 그런데 2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처도 함께 내보내고, 8에선 처를 마라도로, 9에선 막동골로 보내면서 후처를 들인다. 따라서 2, 8, 9 세 편에선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가 여신을 쫓아내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쫓겨난 여신이 단골들에게 dot제를 받는 것이 본풀이 상에 분명히 나타난 것은 2,5,6,7,9(임신 중 돼지털을 취한 것과 공통됨)이며,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여신이 쫓겨나서 애기마을을 다스리고 dot제를 받는 것은 돼지고기가 마을의 일부사람에게 수용되었거나 여신이 쫓겨난 마을에 이미 돼지고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논의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6) ‘14번 에월면 고내 본향’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일년에 한번 만난다(진성기, 앞의 책, 584쪽).

남신 ⇔ 여신
 (한라산신) (인격신/토착신이나 이주신)
 돈육 → ① 임신이나 출산 → 돼지털 → 쫓겨남 → 애기마을 다스리며
 금기 파기 똥제를 받음
 ② 돼지고기에 대한 욕구 → 돼지고기, 내장 → 쫓겨남 → 명시되지 않음

이로 보아 여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즉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입 굽뽀’와 돼지고기에 대한 단순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또 돼지고기를 취함에도 돼지털 화소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반면, 직접 돼지고기나 돼지 간 등을 취하는 것은 돼지고기에 대한 식욕과 관련되어 있다. 쫓겨날 때도 전자는 애기마을을 다스리며 똥제를 받는다는 것이 본풀이 상에 나와 있으나 후자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풀이에 명시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서사무가의 교술적 성격을 생각할 때 분명해진다. 즉 전자는 당신의 성격과 제물이 단골들에게 주지되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단골이나 해당마을이 돼지고기를 취하거나 먹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정체성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달본향>, <수되깃당>, <보목본향> 세 편을 보자.

토주본향 한집님은 백록담서 솟아난 백조노산주 할으방 산쇠털혹절
 립 은문대단 안을 받져 뒤웅세 불림천에 팔뚝 상미 견우잡아 궁이 받
 듯 쌀을 무어 한새끝을 털뜨리민 온짐생이 도숙여들고 두새끝을 털따
 리면 온짐생이 도숙여 나는 영급좋은 한집님.(중략)

전수물 좌정한 일뢰중자 할마님 유태중에 뒷간에서 똥술 흐나을 빼
여 콧궁기레 드물아 미싱불로 기시리니 똥괴길 먹은간 썩간 동경내가
나. 할으방이 사농칸 완 받 동경내가 나니, “어떻흐난 할망우로 동경내
가 남신고?” 그영흐난 할망이 말을 흠을 “나는 유태중인디 입이굽번
 뒷간에 갔단 똥술 흐나를 빼연 콧궁기에 디물아 기시리니 동경내가 남
 썩다.” “큰부인 노릇 못흐키여 브름알로 느려스라.” 할마님은 브름알로
 좌정흐연 아으덜 몸에 갱비리 물비리 흥허물 너벅지시 눈아피 부시럼
 질 견어주영 상을 받는 어진 한집님이우다.(구좌면 종달리 종달본
 향,,427-428쪽)

수되기 서당한집 할으방이 체암에 이디 살암시난 할망이 강안도 철산서 들어오란, 이 마실에 할으방이 혼체 살암시난, ‘물이나 떠 놓왕 얻어먹쿠다’흐연 삶을 하난 부배간이 되어 애길 일곱 낱난 입이 굽번 살질 못하난, 하로운 “돛찌자국에 물이 벤직벤직 하여시난 빠래기를 대연 그 물을 빨아먹으난 돼지털이 콧궁기레 박아지연 그게 날핏내광 늘 낭내가 났수다.” “큰 부인 노릇 못 하겠다 땅 갈르고 물갈르라” 흐연 살름을 갈릅디다 할망은 지경 백격덜로 집짓언 나아앗고 할으방은 가름 안으로 삼빙칩으로 못고 경흐난, 할망은 돛괴길 반앙 잡수곡, 할으방은 푹고 푹은 음식백긴 안잡수난 수되깃당으로 간 좌정하였수다. 이 지금도 누게라도 어딜 아프나 괴로우나 죄우는 뱅이 들었을 땐 이 할망상에 도새기 잡앙 올려사 풀어지곡 뱅도 낮곤 합네다(구좌면 평대리 수되깃당, 430-431쪽)

바람웃또는 솟아나긴 할로영산 백록담으로 솟아나(중략)

처씨는 토평 서웃동네 허씨 과무집이/ 정주인을 잡았더니/ 괴기를 팻 씩 먹고판/ 상돛통에 기여들언 보니/되야지가/ 용베겔 베와/용좁을 가 고 이서/ 갱맹지를 손에 감아 죄고/항문으로/ 손을 드리몰아/ 간내 식 식 양의 식식을 빼여 먹어. 부정하고 서정하고 경흐여 이시난/바람웃또 가 조눅잇한집이 그 올래에 갔더니/권경내 나고 야광내 나서/“이게 어 떤 일이냐” 흐니/“ 괴기를 먹고뵈 이만저만한 게 권경내가 남네다” 경 흐민 “우리 맑은 도광 흐디 살수가 엇이니 막동골로 좌정하라” (보목본향, 서귀읍 보목리)¹³⁷⁾

<종달본향>의 남신은 한라산신계 수렵신인 백조노산주이다. 임신중인 부인 전수물(물알동네) 일퇴중자 할마님은 뒷간에 가서 돼지털을 하나 그슬리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 했다. 사냥 갔다 돌아온 할으방은 동경내가 난다며, ‘큰부인 노릇 못 하겠다’고 바람알로 따로 좌정케 한다. 할망은 아이들 몸에 허물이나 옴, 부스럼 등을 주며 돛제를 받는다. 평대리<수되깃당>도 이와 비슷하다. 할망이 강원도에서 이주해 와서 할으방과 살다가 애기 일곱을 낳고 ‘고기가 먹고 싶어’ 돼지발자국의 물을 빨아 먹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에 박히고는 날핏내

137) 진성기, 앞의 책, 494~495쪽.

가 나 부정하다고 지경 밖으로 쫓겨난다. 그런데 단골들이 어디 아프거나 괴로울 때 이 할망상에 돼지를 잡아 올리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보목본향>에서 허씨 과무집은 조노깃한집이 없는 사이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통시에 가서 돼지의 간과 양을 빼어 먹는다. 조노깃한집이 돌아와 ‘우리 맑은 도와 살 수 없으니 막동골로 좌정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사냥꾼의 길목에서 ‘은설(시원한 피) 단설(맛있는 피)’을 받아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신임신중또 말жат딸아기를 후처로 삼는다.

이들 본풀이에서 의미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식성 또는 문화가 다른 두 신 혹은 두 집단이 만나다
- ② 돼지고기를 취한 여신은 해각(해변)이나 바람 아래로 쫓겨난다.
- ③ 남신 쪽은 돼지에 대한 터부를 갖고 있다(13,15,16은 반대의 경우임)
- ④ 돼지는 통시안에서 사육되었다.
- ⑤ 남신은 첩을 거느렸다.
- ⑥ 아프거나 괴로우면 단골들은 여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치며 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신이 토주관이자 토착신이며, 여신을 귀양 보내는 것에서 혹은 살림을 분산하자는 데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들의 별거 혹은 이혼은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 분산하자’는 것으로 마을이 경계가 나뉘고 두 개의 신앙권으로 분리되는 것이다.¹³⁸⁾ 그러나 ‘쫓아냄’과 ‘쫓겨남’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하고, 이를 여성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여신이 딸애기들만을 데리고 가서 능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여신이 육아 및 치병신으로 자리를 잡아 마을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것, 그리고 이 일뤼당신화가 전도에 퍼져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본풀이의 여신들은 대체로 ‘통시나 뒷간 또는 남당알래’에 가서 돼지의 털을 취한다. 여기서 돼지의 털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아기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138) 문무병, 앞의 논문, 60쪽.

육식'139)과는 거리가 멀다. 때로 여신들은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취하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며, 혹은 살아있는 돼지의 생간을 빼먹기도 한다. 여신이 돼지를 취함은 여신과 돼지의 친연성을 의미한다. 프레데릭은 대개의 문화권에서 돼지사육은 여성이 담당했다고 한다.140)

한편, 여신이 돼지털을 취함을 다른 신과의 부정한 관계로 해석하기도 했다. 표선면 <토산웃당>은 송당신화에 子婦神이 돈육류를 먹고 귀양 또는 별거하는 이야기가 덧붙은 것141)으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에 걸쳐 식성으로 인한 갈등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선142)은 <토산웃당>의 신중부인이 돼지털을 태워서 돈경내 때문에 내외 갈등이 생겼으니, 그것은 남신과 여신 사이에 어떠한 전도와 가치 변이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단지 돈경내 때문이라면, 소도 닭도 먹는 바람운님의 마누라 귀양 보내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부인이 바람운님과 헤어지게 된 것은 별다른 계통의 신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돼지털로 인해 여신이 부정해졌다고 하는 점, 남신이 이를 빌미로 여신을 축출한다는 점, 그리고 그 여신에 대해 '양반의 부인이 못 된다'는 유교적 관념이 덧씌워진 점들에서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바람운님의 식성이 중간에 바뀐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43) 돼지고기를 먹은 신중부인을 쫓아내기 위해, 바람운님의 식성이 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39) 현용준, 앞의 책, 103쪽.

140) 프레데릭, 앞의 책, 30~70쪽 참고. 제주에서도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뒤 혼 집당 혼 마리고 두 마리고, 옛날에 키울 적엔 많이 키웠지. 종손할마니도 옛날에 독막 헐 때 도야지 많이 질러서 많이 벌어서 아들덜 주고 했지.-한희화(여, 79세 체보), 촌에는 혼 머리 두 머리 쌀 커프레기 허고 같이 키울 때는 여자가 키우지 남자가 키우나. 여자가 키운다. 왜 남자두 키우지마는 남자가 키우는 거는 공장에서 많이 키우잖아. 여기 이런 촌에는 한 매리 두 매리 키우는 거 새끼 나면 장에 팔고 하는 거, 여자가 키우고. 남자는 헤영현 도새기들 공장에서, 여자는 까만 도새기 지름 지각헌 거(강봉녀(여, 65세) 체보)

141) 현용준, 앞의 책, 125쪽.

142) 김현선,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111~113쪽.

143) 현용준, 앞의 책, 125쪽.

그러나 본풀이 가운데 그러한 내용은 없다. 본풀이에서 바람운님의 식성이 나타나는 단락은 그가 부모신에게 밭보여 용왕국으로 쫓겨났을 때이다. 바람운님은 용왕국에서 육식성과 대식성을 보인다. 끝내는 그 대식성으로 인해 용왕국에서 쫓겨난다. 바람운님의 대식성은 소천국을 닮은 ‘육식성’에 뿌리가 닿아 있다. 그런 바람운님이 신중부인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식성이 미식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존경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도 ‘통시 안의 돼지’란 일차적 의미를 넘어 어떤 문화적, 상징적 의미가 보태졌으리라 생각한다.

돼지고기를 먹은 여신을 부정하다고 보는 신격은 산신격의 남신이다. 그리고 여신이 ‘부정한 것’은 존경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존경내’가 사람의 인분을 먹고 자란 ‘통시’안의 돼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문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신화에 나타나는 돼지는 대부분 ‘통시 남당알’에 있는 돼지로서 제주의 돛통시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¹⁴⁴⁾ 돼지고기를 취한 여신들은 대체로 해안가 마을이나 바람알로 쫓겨 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존경내’가 난다고 ‘부정하다’고 이르는 남신들이 여신들에게 ‘양반의 부인으로 못 쓰겠다’, ‘큰사람의 부인으로는 못 쓰겠다’, ‘큰부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남성들이 돼지고기라는 음식으로 여성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⁴⁵⁾ 제주도의 해발고도 200~600m내에 분포하는 중산간 촌의 반농반목민들은 유교를 받아들이고 양반임을 내세우면서 해발고도 200m이하의 해촌(갯마을)을 포촌(민촌)이라 부르

144) 여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돼지발자국의 물’을 보릿대로 빨아먹거나 혹은 치마를 엮고 그 위에 고인 물을 먹다가 ‘돼지털’에 찢리는 경우도 있다. 이 돼지발자국은 통시 안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것으로, 이 신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통시 안에서의 돼지사육이 이루어지는 초기의 단계라고 추측할 수 있다.

145) 캐롤 코니한(앞의 책, 32쪽)에 의하면, 많은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음식은 차별의 수단이기도 하고 연결통로의 수단이기도 하다. 인종, 사회계층, 그리고 성 차별은 먹는 것에 대한 규범과 그 규범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능력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에 근거 하건대, 여성에게 금기된 돼지고기는 여성을 차별화하고, 여성의 음식 습관을 제한한, 여성에게 가해진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남성의 권위, 혹은 지위는 ‘양반의 부인 못 될 사람’이란 표현을 볼 때 유교주의를 배경으로 했다고 여겨진다.

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알뜨르 보재기’라고 천시하였다. 또한 반농반어민인 포촌 사람들은 문화변동에 둔감한 유교문화지대인 중산간촌 사람들을 ‘웃뜨르 촌놈’이라 하며 천시하여, 중산간촌과 해촌간에는 서로를 천시하고 배격하면서 혼인조차 거절할 정도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다¹⁴⁶⁾. 그렇다면, ‘양반의 부인 자격’, ‘큰사람의 부인 자격’ 운운하는 남신의 말은 중산간촌의 양반문화와 자연스레 연결된다. 일례로 성산면의 중산간 지역인 신평리는 정의현에서 퇴임한 아전들이 거주할 곳으로서 설촌이 되고, 군위 오씨등의 유림이 이주하여¹⁴⁷⁾ 대대로 양반행세를 해 온 곳이었다.¹⁴⁸⁾ 위 표의 19-1, 19-2번 신평리 <자운당 본풀이>에서는 비록 ‘말굽’이 문제가 되지만, 소실 개로역한집이 ‘큰부인 노릇을 못 할 거라’고 쫓아버리는 양사또의 모습이 나타난다.

넷기 양스또가 토산당의 개로역 한집을 소실로 들안 올 때에 개로역 한집이 가매쓰굽이서 애가 광광 몰란 물먹구정흐연 가매알로 느런 질혜 물콥엿 물을 보릿낭 뽕래기로 물을 빨아먹고 물콥엿 터럭이 콧궁기레 드난 물 흐머리다 먹은간 썬간 흐고 노린내가 탕천흐니 양스또가 흐는 말이 “큰부인 노릇 못 흐키여. 부정흐니 냇창물이나 하영 먹영 살라” 하연, 므실 냇가운디레 브리난 자운당을 설련흐였수다. 가는 오는 사름들의 제인정을 반양 삶네다. (<자운당>, 성산면 신평리, 450-451쪽)

신평본향의 큰 부인이 냇그잇 물을 먹어오니 본향 한집이 “부정흐다” 흐연 내조차부난 냇가에 간 좌정흐 당이우다. 이 므실서 므쉬를 일러불민 이 당에 강 빌곡 “마쉬 좃아 줍센” 하민 한집이서 므쉴 좃아주는 영급흐 한집님이우다. 므쉬에 맹심흐 단골들이 강 쥘 지넵네다. (<자원당>, 성산면 신평리)¹⁴⁹⁾

먼저 <자운당본풀이>는 넷기(성산면 신평리)의 양사또가 표선면 토산당의 개

146)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제주인의 해민정신』, 각, 2001, 310쪽.

147) 송인정, 앞의 논문, 40쪽.

148) 정영평(남, 72세) 제보.

149) 진성기, 앞의 책, 452쪽. 자원당과 자운당의 본풀이는 이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 두 개를 모두 살피고자 한다.

로역한집을 소설로 들여오는 길에, 말밭자국의 물을 먹다가 말털에 찢려 노린 네가 탕친한 한집을 부정하다고 하며 냇가에 버려두고 갖기에 세운 당이다. 앞에서 살펴본 본풀이들과 서사구조가 유사한데, 부정한 것이 ‘돼지’가 아닌 ‘말’이라는 점이 다르다. <자원당>은 냇가의 물을 먹어 온 신평본향의 큰 부인을 본향 한집이 ‘부정하다’고 내쫓아서 냇가에 좌정하게 된 당이다. 마소를 잃어버려 마소를 찾아 달라고 하면 마소를 찾아주는 ‘영급한’(영험 있는) 당으로 마소에 명심한 단골들이 섬긴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 부근에는 실제로 마장이 있었다.¹⁵⁰⁾ 이 두 본풀이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신이 말밭자국의 물이나 말이 먹는 하천의 물을 먹어온 여신을 부정하다고 쫓아낸다는 점에서,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가 있는 본풀이와 서사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부정한’ 대상이 돼지가 아니고 ‘말’인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자운당본풀이>는 앞의 ‘돼지고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의 변이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말’이 돼지처럼 ‘부정’의 개념 안에 들은 것이 의문이다.

고려 말 원나라가 지배하던 시절부터 제주에서는 말을 길렀고,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는 점¹⁵¹⁾, 그리고 말을 키우던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말은 제주인에게 식용의 대상이었다는 점¹⁵²⁾, 또 백중제와 같은 일종의 말고사나 말놀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본풀이 또한 돈육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우와 다른 시각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당에 갈 때나, 집안의 큰 제사나 경사가 있을 때 말고기는 ‘부정한 고기’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¹⁵³⁾

150) 현재복(여, 69세) 제보. 현재 이곳에는 경마장이 있다.

151) 김정희 『제주풍토록』에는 ‘섬중에 국마를 여러 곳에 치고 있고, 양 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둔은 매우 많아 천지현황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둔의 이름으로 삼았다.(島中國馬 發牧於諸處 而兩縣亦然 馬屯甚多)’라고 했다(양순필, 「16, 17세기 제주풍토록과 풍토기의 대비」, 『제주도언어민속논총-현용준박사화갑기념』, 1992, 466쪽에서 재인용).

152) 요즘에도 말추렴이 행해지고 있다. 말의 뇌, 생간, 검은기름(창자) 등은 서로 먹으려고 할 만큼 최고로 맛있는 부위로 인식되며 생피 역시 두통에 좋아 인기가 있다. 말에 관한 이러한 식습관은 오래전부터 말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양순필은 앞의 논문(466쪽)에서 조선시대 목마목축의 이유로 戰馬, 농업경작의 수단, 役馬, 乘馬, 말고기 식용, 제사용, 馬皮, 馬骨, 수렵, 예물, 진상물, 무역용, 외교증여물로의 사용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의 경우는 농업경작과 말고기 식용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다.

다음으로 남신이 돼지고기를 취하는 자료 13,15,16의 본풀이를 살펴보자.

동귀 저싱당엔 뒤발거리 어간을 두어 우알당이 혼디 점주흔 한집님
이우다 웃당은 송씨할망이고 알당은 짐씨할으방인디, 두 부체가 됩네
다/ 할으방이 바당의 어부 잠수 촛지형영 도새기 괴기영 먹어부난 할
망광 한디 못살안 알펜에 좌정합네다/ -웃당 정성은 시리떡 혼잡시 메
한기 과실 한잡시 제숙 하나 지주 한팽 잔 한잔 그영 찰립네다 알당
정성은 지물 두 잡시 메 두기 과실 두 잡시 잔 둘 지숙 둘 도새기괴기
영 올령 우망합네다.(<동귀본향;저싱당>, 동귀리, 594쪽)

소왕물 술일할으방이우다/장씨할망광 부배간인디/돼지고기에 술을
자사부난/부정형연 뜨로 좌정하였수다/돼지고기에 술을 받아먹영/ 즈손
들을 그늘롭네다.(<죽은당>, 한림읍 금릉리, 597쪽)

개할망당은 개말디 좌정형여 가는 배, 오는 배, 어부츄지, 해너츄지
형는, 브름웃또 송씨할망, 브름알또 짐씨 할으방광 부배간이라도 도새
기괴기 아니먹어 브름우로 좌정홉네다.(<개할망당>, 애월면 하귀리, 59
0~591쪽)

이들 본풀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기의 주체를 깨뜨린 것이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 남신에게는 돼지고기 금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남신들은 여신과 함께 좌정하려고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다’는 이유로 바람알로 좌정하게 된다. 그들은 한라산신 계열의 ‘높은 신’, ‘맑고 맑은 신’이 아니고 술일할으방, 짐씨할으방 등의 인격신이다. 그리고 직접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들의 신직이 ‘바당, 어부, 잠수를 차지’하고 ‘술과 함께 고기’를 먹는 것으로 보아, 해신이나 영감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어떤 신격이든 ‘돼지고기’를 취하면 부정해지고 열세한 입장에 놓이

153) 말고기를 먹는 전통은 몽고의 말문화 식습관의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조선조 때 나라에서 말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말고기를 부정하다고 인식한다. (정영평(남, 72세) 제보)

게 되며, 그로 인해 따로 좌정하거나 별거하게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돼지고기’ 금기 코드가 그만큼 당시 제주인들에게 ‘기억해야 할’, 그리고 ‘후세에 본을 보여야 할’ 이야기로 당신본풀이에 상징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식성 갈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을 가름할 만한 본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돼지고기를 취한 이들 남신을 부정하다고 하며 ‘바람알’로 좌정시키는, 신화에 나타난 여신 ‘송씨할망’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른 본풀이에 나와 있는 송씨할망의 모습을 보자.

옛날 이 마을 본향할망이/할로영산 씻어께서/무우유아 하여 탄생되는
/깡늬를 돌아서/산 앞 산 뒤를 다 돌고/삼방산 흥꼴로 들어/변내꼴로
나고/변내꼴로 올라(<사계본향 ②>, 안덕면 사계리, 534쪽)

해모살 송씨할마님은/한로영주산 어시성이로/단골머리로 줄이 번어/
당발 좌정하였다가/부정이 만만하여/ 해모살 금배릿돌알로 좌정한 송씨
할마님이두다.(<귀덕본향;해모살 송씨할망>, 한림읍, 565쪽)

할루영중 봉래 방장 삼심산/포아낭알로/이씨할망이 갈라전/입을 아우
연 시난/ 입테레 알매가 털어진 게/ 옥꼴 먹어지난/ 그게 유태를 가전/
열석달이 되어/난 건 보난/ 아들도 시성제 딸도 시성제 솟아나니/가지
갈라/ 일은 야답이 되난, 옷손당은 금백조/알손당은 모람장.(<손당본향
④>, 구좌면 송당리, 417쪽)

여기에 나타난 송씨할망은 한라산계 산신이며 때로는 남성 배우신이 없이 임신도 하는 대모신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인 김씨할으방은 송씨할망이 좌정한 마을에 들어가 함께 사는 인격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금기마련의 주체가 자연 한라산계 산신인 할망신이다. 이들 신화에 나타난 식성 갈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13,15,16>	<자료1~12/17~18>	<자료19-1,19-2>
금기 대상	돼지고기	돼지털이나 돼지고기	말
금기 파괴	남신/인격신	여신/인격신	여신/인격신
금기 마련	여신/한라산신계	남신/한라산신계	남신/개로옥섯도, 인격신
파괴 이유	바당 어부차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식욕	목마름
파괴 결과	따로 좌정함	별좌/ 귀양/ 살림분산	축출(버림)

위에서 보듯이 부정한 대상이 ‘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를 마련하는 주체는 남신이건 여신이건 한라산신 계열의 신이다. 한라산신 계열은 토착신이자 서열이 가장 높은 신임을 뜻한다. 그리고 남신이든 여신이든 돼지고기를 취한 신은 ‘부정하므로’, 쫓겨나 바람 알로 내려서거나 따로 좌정하게 된다.¹⁵⁴⁾ 따라서 결국 신화 텍스트는 ‘돼지’라는 동물과 부정 관념의 연관을 상징과 구조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부정 관념의 형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바당과 어부’를 차지한 성격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신이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식성 갈등이 가장 과격적으로 끝나는 자료 18을 보자.

서월이라 남대문 밖겼딜로 솟아난 허정신 따님애기 그 시절에 이 막실 선씨 영감이 초기진상 우미진상 나라에 진상갔단 오라가난 혼디 창옷설에 붙어온 신도본향 허씨할망 이 할망이 선씨영감광 살단 느시(아주 많이) 도새기괴길 먹구정 허연 할으방광 갈라산 사난 할망은 이디 굴쏘굽이서 살명, 즈손들크라, “나 이디 살당 내 아니나거들랑 도 막아 불라” 허난 할망이 죽으난 즈손들이 당설리허였수다 괴로우나 불펜한 일에 이 할망신디 강 빌민 좋아집네다. (<금덕본향;할망당> 애월면 금덕리, 606쪽)

이 본풀이는 서울 출신인 허정승 따님이 서울에 진상하러 온 현씨 영감을 만나 제주에 와서 살게 되었다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현씨 영감과 갈라서

154) 물론 19-1,2는 여신이 말굽의 물을 먹은 것이 축출의 이유가 된다. 부정하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산다는 내용이다. 그리고는 ‘굴쏘굽이서’ 살면서 연기가 아니 나거든 입구를 막으라고 하니, 거의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식성 갈등이 그만큼 본질적이면서 풀기 곤란한 난제였음을 알 수 있다. 허씨 할망이 다른 여신들과 다른 점은 혼자서 굴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다. 돼지털이든 혹은 돼지고기든 이로 인해 임신하거나 혹은 이미 출산한 여신들은 아이들에게 허물, 부스럼 등을 주며 단골들로부터 제를 받아먹으나 허씨 할망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돼지고기를 먹고 쫓겨난 다른 여신들은 일곱아기를 낳고 해안이나 바람알로 내려가서 단골을 거느리며 산육이나 치병신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여신은 현씨 영감의 첩으로 들어와, 임신이나 출산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식욕을 참지 못하여 현씨 영감과 갈라선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식성 갈등만 일으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등장해 비극적 생애를 살다가 죽은 후에 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둘러싼 갈등이 당시 제주민에게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커다란 갈등 없이 해안마을의 신으로 좌정한 행원 마을 남당 ‘중의또’는 본풀이와 함께 ‘중놀이’가 곳곳에 재현되어 전승되므로 관심을 끈다.¹⁵⁵⁾

북제주군 구좌읍에 속한 행원마을은 전형적인 반농반어촌이다. 이 마을에는 웃당인 본향당을 포함한 11개의 신격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남당 중의대사이다. 조선시대부터 소문난 포구가 있고 또 어장 조건이 천연적으로 뛰어나 어부와 해녀가 많은 이 마을에는 이들의 생업을 수호해주는 신이 넷이나 있다. 남당 할망, 할으방 부부신과 큰도안전큰도부인과 중의대사인데, 이들은 포구 안으로 드나드는 어선, 해녀, 어장 등 어업과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 모두 이 마을 해변가, 속칭 ‘남당’이라고 하는 곳에 돌담을 쌓아 마련한 당 안에 좌정해있다.¹⁵⁶⁾ 그런데 중의대사만은 석단을 따로 만들어 좌정해

155) 제주도의 곳 가운데에는 본풀이 내용과 관련된 놀이들이 제의 속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산신당본풀이에서 사냥놀이가, 영감곳에서 영감놀이가 행해지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돼지’ 고기를 먹어 당신이 된 행원 마을의 당곳에는 중놀이가 전한다.

156) 고헌민, 위의 논문, 216~217쪽.

있는데, 다른 신들은 모두 부정한 음식, 곧 돼지고기를 싫어하지만, 중의대사만은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고 신앙민들로부터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봉제받는 여타의 신들에 대한 본풀이는 전하지 않지만, 유일하게도 중의대사 신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전하고 있다¹⁵⁷⁾는 사실이다. 본풀이가 특별히 공동체에, 그리고 후손에 ‘전해주어야 할’ 구비역사라는 점에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본풀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의대사의 아버지나라는 강원도요, 어머니 나라는 철산이다.
- ② 중의대사는 당과 절이 피란되어 제주도에 들어온다.
- ③ 조천마을 정중부인에게 좌정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다.
- ④ 북촌마을에 와 백일을 지낸다.
- ⑤ 김첨지 영감의 환갑잔치날에 돼지육수에 만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는다.
- ⑥ 제주에서는 중도 고기를 먹느냐며 그 마을을 떠난다
- ⑦ 행원마을 청청이로 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 ⑧ 오분작할망의 소개로 문씨고냥할망과 함께 좌정한다.
- ⑨ 어느날 조가 무성한 것을 보고 흥년이 들게 한다.
- ⑩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절이 없으니 당으로 좌정하겠다고 한다.
- ⑪ 남당하르방은 중의대사가 고기 먹은 것을 알고 떨어져 좌정하게 하고 배, 해녀, 어장을 차지하라고 한다.

중의대사는 말 그대로 중이며 이주신이다. 제주에 피란을 와 겨우 북촌에 좌정하다가 마을에 흥협을 주어 남당에 좌정하게 된다. 그러나 남당하르방은 중의대사가 돼지고기를 취했음을 알고 떨어져 좌정하게 한다. 이 중의대사의 직능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배, 해녀, 어장을 차지하여 보살피는 것이다. 문무병은 이에 대해 중의대사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승려로서의 계율을 파기하고 무속당신이 되었다며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며 육식을 삼가는 것보다

157) 고헌민, 위의 논문, 217쪽.

승려의 직분을 포기하고 마을의 당신이 됨으로써 배고픔을 해결하고 돈육공회를 받게 된 당신 편입의 신화라고 하였다.¹⁵⁸⁾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매해 10월 15일 대제는 알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 들판에서 올리는데, 마을의 모든 공동수호신들을 청하여 기원하는 의례이다.¹⁵⁹⁾ 초감제, 예명올림에 이어서 마을 공동신을 청해들이는데 중의대사만은 제외된다고 한다. 맨 나중에 중의대사는 이 알당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전과정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 이 극적 행위 일체를 중놀이라 한다. 본풀이의 내용대로 신화의 모의적 행위가 재현되는 것으로 연물소리가 울리며서 신앙민들이 두 손에 들고 있던 떡들을 중의대사의 자루 속으로 넣어주고 중의대사는 춤을 추고 놀이는 끝난다.

이 마을에 다른 신의 본풀이는 전하지 않는데 중의대사본풀이만 전하며, 또 중놀이까지 곳곳에 재현되어 전승되므로 주목된다. 게다가 중이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도 이채롭다.¹⁶⁰⁾ 이는 부정하다고 여겨온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진 중이어서 마을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마을의 당신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마을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문화적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 ‘부정해진 신’을 마을의 다른 신들과 함께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당신들의 본풀이는 사라지더라도, 이 중의대사본풀이는 마을사람들에게 계속 구술되고 그 놀이는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져서 다른 신과 따로 좌정한 점, 돼지고기를 취하는 다른 신들처럼 중의대사 역시 바다, 어부, 해녀를 차지한다는 점들이 돼지고기 금기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158) 문무병, 앞의 논문, 227쪽.

159) 이 논의에서는 고광민의 앞의 논문(1987)을 참조하였다.

160) 이것은 제주시 삼도동 <각시당>의 옥황상제 말쑤딸이 중의 모습으로 인간세상에 내려와 불도의 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모두 제주의 무속과 불교의 습합으로 볼 수 있다.

IV. 식성 갈등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

1. 날고기, 육식 및 농우 갈등의 문제

앞장에서 식성 갈등을 둘러싼 갈등 중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남신이 날고기를 먹는 경우, 육식을 하는 경우, 농우를 잡아먹는 경우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히 날것을 기피하는 내용의 본풀이와, 농우를 잡아먹은 것에 대해 살림을 분산하자고 나서는 본풀이가 함의하는 문화적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날것을 먹는 남신에 대한 기피를 보이는 여신은 중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거나 타작을 하는 것을 보고 반한 미식의 여신이다. 이 여신은 ‘날뽕내나 날뽕내’를 부정하게 여겨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좌정처를 옮기거나, ‘따뜻한 간과 따뜻한 피’를 먹는 남신을 바람알이나 서편으로 좌정케 한다. 혹은 자신이 아예 다른 곳으로 좌정처를 옮기기도 한다. 여신이 ‘날뽕내’를 기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한라산신들이 ‘날뽕내’가 나는 육식, 즉 생육식을 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생육식을 한다는 것은 ‘불’을 이용하지 않는 수렵사회를 배경으로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타작질에 반한 여신은, 농경의 풍요로움과 미식의 깨끗함을 아는 신이다. 따라서 보다 문화화 된 삶의 방식을 가진 여신이, 자연과 우연에 기대는 삶의 방식인 수렵생활을 하는 남신과 함께 좌정하거나 결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⁶¹⁾

안덕면 사계리의 사계분향은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할오방이나 할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인격신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실제 수렵인들이 농경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와 과정을 보여준다.

옛날 이 마을 본향할망이 할로영산 셋어깨서 무유아 흥여 탄싱되는
깡죽을 몰아서 산 앞 산 뒤를 다 돌고 삼방산 흥꿀로 들어 번내꿀로

161) 마빈 해리스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에는 곡물이 식사의 열량이나 단백질에서 차지하는 양은 아주 적었으며, 곡물이 인간의 주요 식량이 된 것은 농경이 시작된 후로 겨우 1만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5, 51쪽).

나고, 번내꼴로 올라 삼방굴사 머리로 느리곡, 하명 깡죽을 몰아두서
 칠랴고 하여, 상예리 당문에 오라서 깡죽을 심어 거기서 설 빠 먹고
 이수암동산에 올라서 보니, 그 앞이 눈을 박아시민 아주 부유호염직
 하여, 그 할망이 눈을 다 박아서 집을 지어 논밭 버실명 천하 거부 알
 부제로 살아지여. 흐를날은 중이 와서 “권제를 도라”하니 “너네덜은 왜
 권제를 받으레 댕이느냐?” 하니, “어루와서 권제 받으레 댕입네다.” 하
 니, 할망은 또시 “어루움이 뵈이냐?” 하니, “귀염 천흠을 아옵소서.” 하
 여 “귀염 천흠이 뵈이냐?” 하여 “귀염 천흠을 알고프건 되 아흠, 말 아
 흠, 흠 아흠 푸는 체 아흠을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올래까지 문 열어
 놓왕, 그 우로 매일 아침 바라가곡 바라오곡 흡서. 경흐민 귀염 천흠을
 앓네다.” 그제는 할망이 되 아흠 말 아흠 흡 흡 아흠 푸는 체 아흠을
 문 열어 놓고 그 우로 매일 아침 바라가곡 바라오곡 하니 난디웃인 대
 풍이 불어서 모래판이 문어져 바당물레레 느리니 논밭은 그만 판나,
 승년이 지니, 이젠 할망은 동넛 사름들을 불러서 버실단 논밭을 다 갈
 라주어두언 죽으니, 동니에서 이 할망을 본향으로 위홉네다.¹⁶²⁾

이 본풀이에 등장하는 할망은 할로영산 셋어깨에서 태어난 토착신이다. 할
 망은 사슴을 잡기 위해 앞산 뒷산을 다 돌고,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사슴을 쫓
 다가 중문면 상예리 신당문에 와서야 사슴을 잡고는 피를 뽑아 먹는다. 할망
 은 그야말로 수렵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서사구조가 거의 비슷한 <큰물
 당> 할으방은 아흔아홉골을 다 돌며 산방굴로 내려와서 사계리 신당소재지로
 와 산돼지 삼백마리를 잡아서 피를 뽑아먹는다. 여신이든 남신이든 한라산신
 은 사냥을 하며 날피나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으방이 산뿔
 삼백마리의 피를 뽑아 먹는 것에 비해, 할망이 사슴 한 마리의 피를 뽑아먹는
 것은 대식을 하는 신격이 남신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들 할망, 할으방은 ‘부유함직한 곳’-농사가 잘될 만한 곳에 논밭을
 경작해 천하거부가 된다. 그러자 시주를 받으러 온 중이 귀함과 천함을 깨닫
 도록 하는 불교의 메시지를 주고 간다. 홍수나 바닷물이 들어 논밭을 휩쓸고
 가자 할망과 할으방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경작하던 논밭을 다 나누어 주고

162) 진성기, 앞의 책, 534쪽. 사계리 <큰물당>의 본풀이도 위와 같으나, 큰물당 조상님께 한
 해에 한번씩 ‘나룩 한 뭇’씩을 다 갖다 바친다는 내용이 더 붙어 있다.

죽어 동네 사람에게 의해 본향신으로 모셔진다.

이 본풀이는 사냥하는 것보다 농사짓는 것이 더 풍요로운 수확을 얻는 일임을 보여준다. 사슴이나 산뿔을 잡는 일은 한라산 아흔아홉골을 다 돌면서 사냥감을 이리 저리 몰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할망과 할으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사를 선택했다. 이는 수렵생활보다 농경생활이 더 진전된 것이며, 사냥하는 토착민들 역시 농경생활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농우를 잡아먹어 갈등하는 송당계 본풀이와 달리, <세화본향>에서는 천자또와 금상이 육식으로 갈등하는 것과 백주또가 누룽내가 탕친한 명동소천국과 갈등한다. 먼저 천자또와 금상의 식성 갈등은 금상이 전에 먹던 육식을 참다가, 이로 인해 피골이 상접해져 천자또가 돛제를 허락하며 해소된다. 이로 보아 이 당시만 해도 돛거름을 생산해내는 농경적 가치를 돼지가 부여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의 갈등은 백주또가 명동소천국의 소뿔, 말뿔이 가득한 집을 보며, ‘소도독놈 아니냐 말도독놈 아니냐’ 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명동소천국이 백주의 손목을 잡고 백주가 이를 깎아내 천자또가 노하여 세화리와 평대리를 분리하는데, 이의 궁극적인 원인은 소와 말을 잡아먹는 명동소천국과 미식의 신인 백주또의 식성의 차이에 있다. 삼성신화에서 보듯이, 소와 말은 세 신녀가 오곡과 함께 가져온 것으로 농경이나 목축의 자산이다. 따라서 사냥꾼신인 명동소천국이 이를 잡아먹음은 농경이나 목축문화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세화본향>의 다섯 개 이본에 명동소천국의 집이 ‘쇠뿔, 말뿔이 실그락하다’는 화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이 화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목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세경본풀이의 목축신인 정수남이 소와 말 18마리를 산에 풀을 먹이러 갔다가 모두 잡아먹는 것처럼, 명동소천국 역시 수렵과 목축의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남신이 농우를 잡아먹어 갈등을 일으키는 <송당본향>은 ‘날것’을 먹는 단계나 그저 육식하는 단계보다는 더 발전된 단계에 접어든 신화이다. 날것을 먹는 신들의 경우, 그 대상은 산뿔이나 사슴 등 대체로 산짐승이다. 그런데 <송당본향>의 소천국은 농우를 잡아먹는다. 밭 갈던 소를 잡아먹은 것은 소천국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대식가인 점도 있지만, ‘농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¹⁶³⁾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백주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냥을 했던 수렵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당본향>에서 소천국과 백주또가 이렇게 식성 같등으로 살림을 분산하게 된 것은,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 당신본풀이에서 날고기를 먹든, 농우를 잡아먹든 육식의 남신과 미식의 여신 사이에 일어나는 같등은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집단 간의 마찰이나 같등이 표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렵이나 목축문화에서 음식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 농업문화에서는 농경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이들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같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⁶⁴⁾ 또한 육식의 대상이 날것에서 육식, 그리고 농우로 차별화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문화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신화의 파편이 아닌가 한다. 사냥꾼이었던 할으방이 생업을 농사로 바꾸고는 많은 땅을 마을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준 이후로 안덕면 사계리 마을사람들이 큰물당 조상인 할으방에게 나락한 묶음씩을 제물로 바치며 그 의례를 행해온 것은, 수렵에서 농업으로 전환하고 비로소 마을의 정체성과 안정된 삶을 이룩한 마을 사람들의 집단 인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대식, 식욕과 그 상징적 제재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대식성의 신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송당본향>에 나타난 소천국, <세화본향>에 나타난 금상¹⁶⁵⁾, 그리고 송당계 본풀이의 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왓당>의 천자또, 중문면 <중문본향>의 한집 등이다. 이 신들

163) 고광민은 소천국이 농경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농우를 잡아먹어 버림으로써 부부신 사이에 약속된 농경 정착 생활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앞의 논문, 1983, 141쪽).

164) 수렵, 목축 문화와 달리 농경문화에서는 소나 말이 농경적 가치를 가지므로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기 힘든 것과 관련이 있다. 마빈 헤리스, 앞의 책, 25~28 참조.

165) <세화본향>에 등장하는 금상은 ‘밥도 장군, 술도 장군, 피기도 장군’인 대식가이나, 대식보다는 육식성에 의해 천자또와 같등을 일으키는 만큼 이 논의에서 생략한다.

은 용왕국의 네 창고를 모두 비우거나, 열여덟 동이의 밥과 국을 다 먹거나, 소도 돼지도 통째로 먹거나, 소 두 마리를 단번에 잡아먹을 정도로 대식가이다. 이 신들이 대식성을 드러내는 계기나 장소, 그로 인한 결과 등도 비슷하다.

일단 이 신들이 대식성을 드러내는 곳은 자신의 출신지가 아니고 타지이다. 송곡성이나 천자또 등은 용왕국에 들어가서 대식성을 드러낸다. 원래 사냥질을 하며 살다가 백주또와 결혼한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은 한라산 밑 ‘오봉이굴왓’ 밭을 갈다가 대식성을 보이며, 삼신산 중은 소천국이 밭가는 것을 구경하고 지나가다가 대식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대식성을 드러내는 곳이 그 신격의 원형 혹은 생활터전과는 다른 이계였다는 사실은 대식성이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힘든 것임을 반영한다. 특히 용왕국은 제주인에게는 풍부한 먹을거리가 보장된 바닷속 세계이다. 실제 어부나 잠녀는 사계절에 걸쳐 물고기나 미역, 기타 여러 해산물을 바다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하루에 75마리의 소를 먹을 정도인 신들의 대식성은 용왕국의 네 창고를 모두 비우게 할 만큼 위협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신들이 결국은 그 세계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된다. 신들의 대식성은 수용되지 못하며, 또 다른 세계로 이 신들을 쫓겨나게 하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 열여덟 동이의 밥과 국을 모두 먹은 삼신산 중의 대식은 소천국이 농우와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소천국은 이로 인해 백주또와 살림을 분산해 알송당으로 내려서게 되는 것이다. 대식성으로 인한 쫓겨남의 화소는 제주사람들이 대식성을 경계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동창 서창래를 알리라 해서, 다 팔대문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다 소비시켜서, 잘 석달 열흘 흥올린 대잔치를 시겨라. 그래서 이젠 석달 열흘을 대잔치를 한 거주. 췌잡아도 휘양놀이 지판자를 걸쳐놓고 득잡아도 죽은 득에 비자득을, 산 닥에 위턱을 풀어서, 산 췌 잡아 휘양놀이 지판자를 걸쳐놔서 석달 열흘 맥이단 보니, 텅텅 비여, 아무 것도 없어 옛날 같으면 먹는 것에도 망흐주게. 다 이젠 스칸드레 시습하게 되연 망흐단 말이여. 아 이젠 죽은 딸 보고 널로 얻은 시름이니, 너의 팔재 인연에 태운 손님은 널로 얻은 시름이니, 데령 나가라. 더 이상 막아볼 수 웃다.¹⁶⁶⁾

위의 증문면 본풀이는 바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용왕국에서도 송곡성류의 대식성은 수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 잡아 석달 열흘동안 사위를 대접하니 용왕국 창고가 모두 비어간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의 화자는 ‘옛날 같은 먹는 것에도 망하주게’라고 말하며 옛날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해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식성이 제주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것이고, 따라서 본풀이 내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식성은 맘껏 먹지 못했던 궁핍한 제주인들의 식욕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흔 들에 개역 시 번, 즈배기 시 번 흐민 집안 망한다’는 제주의 속담은 그들의 검소한 식생활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민들 대부분은 무찬반상, 또는 침액을 내기 위한 염기로서 ‘출래’라는 1찬 반상이 고작이었다.¹⁶⁷⁾ 실록에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제주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종종 나오고,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쌀을 실어다 나르도록 하나 어떤 경우에는 바다에 침몰하여 기근으로 고생하는 제주인들을 구제하지 못한 기록이 나온다. 제주의 기근과 관계되는 몇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운(李耘)이 치계하기를,

“본주(本州)는 세 고을인데, 암석(巖石)이 많고 토질이 척박한데다가 특트인 큰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풍재(風災)나 한재(旱災)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흉년을 만나면 이를 진구(賑救)할 계획도 없습니다. 정의(旌義)·대정(大靜) 지경의 노는 땅에 둔전(屯田)을 개척, 곡식을 심어 흉년 진구에 대비하게 해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⁶⁸⁾

제주 목사(濟州牧使) 장임(張琳)이 방어 절목(防禦節目)을 조목조목 들어서 치계하기를, (중략) 8. “금년은 풍우가 매우 사나와서 바닷물이 달려서 벼와 곡식이 말라 손상되어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구휼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매우 많은데, 긴요한 군량을 먼저 풀어 줄 수도 없으니 구휼이 어렵습니다.”하니, 명하여 방어청에 내렸다.¹⁶⁹⁾

166) 문무병, 앞의 논문, 280쪽.

167) 송성대, 앞의 책, 146쪽.

168) 중종 41권 16년 3월 8일 / 제주 목사 이운이 정의·대정 지경의 노는 땅에 둔전을 개척하여 진구에 대비할 것을 청하다/ 【원전】 16 집 21 면.

제주에 기근과 흉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던 것은 암석이 많고 토질이 척박한 데다 바닷물이 밀려와 풍재와 한재가 쉽게 일어나는 지리적 환경 때문이다. 흉년이 들면 규휨할 계책이 없어 둔전을 개척하기도 하고 제주의 토산물인 소와 곡식을 교역하기도 하고¹⁷⁰⁾, 나라에서 규휨미를 보내주기도 했다. 실록에서는 제주에 전염병이 돌면 약물을 보내고¹⁷¹⁾, 구호미 1만 1천석을 실은 배 5척이 파손되어 다시 구호미를 보내는 일도 있었고,¹⁷²⁾ 제주의 기근을 대비해 나리포에 곡물을 마련해두기도 하는 등¹⁷³⁾ 제주도민의 굶주림을 구휨한 기록이 산재하고 있다.¹⁷⁴⁾

이렇게 흉년이 자주 들고, 기근에 굶주리며 종종 육지의 구호미에 의존하던 역사는 제주 사람들로 하여금 아껴 먹고 절약하는 정신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듯, 제주사람들은 돼지나 소고기 등을 실컷 먹고 싶은

169) 중종 12권 5년 9월 16일/ 제주 목사 장임이 방어 절목 여덟 가지를 들어서 치계하니 방어 청에 내리다/ 【원전】 14 집 462 면.

170) 선조 82권 29년 11월 4일 / 정원에서 호마의 무역에 관한 사복시의 의견에 대해 아뢰다/ 【원전】 23집 92면./정원이 사복시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호인은 소로 말을 바꾸고 다른 물건은 은이나 청포(靑布)라도 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농경에 부적합한 소 수백 마리를 들여보내면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에는 소가 매우 많고, 그 지방은 현재 기근에 시달리므로 쌀 몇 섬이면 소 여러 마리를 살 수 있으니, 이제 해사(該司)의 보병 가포(步兵價布) 두세 동(同)이나 또는 훈련 도감의 목화 1천여 근(斤)과 훈련 도감에 저축된 양호(兩湖)의 소금 2~3백 석을 전라도에 내려보내어 곡식이 천하여 값이 짠 이 때에 백성에게 나눠 주고 쌀을 거두어 운반해 들어가 제주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어서 소로 바꾸면 피차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171) 숙종 55권 40년 8월 16일 / 여역이 크게 유행한 제주도에 약물을 보낼 것을 명하다/ 【원전】 40집 536면.

172) 정조 42권 19년 윤2월 3일 / 제주 목사 이우현이 곡식을 실은 전운선 5척이 파손된 일을 치계하다/ 【원전】 46집 556면.

173) 영조 30권 7년 12월 7일 / 제주 구휨에 나리포 쌀을 급송하다/ 【원전】 42 집 289 면/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로부터 매양 해도(海島)를 진념(軫念)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우려러 백성을 구휨하는 덕의(德意)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리포의 곡물(穀物)은 본래 제주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아마 시기를 놓치는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니, 2천 곡(斛)을 속히 운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74) 숙종 54권 39년 10월 4일/ 흉년을 당해 진휨에 힘쓸 것을 하교하다/ 【원전】 40 집 518 면
숙종 58권 42년 11월 17일 / 호남의 강도미와 어영청의 호남 연해 군보미를 옮겨 제주를 구휨하게 하다/ 【원전】 40 집 618 면.

영조 113권 45년 11월 10일 / 제주에 기근이 들어 1만석을 주다/ 【원전】 44 집 337 면.

육구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대식성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결국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신화텍스트에 나타난 대식성은, 제주의 척박한 현실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충족되지 못한 식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식성은 자주 육식성과 맞물려 있다.¹⁷⁵⁾ 송곡성이나 내왓당천자 또 등이 용왕국에 있을 때 요구하는 음식은 모두 소, 돼지, 닭 전(全)마리로 육식을 기본으로 했다. 또 밭 갈던 농우를 잡아먹은 소천국이나 고기도 술도 장군인 금상 역시 육식성이다. 따라서 이들 신들이 보이는 대식에의 육구는 한편으론 육식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마빈 해리스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는 수렵채집사회에서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갖가지 문화들이 동물성 식품에 대한 비슷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며, 고기를 갈망하는 원주민들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¹⁷⁶⁾ 그런데 농업사회에서는 동물성식품을 생산하기 힘들다. 제주도는 신라시대 이전부터 화전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져왔다¹⁷⁷⁾. 그리고 화산회토의 자연 환경에 의해 소나 말로 밭을 밟히는 진압농법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농업환경은 소나 말을 쉽게 도축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¹⁷⁸⁾

제주에선 몽고의 지배 이후 소와 말, 그리고 양과 당나귀 등이 사육됐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몽고의 지배 하에 있을 때에는 사육된 말, 양, 당나귀 등이 모두 원나라로 보내졌고 고려와 조선왕조에 복속된 이후에는 국가에 진상되어, 실제 제주인들이 이들 말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175) 당신본풀이의 대식성이 근본적으로 육식성과 연결되는 것은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목축의 신 정수남은 아홉 마리의 소와 아홉 마리의 말을 끌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에 소와 말들을 모두 묶어두고 잠이 들어, 소와 말을 모두 죽게 한다. 그러자 불에 구워 18마리의 우마를 모두 잡아먹는다.

176) 마빈 해리스,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5, 29~33쪽.

177) 김상호, 「한국 농경 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4집, 서울대학교, 1979, 96쪽.

178) 물론 이는 한반도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조선 중, 후기에 들어 소를 도살하는 일이 빈번하여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다(세조실록 41권 13년 농우 도살 금지에 대한 양성지의 상소문 참조).

대식을 보이는 신들은 대체로 남신격이다. 중문면 중문본향의 경우 석함에 버려진 아기는 딸아기이나, 이 아기는 용왕국에선 남장을 하고 남자 행세를 하며 용왕의 말갯딸과 결혼을 하는 데, 이는 본인이 여자인 것을 잊어버렸기에 가능했다.¹⁷⁹⁾ 대식의 설정도 남자라는 가정하에 따른 것이다. 당신본풀이 가운데 여신이 대식성을 보이는 것은 없다.¹⁸⁰⁾ 따라서 ‘대식성-육식성-남신’의 연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신들의 ‘대식’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대식은 곧 육식을 전제로 하며 이 식성은 바꾸기 힘들며, 또한 대식은 신의 비범함이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때로는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본풀이 안에서 대식성은 거부되는 속성이다. 대식성의 신들이 쫓겨나는 모습은 결국 현실사회에서도 이 대식성은 받아들여지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렇게 ‘대식’하는 신들은 ‘얻어먹는 신’이란 점이 일찍이 주목됐다.¹⁸¹⁾ 삼신산 중도 그렇고, 케네깃또나 송곡성류도 그렇다. 소천국 역시 남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비슷한 상황이다.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는’ 제주인의 식음문화로는¹⁸²⁾ 이 ‘대식성’을 용납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신화텍스트에서 대식은 항시 수용되지 않고, 이 대식의 신들을 또 다른 갈등이나 또 다른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9) 본풀이 가운데 ‘요왕의서 일단 결혼하여 나온 딸은 아차 불쌍, 내가 여준디 남자로 출렁 나산 걸 몰란 딱흔 입장결혼을 해졌구나.’하는 대목이 나온다(문무병, 앞의 논문, 1993, 283쪽).

180) 신화적 전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거구의 설문대할망은 물론 대식가이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에는 대식가인 여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의 이본 두 편 가운데, 사냥꾼인 할망 할으방은 모두 산록을 잡아 생피와 그 고기를 먹는데, 할으방은 각록 3백마리를 잡아 먹는 반면 할망은 한 마리를 먹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대식-육식-남신이 의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81) ‘대식하는 신들은 결국 얻어먹는 신으로 전락한다. 대식하려는 욕망은 좌정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좌정은 신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배고픔의 욕망이 죽어서야 보상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55쪽).

182) 송성대, 앞의 책, 149쪽.

3. 돼지고기 금기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1) 부정의 개념과 돈육 부정 관념의 형성

식성 갈등의 모티프에서 ‘부정’은 ‘맑고 맑은’과 대립관계에 있다. 육식을 하는 신에게 쏟아지는 ‘투 더럽다’, ‘부정하다’, ‘동경내 나다’ 등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신성’에 어긋나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신성은 ‘성스러움’으로 신에 대해 우리가 갖는 제 1차적인 관념이다. 메리 더글라스는 성스러움의 어원이 ‘격리함(set apart); 분리함’에 있으며, 성스러움은 신의 속성으로 완전성이 성스러움의 구현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신성과 혐기 사이에는 개개 규제 의미를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대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⁸³⁾

성스러움은 개인이 그들 각각이 다른 범주의 사물이 뒤섞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스러움은 각기 다른 범주의 사물이 뒤섞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중략) 신성함은 천지창조를 할 때 범주를 명확하게 구별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스러움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정의, 구별과 질서를 의미한다. (중략) 결국 성스러워지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스러움은 개인과 종의 통일이며, 완전성이며, 완벽성이다. 음식의 율례는 이것과 같은 선상에서 성스러움의 비유를 확장시킨 것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동물에 있어서 청결한가를 논하는 기본 원칙은 동물이 그 종속의 특징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어떠한 종속의 특징을 불완전하게 가진 구성원이거나 혹은 그 종속 자체가 세상의 일반구조를 혼란시키는 종류는 부정한 것이다.

더글라스는 이어서 금지된 동물에 대한 이런 제안이 옳다면 음식 규범은 때면 신의 통일성과 순수, 그리고 완전성에 대해 명상할 것을 고취하는 표식과 같았을 것이라고 한다. 기피의 규율에 따라 모든 동물들을 접촉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기피의 규범에 의하여 성스러움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신전에서 행하여지는 공회에서 최고에 달했으며, 인지와 예배라는 중대한 전례 행위의 의의 있는 한 부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¹⁸⁴⁾

183) 메리 더글라스 저,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협』, 현대미학사, 1997, 87쪽.

결국 더글라스에게 ‘성스러움’은 ‘다른 범주의 사물이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자기 종속의 특징을 온전히 지닌 것’, 그리하여 ‘세상의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성스러움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며 ‘제의의 의의 있는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더글라스의 이러한 개념에 의거해 제주인이 갖게 된 돼지에 대한 부정의 개념과 이 관념의 생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경내라고 혀는 것은 돼지 살찌며는 살이 막 기름 있잖아. 기름지 각허며는 요샌 그 기름 던져 불잖아. 그런 것에 내가 나. 그러니까 동경내라고 나서 본향에 갈 때는 동경내 난 사름 오지 말라. 가며는, 아이구 동경내들 다 쓰라 없어지라고, 막 물로 시치는 것을 허면서. 물 적셔 가지고 이렇게 아니 허더냐. 대쪽으로 말로 막 뭐라고 허면서 동경내두 없어지라고, 구진 것 털 다 없어지라고 경 현다.¹⁸⁵⁾

옛날엔 나무위에 영 매달아 돼지고기를 먹었신디, 긱을 한다고 하면, 아멩이라도 부정탄덴. 돼지고기를 잡거나 집에 그래 걸어 놓거나 하민 부정이 다 그리가부난, 긱 할뎨 괴기를 안 잡았주. 심방들은 돼지고기는 무조건 싫어하라. 보통 사람은 안 그런디. 그냥 그런디.¹⁸⁶⁾

제주도 무속에선, 특히 심방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하게 여긴다. 그런데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오늘날 제주에서 ‘맑은 신’을 모시는 신당의 단골들은 제일을 며칠 앞두고 돼지고기를 금한다. 뿐만 아니라 죽은 쥐나 고양이, 개 등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보지 않는다. 제사일에는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말고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으며, 결혼과 장례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는 말추렴을 하지 않는다. 또 긱이나 고사를 앞두고는 돼지고기나 자리젓을 먹지 않는다.¹⁸⁷⁾ 이렇게 당에 갈 때 ‘부정하거나’, ‘긱은’ 것을 꺼리는 것

184) 메리 더글라스, 앞의 책, 94~99쪽.

185) 한희와(여, 79세) 제보.

186) 현재복(여, 69세) 제보.

187) 자리젓은 ‘자리’라는 물고기로 담근 젓갈로, 제주 사람도 그 냄새가 몹시 비린 것을 인정한다. 강소전의 『제주도 잠수긱 연구』(제주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2005, 39쪽)에도, 김녕리의 사람들이 잠수긱 등 일련의 긱을 할 때 자리젓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은 그 당에 좌정한 신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돼지고기를 안 쓰는 본향이야. 여기는 돼지고기를 안 쓰는 본향이야. 이 본향은, 여기는 돼지고기를 쓰면 부정타는 본향이라브난. 신 앞에만 경허고 신 뒤에는 경 안하고. (수산올레마루당은 부부신이 있는 거예요? 여신은 어떤 신이에요) 난 이디저디 안 당기나네. 우리 단골들 일만햐주. 난 온평리에 우리 단골들 일만하고. 부부신이면, 여신이 어떻다, 남신이 어떻다는 걸 선생님이 안 골아주고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부난 난 그걸 답변 헤질 못허주.¹⁸⁸⁾

(돼지고기는 왜 제물로 안 올리세요.) 송당 때문에 안 해신가. 웃송당 알송당 왜 알송당 서로 좋지 않아서. 남군은 그것 때문에 서귀포부터 여까지는 돼지고기 일체 못 쓰는 거.¹⁸⁹⁾

그런데 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혹은 싫어하는 음식은 ‘본풀이’보다 심방들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산읍 온평리 큰심방은 스승인 당맨심방이 젊어서 갑자기 죽어 당신본풀이를 전수받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의 내력을 모른다. 그러나 이 당이 돼지고기를 쓰면 부정타는 본향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는 물론 단골들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성산읍 고성리 오용부 심방은 돼지고기를 일체 제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연유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이 단지 송당신화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그런데 세화리 큰심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돼지를 삶았을 때 나는 동경내가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 돼지 동경내라고 하는 거는?) 괴기내, 동경내라는 건 돼지괴기내. (아. 돼지고기 냄새? 돼지고기가 부정한 게?) 동경내가 부정한 거주게. 그 괴기가 살망 건져¹⁹⁰⁾내면 냄새를 팡 하지게.

188) 성산면 온평리 큰심방 강금자(여, 65세). 온평리 큰심방으로 수산, 신양, 온평, 고성 일대를 당맨심방이다. 수산본향을 매고 있으나 먼저 큰심방이 일찍 돌아가서 본풀이를 전수받지 못했다. 따라서 수산본향의 본풀이는 전승되지 않고 끊긴 셈이다. 물론 제의는 행해지고 있다.

189) 성산읍 고성리 오용부 심방(남, 45세) 제보.

돼지고기가 왜 부정한지, 어떤 신은 왜 돼지고기 금기를 만들며, 어떤 신은 이를 깨뜨려 갈등을 빚는지, 여기에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는 의문은 면담조사로 풀기에 한계가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한편, 제주인들의 신성함, 혹은 부정함에 대한 관념은 그들의 속담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산뒤왓뒤 똥 아니 싣다(벼밭에 똥 아니 싣다)¹⁹¹⁾

°콩밭에 똥을 싸민 배락 마진다.

°본향에 갈 때 비린 걸 먹영 가민 부정탄다(본향당신을 위해 갈 때에는 꺼린 음식을 먹고 가면 부정탄다)

°본향에 갈 땐 해천 브래지 아니혹곡 질카당 동니 사름을 만나져도 속숨혹영 지나간다(당신을 위해 정성드리러 가는 길에서는 아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간다)

°본향에 갈 쓸을 고망개 맥이민 뇷다(본향당신을 위해 간직해 둔 쌀을 쥐가 먹게 되면 불길하다)

°비린 사름은 당에 못 간다¹⁹²⁾

°칫간(통시)에 가 온 낭 못짓나.(변소에 갔다 온 나무는 못 췌다)

°칫간 튼은 돌은 한간(상방문) 냉기지 말라(변소를 마루방 앞에 하여 옮기지 말라)

°돛통담으로 집을 짓이민 사름이 죽은다(돼지우리돌담으로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

°디딜팡에 갈래죽 세우민 그 해 그 집의 용시 안 된다(변소의 디딜돌에 삽을 세우면 그해 그 집의 농사가 안 된다)

190) 구자면 세화리 큰심방 오인숙(여, 81세) 제보.

191) 진성기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일상에 있어서 대개 주식은 잡곡으로 하고 쌀은 귀히 여겨 조상의 기일제사와 생일날 등 유달리 뜻이 있는 날에만 아껴서 먹었다. 그래서 벼, 즉 쌀은 우선 조상신을 위하게 되며, ‘곤쌀’이라 하여 아끼게 되는 만큼 벼밭에다 똥을 싣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속신에서 이르는 말이다(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2, 372쪽).

192) 진성기, 위의 책(240쪽)에 ‘꺼린 사람은 신당에 못 간다’는 말이다. 여기서 꺼린다는 것은 부정탄다는 말이고, 정결치 못함을 뜻한다. 대개 초상난 집에 드나들었거나, 피를 보았거나, 짐승 죽은 것을 보았거나, 또는 개고기 말고기를 먹었거나 하면 비리는(꺼린) 것으로 속신된다. 이렇듯 정결치 못한 신분으로 당신을 뵈게 되면 신의 노여움을 사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속담에서 보이듯, 제주인들은 벼밭이나 콩밭에 ‘똥을 싸지 않게’ 금기시켰다. 왜냐하면 올벼나 콩밭은 ‘삶’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여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벼와 콩은 ‘귀한 것’이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인에게 ‘본향당’은 마을을 차지한 신성한 토주관의 좌정처이다.¹⁹³⁾ 따라서 본향에 가서 ‘비린 걸’로 냄새를 피우거나 본향 가는 길에 그 어떤 ‘깨끗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곤란하므로 앞만 보고 가거나 향을 들고 본향에 가도록 언술로 금기시킨다. ‘칫간(통시)’ 역시 일차적으로 냄새가 나는 불결한 곳이므로, ‘칫간’에서 나온 들은 상방을 향하게 하지 않고, ‘칫간’에서 쓰인 나무로는 불도 때지 않는다. 결국 ‘부정한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본능적인 감각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연을 문화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련의 삶의 방식이나 질서 속에 어긋나는 것들이, ‘부정함’의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 ‘문화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관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한 사회의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한집이 도너르서 신임신중또 말젓뜰애기 훗처를 삼아서 신희
 당팓 좌정혀서 “앗이민 매감내(인물냄새) 스민(서면) 냇내 나 추접혀
 다. 개 돼야지 발 씻인 물이 이시니 추접혀다” 이제 제지기 뒤에 새가
 림을 오라 좌정혀였더니.(〈조노깃당〉, 서귀읍 보목리, 495쪽)

위의 본풀이는 개나 돼지에 어떤 문화적 의미가 덧붙여지기 전에, 이들이 일차적으로 ‘더러움, 추접스러움’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동물임을 보여준다. 돼지는 잡식성이다. 그리고 돼지를 거세할 때나 삶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난다. 또한 진흙이나 아무데서 똥구는 습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돼지에 어떤 부정적인 관념이 문화적으로 덧씌워진 것일까. 첫째는 제주의 돼지가 똥돼지라는 점이다. 당신본풀이 속에서 ‘돼지’는 ‘남당아

193) 당의 신성함을 다음과 같은 금기 언술로 나타내고 있다. °당폭낭글 거실민 천벌을 받는다 (신당의 팽나무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 °귀신을 위찬혀 갈 땐 앞테레만 고추 브래명 가사 한다(귀신을 대접하러 갈때는 앞만 곧장 보면서 가야 한다.)

래 너발 달린 흑사추물' 이나 '디딜팡 아래 흑사추물', 혹은 '통시 안의 돛'으로 지칭되어 통시와 의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제주의 똥돼지는 돼지우리와 통시가 미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인분과 음식찌꺼기등을 먹으며 산다. '돛통시'란 명칭은 돛거름처럼 '돼지'와 '통시'가 공고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속담에서 '칫간' 즉 통시와 의미상 결합된, '통시에 갔다 온 나무, 통시에서 뜯은 돌, 돛통담, 디딜팡에 세운 가래'는 부정시된다. 그것은 나무, 돌, 담, 가래 등 그 사물만 있고, '통시'와 결합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겨질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돛통시 안의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똥돼지 문화'가 밖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점이다. 똥돼지문화는 중국이나 남방에서 들어왔다고 한다.¹⁹⁴⁾ 일단 밖에서 들어온 것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 혹은 삶의 질서를 흔들리는 것으로 곧 '금기'의 영역이며 '부정한 것'이 된다. '돼지'가 부정하다는 관념이 형성된 것은 '돼지'는 '밖에서 들어온 낯선 것'이며,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된 것'을 먹고 인간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약간 떨어진 '통시'에서 사육되기¹⁹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마빈 해리스의 지적처럼 인간이나 인간에게 중요한 가축인 소나 말과 음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도 부정관념의 형성에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언젠가부터 돛통시안에서 만들어진 돛거름이 밭의 비료로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아마 이것은 '돼지는 부정하다'는 신화적이고도

194) 장보웅은 「한국 통시 문화의 지역적 연구」(『대한지리학회지』 30권 3호, 대한지리학회, 1995, 256쪽)에서 제주도에서 돼지울과 뒷간이 함께 있으면서 집 밖에다 만든 통시는 남방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온 주민들이 갖고 온 남방의 문화이며, 돼지울과 통시는 같이 있지만 이 통시가 집안에 만들어진 것은 북방의 통시문화라면서 남방의 통시문화든 북방의 통시문화이든 돼지울과 뒷간이 있는 함께 있는 통시는 모두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프레데릭 J. 시몬스 역시 한국의 돼지사육이 중국과 같은 식이라고 했다(프레데릭, 앞의 책, 76쪽).

195) 제주에서 언제부터 통시에 돼지를 두고 키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조선 조 전기·중기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16·17세기 중반 무렵의 제주 관련 기록에도 가축으로서의 돼지이나 돼지 사육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인들이 과거 30년 전만 해도 돛거름 생산을 주 목적으로 통시에서 돼지를 키웠으나, 그 기원은 돼지사육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만큼 17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문화적인 사유를 변별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에 가는 날은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나, 집집마다 통시에서 한 마리씩 키우며 잔칫날이나 마을 추렴에는 기꺼이 참여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부정한 돼지를 취한 여신이나 남신은 부정해진다. 그래서 바람알이나 서편 혹은 해각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는 돼지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신들의 관계, 그들의 신직 및 좌정처 등을 생각할 때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신명	갈등	좌정처
돼지고기를 취하는 신	여신(일뿔중저)	돈경내/부정함	바람알/ 해안가
	개로육서또		해안가
	술일할으방류	부정함	바람알/ 해안가
	도깨비신		해안, 선박

돈육식성으로 갈등을 하고 쫓겨난 신들은 돼지고기를 취해서 부정해졌다. 돈육을 취하는 신들, 특히 여신들은 한라산신 계열의 신들과 부부신이었으나 ‘돈경내’로 인하여 바람알이나 해각으로 쫓겨난다. 또 술일할으방류의 남신은 돼지고기를 먹어 미식의 여신들과 함께 좌정처 못하고 바람알로 쫓겨난다. 그리고 해각(해안마을)에는 원래부터 돼지고기를 먹는 도깨비신, 선왕신이 어부와 잠수를 차지하고, 개로육서또처럼 비릿내, 날내가 나는 신이 있다. 도깨비신이나 선왕신은 이주신이고, 개로육서또는 해안이나 하천에 좌정한 신이다. 개로육서또나 도깨비신은 남신이면서도 어부나 잠수를 차지하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돼지고기를 바치는 ‘코사’가 치러졌음을 증언한다. 여기서 손당(구좌읍 송당리)를 제외한 “구좌 세화 하도 상도 평태 한동 행원 월정 침령, 덕천”은 제주도 동부지역 해안가 마을이다.

집에서 제사할 때는 그 고기를 적으로 올리고 불공할 때는 안올려. 보살들은 산에강 올려. 돼지를 올리고 돼지머리도 올려. 우리는 아니올

리거든. 우리는 일년 한번씩 코서라고, 잔치라고 조상잔치렌 헤그넵 혼집이 한 마리씩 헤그넵 삼년에 한번씩 그 그거 돼지 한모리씩 만약에 30만원짜리 한 마리를 조상에게 바치면 삼백만원어지 이루와준다고. 그래서 우리 어딜로부터 허면은 구좌 세화 하도 상도 평돼 한동 행원 월정 침령 꼬정은 우리가 요덜모을 손당 아홉마을 덕천꼬장 하며는 열 마을 꼬장은 그 돼지를 해영 코사를 지낸다. 경 행 고사를 지매면 마을이 막 잘돼.¹⁹⁶⁾

그렇다면 해안가 마을은 돼지와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육 식성’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본풀이가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중산간 지역의 일뤛중저류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어 해안가나 바람알로 쫓겨나는 것, 돼지를 먹는 도깨비신이 선왕으로 해안가에 좌정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해안과 중산간 마을을 경계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부정 관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또 하나의 측면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부정하다고 쫓겨나는 신들이 거의 여신이라는 점이다. 돼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본풀이에는, ‘여신의 돼지 취함 → 부정함 → 남신에 의한 축출’의 패턴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여신을 축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기제의 양측에 여신과 남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부정함’이란 관념을 형성하는 양 극단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접근을 위한 열쇠는 두 개가 된다. 하나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의 문화적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여신과 남신의 관계이다.

2)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문화적 차이

제주도는 식생과 토지 이용, 기타 지리적,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해안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삼림지대로 나누어진다.¹⁹⁷⁾ 그리고 제주의 마을은 일

196) 강봉녀 세화리 작은심방(여, 65세) 제보.

197) 제주도는 해발고도와 경사에 의하여 경사가 4도 이하이며 표고 0-200m의 해안 저지대,

반적으로 집촌의 자연적 입지 조건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산간마을로 분류된다. 전통사회 제주도의 마을들은 대부분 용천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해안 지대에 선주하였다가 조선시대 유배인의 유입과 인구증가, 그리고 농경지 확보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점차 한라산지 내륙으로 영역을 확장해갔다.¹⁹⁸⁾ 이들은 생업형태도 달라서 해안마을에서는 농업과 어업을, 중산간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한 목축을, 산간지역에서는 농업과 목축을 반반씩 했다. 또 이들 지역끼리는 계층적인 서열의식도 존재하였던 점이 일찍이 지적되었다.¹⁹⁹⁾ ‘보재기 촌에 양반이 아꼈당 양반이 보재기물을 먹는다’²⁰⁰⁾거나 해안가 사람들을 ‘알뜨르 보재기’라고 하거나 중산간 사람들을 ‘웃뜨르 테우리’, ‘웃뜨르 촌놈’²⁰¹⁾이라고 하고, 고사리를 ‘양반나물’이라고 표현하는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바깥 세상과의 상업 거래를 모르고 유교의 양반문화에 젖은 중산간지대의 자급적 전업농민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의 생업적 계급의식을 가지고 해민들에 대해 시새움의 비하함을 가졌을 정도였다고 한다.²⁰²⁾

중산촌은 平野植物帶와 나란히 中部에 있어, 高地 촌락으로부터 低

경사가 5-10도이며 표고가 200-600m 사이의 중산간 지대, 표고가 600-1200m에 이르고 10-20도의 경사를 이루는 산악지대, 표고 1200m이상이고 경사 20도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한라산 정상 부근 지역인 고산지대로 나눌 수 있다(제주도, 『제주도지』, 1993, 53쪽).

198) 제주도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2004, 153쪽.

199) 津波高志, 「제주도의 통혼권」,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 박사 회갑기념 논총발간 기념위원회,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574쪽.

200) 어촌에 양반이 앉았다가 양반이 어촌의 물을 먹는다는 말로, 제 아무리 해촌놈이라고 하시고 양반 텃세를 하며 으스대봐야 제가 어촌에 살고 있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즉 ‘양반도 보재기 촌에 왕 살민 보재기가 된다’는 말이다. 진성기는 이를 양반도 하인들의 마을에 와서 살게 되면 하인이 된다는 뜻으로 풀고 있다(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2, 402쪽).

201) 송성대에 의하면, 중산간의 양촌 사람들이 해변의 포촌으로 대거 몰려오자, 포촌사람들은 중산간촌 사람들을 ‘웃뜨르 촌놈’, ‘웃뜨르테우리’라 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산간 사람들이 해변의 포촌으로 이동한 것은 크게 두 차례인데, 하나는 1920년 해안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먼저 개명되기 시작한 해안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한 것이고, 또 하나는 1948년 4.3사건에 의해 중산간마을 소개로 5-6만명이 대규모로 해안마을로 이주한 것이다(앞의 책, 329쪽).

202) 송성대, 앞의 책, 228쪽.

지로의 가족단위 이동이 나타나기 이전, 즉 1900년 경보다 이전에는 제주도는 농업 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가장 부유했었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도 농후해서 문자를 解得하는 사람이 많고 계조직도 발달하고 있어서 섬의 관리를 제하고 가장 높은 계층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산촌은 표고가 중산촌보다 높은 지역에 있어서 新墾地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으며, 유교의 영향도 중산촌보다는 위약하였다. 해촌은 해안식물대와 평야식물대 아래쪽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해안에 해녀의 裸潛漁業權域을 가지고 있다.

1900년까지 중산촌의 노인들은 제주도는 중산촌이 가장 상위였으며, 산촌이 그 다음, 해촌이 최하위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교의식이 강한 중산촌 사람들로 보면 여자가 옷을 벗고 잠수하는 해촌이 최하위이며, 산촌은 그보다는 상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유력해진 해촌 사람들 사이에는 중산촌의 유교적 완고함을 輕蔑하고 지금까지의 계층의식과는 전혀 다른 계층관념이 나타나고 있다.²⁰³⁾

위 글에 나와 있듯, 1900년 이전에는 제주도가 농업 중심의 경제였기에 중산간의 마을사람들이 가장 부유했고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아 문자를 해득한 사람이 많았으며 계조직도 발달해 관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²⁰⁴⁾ 이에 비해 산촌과 해촌은 넉넉하지 못하고 유교의 영향도 덜 받았다. 특히 해촌은 잡녀들의 ‘나잠’이 있어 유교적 관념을 가진 이들에게 오래 전부터 천시받은 것으로 보인다.²⁰⁵⁾ 위의 글을 통해 결국 해안, 중산간, 산간

203) 津波高志, 앞의 논문, 575쪽. 인용한 부분은, 津波高志가 泉靖一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泉靖一, 1972, 『泉靖一著作集1』.

204) 문무병도 ‘예로부터 가장 조건이 좋은 마을이 중산간 지역이었고, 이곳에 세력을 가진 토호나 양반세력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중산간의 반농 반목축의 생활은 소나 말을 이용하여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기 때문에 영농방법에 앞서 있었고 수확도 많았다(문무병, 앞의 논문, 1993, 62쪽).

205) 김상헌의 『남사록』에 “그 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인 잡녀이다. 그들은 2월 이후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는 소위 잡녀의 별거벗은 알몸으로 海汀을 遍滿하며 낚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서로 같이 일을 하지만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납의 고통과 탐관오리배들의 폐가 끊어 없어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제주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198쪽).

마을이 각기 다른 생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배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해안·중산간·산간마을’에 대한 구별이 당신본풀이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고을에 강씨성방, 한씨 성방, 오씨성방, 올라스민 초기(표고) 진상을 받고, 고사리 진상을 받고, 중산촌은 대유지(당유자) 진상을 받고, 해각으로 느라스민 우미(우무) 전각(청각) 진상을 받아. 진상얼 바찌. 진상을 바찌민.²⁰⁶⁾

토산이 강씨성방, 한씨이방, 오씨이방, 산촌으론 초기, 중촌으론 고사리, 어래빋, 진피, 해각으론 우미, 전각, 초각매역, 팬푸, 고동, 생복(전복) 하양 받아. 이디 선간 잭혀 전배독선 하여 벨도로 배를 놓아(표선면 토산리 알당본²⁰⁷⁾)

<토산알당본풀이>는 산촌, 중산촌, 해촌이 처한 자연환경과 생업에 따라 진상하는 물품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나라에 진상하는 물품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생산되는 마을의 토산품이다. 그렇다면 각 마을을 차지해 호적, 장적, 물고를 보살피는 신의 성격이나 직능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송당본풀이>는 직능과 성격이 다른 신들이 각기 산촌, 중산촌, 해촌에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벨도 은진미력 폰체 가는 선 오는 선 제인장제 벨고사 받아먹던 개로육숫또. 올라스민 산신백관 느라 중산촌으로 일뢰중좌. 해각으로 개로육스²⁰⁸⁾

위의 두 본풀이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6) 진성기, 앞의 책, 486쪽.

207) 진성기, 앞의 책, 474쪽.

208) 진성기, 앞의 책, 418쪽.

	경제	진상품	신격	성별
산간마을	수렵/채취	포고, 고사리	산신백관	남신위주
중산간마을	목축 및 농경	유자	일뤼증저	여신
해안마을	반농반어업	우미, 전각 등 해물	개로육사또	남신

중산간 마을의 여신 일뤼증저류는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려 해안가마을이나 바람알로 좌정하여 본향당신의 자격을 잃고 산육·치병신으로 기능하게 된다.²⁰⁹⁾ 여기에서 돼지고기 금기의 파기가 신직을 바꿀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서편이나 바람알로 좌정할 뿐, 신직을 잃거나 그것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한편 해안가 마을에 돼지고기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본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안가 마을과 ‘돼지’와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본풀이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머무는 곳은 한라산 아래쪽 해변마을이거나 마과람이 부는 산 아래쪽²¹⁰⁾이다. 이러한 예 가운데 하나로, 당신들이 식성으로 각기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을 선택하는 본풀이가 있다. 중문면 도순리의 도순본향인 <큰당>의 본풀이가 그것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모두 나주 출신인 남신 ‘열이화주’와 ‘신전’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형과 아우를 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신은 한라산에 유람 와서 만난 후, 각기 좌정처를 구하기 위해 헤어진다. 열이화주는 사람들이 사는 근처로 가고, 신전은 산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열이화주가 먼저 도순리에 좌정처를 구하고 신전을 기다리다 만나게 된다. 그런데 신전에게서는 ‘날뺏내’가 나서 열이화주는 신전에게 ‘알’로 내려서게 한다. 신전은 ‘강정’ 큰당빚으로 좌정하고, 열이화주는 자신이 좌정한 도순 하원과 경계를 짓고, 신전에게 월평, 강정 백성에게 제상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정월 열나흘날 두 한집은 식성으로 형과 아우를 정하게 된다.

열이화주가 차지한 도순리와 하원리는 어떤 마을인가. 먼저 도순은 서귀포

209) 문무병, 앞의 논문, 115쪽.

210) 문무병, 위의 논문, 225쪽.

시 신시가지 서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로, 600여 년 전에 ‘돌송이’ 일대에 이천 서씨,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 한다.²¹¹⁾ 현 행정명인 도순동은 일찍부터 ‘돌송이’로 불려왔고, 한자차용표기로 石宋(돌송; 돌송이), 石宋(석송; 돌송이)등으로 표기해왔다.²¹²⁾ 그런데 돌송이의 한자 표기인 石宋, 石宋의 표기가 조금 천박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道順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¹³⁾. 하원동은 구산봉 동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로 700여년 전 법화사가 창건되었을 때부터 설촌되었다고도 하고, 350년 전에 여가빌레 서쪽에 안씨가, 그 후 강씨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도 한다.²¹⁴⁾ 하원동의 옛이름은 ‘오름골’인데, 한자로 악동(岳洞)으로 표기하였다가 18세기 중후반부터 하원(下院)으로 표기하였다.²¹⁵⁾ 河院(알원)이라 하기 전에는 구산봉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岳洞(오름골) 혹은 岳洞村(오름골마을)이라고 하였다. 이들 지명의 어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화주가 좌정하여 단골들을 보살폈던 도순과 하원은 오름 근처의 돌이 많은 중산간 지대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화주는 ‘언메나 단메나 백시리, 백돌레, 청감주’로 제물을 받았다.

한편 신전이 차지한 강정과 월평은 모두 해안 마을이다. 강정²¹⁶⁾은 서귀포시

211)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29~130쪽.

212) 민간에서는 ‘돌송이, 돌생이, 돌송이’등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송이’는 지역에 따라 ‘송’이라고도 한다. ‘화산재가 굳어서 돌맹이같이 잘게 부서진 돌덩이’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다.(오창명, 위의 책, 130쪽).

213) 『탐라순력도』에 石宋, 『제주읍지』에 石宋里(석송리; 돌송이마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石宋村, 19세기의 고문서와 주변의 비석에 石宋員,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 등에 道順里(도순마을), 일제강점기 5만분의 일 지도에는 道順里로 표기하였다(오창명, 위의 책, 130쪽).

214) 오창명, 위의 책, 135쪽.

215) 『탐라순력도』에 岳洞(오름골), <탐라지도>와 <제주삼읍지도총지도>등에 岳洞村, 『제주읍지』(대정현지)와 <제주삼읍전도>등에 下院里(알원마을), 『제주군지도』에 하원리(河源里, 法河(법하마을), 일제강점기 5만분의 일 지도에 하원리(河源里), 법정동(法井洞)등으로 표기하였다. 18세기 중후반부터 하원리(下院里)라 하다가 19세기 중엽부터 하원(河源)이라 하였다. ‘하원’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법화사(法華寺)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 법화사에는 머무는 원(院)이 있었다(오창명, 위의 책, 135쪽).

216) 오창명은 『중증실록』에 加內浦(가내포; 더넛개),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산

신시가지 남서쪽 해안 일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월평은 강정동 서쪽 해안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우육(牛肉)이나 즈육(猪肉)이나 머리자 가지숙(머리 갖춘 기제숙)과 백돌래를 받는’ 신전과 ‘언메나 단메나 백시리나 백돌래’를 받는 열이화주가 ‘도순, 강정’을 ‘캣담(돌담)을 갈라’ 각기 좌정하여, 단골에 제상을 받고 단골을 보살핀다는 것이다. 식성으로 인한 문화적 경계지음을 통해서 이들의 지리적 경계도 분명해진다. 또 도순한집은 강정한집의 음식을 ‘더럽고 나쁘다’고 하고 자신의 음식은 ‘양반의 음식’이라고 한다. 소나 돼지를 먹는 것, 즉 육식에 대한 터부를 도순한집(화주)은 가지고 있으며, 육식에 대한 미식의, 일종의 문화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도순, 하원과 같은 중산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육식을 기피했고 강정, 월평과 같은 해안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육식, 특히 돈육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안지역과 돼지고기는 어떠한 면에서 상관성이 있는가.

해촌은 바닷가에 있는 生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경작지는 일주도로밖에 있다. 방과제를 쌓아 놓은 포구를 ‘성창’ 또는 ‘돈지’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좁녀 또는 어부들을 수호해주는 당신을 모시는 개당, 돈짓당, 남당, 해신당 등이 있다.²¹⁷⁾ 즉 해촌에는 본향당 외에 해신당계의 당들이 있고,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위하여 신앙하는 영등, 용왕, 선왕, 영감, 해신당계 신들이 있다.²¹⁸⁾ 이 가운데 돈육공희(豚肉供犧)를 받는 신은 선왕과 영감신, 그리고 해신당계 신들이다.²¹⁹⁾ 선왕(船王)은 영등굿, 좁수굿, 그물코스, 연신 등 굿을 할

천)에 加內大川(더내큰내), 加內小川(더내작은내), 『탐라지』에 大加來川(큰더릿내), 小加來川(작은더릿내), 『탐라순력도』에 江汀浦(강정개), <탐라지도>와 『해동지도』에 江汀村, 江汀浦 등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강정의 옛이름이 ‘加來(더내), 加內(더내)’였다고 보고, 강정이란 이름은 강가(加內川)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데서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오창명, 앞의 책, 129쪽). 오창명에 의하면, 월평동의 옛이름은 ‘덜벙디’ ‘큰벙디’로 월평은 18세기 이전의 고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9세기 중 후반의 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행정마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는 ‘덜벙디, 덜벙디’라 부르는데, 마을의 형세가 ‘덜’(月)과 같은 벙디(坪)를 이룬다는 데서 ‘덜벙디’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월평(月坪)이라 전해진다(오창명, 앞의 책, 131쪽).

217) 문무병, 앞의 논문, 115쪽.

218)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150~154쪽 참조.

때나 멀리 어로를 나갈 때 청하는 선박수호신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선왕은 곧 도깨비신이고²²⁰⁾ 영감신은 도깨비신을 지칭한다. 한반도 내륙에서 도깨비신은 신성성을 거의 잃고, 우스꽝스럽게 민담 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부신(富神), 대장간의 신, 선신(船神), 당신 등 여러 성격의 신으로 등장하며, 또한 바다에서 고기떼를 몰아다 잘 잡게 해준다²²¹⁾. 어쨌든 돼지고기를 먹는, 이주신인 도깨비신-그 가운데 어부를 차지한 도깨비신은 돼지고기 금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도깨비신은 애초부터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들 도깨비신, 즉 <영감본풀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깨비신의 성격을 살펴보자.

서울 남산 먹자고을에서 허정승의 아들 일곱 형제 솟아나니, 큰아들은 백두산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태백산을 차지하고, 셋째 아들은 계룡산을 차지하고, 넷째아들은 무등산을 차지하고, 다섯째 아들은 지리산을 차지하고, 여섯째 아들은 유달산을 차지하고, 일곱째 아들은 제주 한라산을 차지하고,

정의 가면 영감선앙으로 놓고, 대정 가면 도령선앙으로 놓고, 위미쉴 각시선왕으로 놓고, 선흘곳 황세왓 돌허리아기씨선왕으로 놓고,

썰물에는 강변에 놓고 밀물에는 수중에 놓고, 산으로 가면 아흔아홉 골머리, 영실, 백록담, 물장오리, 태역장오리, 잔 소나무밭, 돌무더기 좋아하고, 일만잡수 삼천 어부 어장촌에 놓고,

낮엔 연불 밤엔 등불에 놓고, 갓양태만 붙은 흰 갓에 옷깃만 붙은 도포에 총만 붙은 미투리, 한 뺨 못한 곰방대 삼동초를 피워 물고,

수수떡, 수수밥 좋아하고, 변소의 흰 돼지, 검은 돼지 네발짐승 좌머리 우머리 좌갈비 우갈비 열두뼈 좋아하고 시원석성한 간이나 더운 피

219) 돈육공회를 받는 신에는 ‘돈육식으로 인한 갈등을 일으킨 여신 혹은 남신’과, 금상님, 중의 또, 개로육서포 등이 있으며, 어부당의 신들과 뱃선왕이 있다. 어부를 차지한 신은 ‘개하르방’, ‘남당하르방’처럼 확실한 신명과 직능이 없이 ‘일만어부를 차지한 신’이 있는데, 이들은 돈육공회를 받는 게 특징이다(문무병, 앞의 논문, 222~223쪽).

220) 현용준, 앞의 책, 152쪽.

221) 현용준에 의하면 그래서 멸치잡이의 풍어를 비는 그물코스(멜긋) 때에 영감놀이를 하여 도깨비에게 풍어를 빈다. 도깨비는 수수떡, 수수밥, 돼지고기, 소주 등을 즐겨먹는 것이 널리 알려진 속신이라서 그물코스 때에도 이러한 제물을 차린다고 한다(현용준, 앞의 책, 2002, 153쪽).

좋아하고 고기도 동이로 술도 동이로 받아오던 영감 참봉 야차 군졸,
 흠어지면 열네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긴 바다 긴 소리, 짧은 바
 다 짧은 소리 어야두야 살강깃소리로 일천 긴장 풀리던 선왕 참봉이외
 다.²²²⁾

위 본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덕자고을에서 태어난 허정승의 일곱째
 아들이 제주에 들어와 정의, 대정, 위미숲 각각의 당신이 되고 일만 잠수 어부
 어장촌에 놀면서 선왕이 되는데, 이 신은 ‘수수떡, 수수밥, 변소의 흰 돼지, 검은
 돼지의 머리와 피, 간과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주의 토착신들
 이 좋아하는 제물인 ‘백돌래, 백시리, 달걀, 자소주, 바닷고기’와는 완전히 다르
 다. 수수는 제주에서 낫선 것²²³⁾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 토산물에도 나
 와 있지 않다.²²⁴⁾ 산돛(멧돼지)은 있었으나 집돼지는 17세기 이원진의 탐라지
 에 제주읍 ‘사창에 돼지우리가 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고 이보다 이른 기
 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²²⁵⁾ 이로 보아 ‘수수밥과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영감,
 도깨비신은 제주도와는 다른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신임에 틀림없다.²²⁶⁾

222) 현용준, 앞의 책(1992, 229쪽)에 실려 있는, 북제주군 한경면 낙천리의 당신본풀이 전문이
 다(안사인본).

223) 제주에서 떡은 쌀이나 메밀로 만든다. 전통적으로 제주 사람이 많이 먹어 온 곡물은 조,
 보리, 메밀 등이다. 메밀은 현재도 메밀떡, 메밀국수, 메밀수제비, 정기떡 등에 소용된다. 그
 런데 수수는 그러한 예가 없다. 현재복(여, 69세)에 따르면, 지금 조천 일대에는 수수가 조금
 재배되는데 수수대로 수수빻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곡식으로는 키우진 않았는데,
 이십여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고 한다.

2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8권 제주목 토산 항목 중 곡물로는 산도(山稻), 기장, 피, 조,
 콩, 팥, 메밀, 보리, 밀이 있다.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는 전곡(田穀), 보리(맥), 식랍(진도,
 해남에서 구매)이, 이원진의 『제주풍토기』에는 전미(田米), 산도(山桃), 울(栗)이 기록되어 있
 고,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올벼(稗), 메기장(麥), 찰기장(稷), 기장(梁), 콩, 팥(大, 小豆),
 녹두(菘豆), 보리, 밀(小, 大麥), 메밀(麥)이 나와 있다. 구좌면 송당리 본풀이에도 백주또와 소
 천국이 농사를 처음 지을 때, 한라산 앞 밭을 갈아 심은 곡물이 기장, 팥, 그리고 콩이었다.

225) 16~17세기 동안 한반도 본토와 중국이나 유구, 일본, 서구의 선박이 표도하여 5천명의 사
 람들이 제주에 머물다 갔다는 사실과 돼지의 사육 기록이 제주에서는 17세기에 보인다는 것
 은 이 시기에 돼지고기문화가 유입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226) 현용준은 도깨비신의 인격성을 怪人性, 好色性, 好食性, 愚鈍性이라고 보고 이 중 도깨비
 가 좋아하는 수수밥, 수수떡, 돼지고기, 소주 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 食性은 이러한 음
 식을 귀중식품으로 여기는 문화복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食性은 도깨비신

그런데 다른 영감본에서는 도깨비신이 서울에서 ‘숫아나서 만주로 귀양갔다 가’ 송영감네 부를 축적시켜주고는 쫓겨나서 위로 삼형제는 서양각국으로, 가운데 삼형제는 일본 대판 가미상으로, 아래 삼형제는 서울로, 또 아래 삼형제는 제주도로 온다는 대목이 있다. 이를 보면 도깨비신이 마을 어른들을 박대하고 동네처녀에게 몹쓸 짓을 하며 마을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의 영감놀이에서 도깨비신을 배에 태워 고향으로 보내는 것과 맥락이 닿는다.

영감본은 짐치백의 아들 삼성제우다. 서월 남대문 밖겼딜로 숫아나던 짐치백의 아들 삼성젠디 이 삼성제가 열다섯 시오세가 나가니 동넛 존장 박대호고 동넛 처녀 허줄 내고 므을에 그대로 두어서는 므을이 관날 듯 하니 짐영감 아들 삼성제를 만주 들은돌기지로 귀양을 보냈더니 송영감 칩으로 들어가고 (이하 생략)²²⁷⁾

그리고 열두 형제 중 맨 아래 삼형제 신이 제주로 들어올 때는 김녕으로 들어오는데, 김녕에서 현재까지 돛제를 지내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²²⁸⁾ 현재 김녕에는 5개의 당이 있는데, 강남천자국 셋딸아기를 섬기는 큰당, 용녀부인을 섬기는 느므릿당, 요왕황제국 말갓아들을 섬기는 성세깃당이 삼본향이고, 퀘네깃한집을 모시는 퀘네깃당과 서문하르방당이 있다. 이 가운데 퀘네깃

양의 근원이 되는 문화배경 해명에 주요한 관건이 된다(238쪽)고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考究는 하지 않았다. 또 돼지고기나 따뜻한 간, 더운 피, 소주 등이 제주에서는 아주 고급 식품으로 쳤다는 점에 주목하며 영감신이 이러한 돼지고기류나 소주를 동이로 받아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호식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고 했다(현용준, 앞의 책, 238쪽).

227) 진성기, 앞의 책, 623~627쪽.

228) 물론 돛제는 김녕리 퀘네깃당의 당신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다. 퀘네깃또는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2세로 용왕국에 갔다온 후 마을사람들에게 돛제를 받는다. 돼지고기 금기로 인한 갈등 없이 돛제를 받는 특이한 경우이다. 그런데 원래부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도깨비신이나 제주에 와서 돛제를 받게 된 금상신이 제주의 많은 포구 가운데 ‘김녕’으로 들어오는 것은 김녕지역과 돼지와 친연성을 보이는 것이다. 김녕리 퀘네깃굴 안에서 발견된 뼈 중에서 90%가 멧돼지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김녕리 퀘네깃동굴 유적』, 대영인쇄사, 1995)는데 이 또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본풀이 안의 돼지는 통시 안에서 사육되는 집돼지이다.

한집만 돛제를 받고 삼분향은 시루떡이나 양푼메, 삶은 계란, 구운 생선, 과일, 채소, 소주, 백지, 지전, 제비쌀, 돈 등을 제물로 받는다. 은진미륵을 모시는 서문하르방당은 삼분향의 제물을 기본으로 하고 송낙, 일곱자 걸렛배, 명실을 별도로 더 받는다.²²⁹⁾ 이로 보아 ‘돛제’의 ‘돼지 온 마리’는 여타의 제주당신들의 제물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감신이 좋아하는 수수밥이나 수수떡 역시 제주 토착신의 제물로 쓰이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영감신에 대한 신앙민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이는 제주에서 가장 일반화된 놀이인 영감놀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놀이곳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도깨비탈을 쓰고 영감으로 차린 도깨비들이 제장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수선을 떨고 영감 상에 차려놓은 진상물들을 잘 대접받고 제장을 떠나는 풍자적인 놀이곳이다.²³⁰⁾ 놀이의 사설을 통해 이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인 돼지와 영감신의 성격을 살펴보자.

군문열림; 스만스천 제용신문 알리웁고 물 알에는 요왕 입고 물 우의는 선왕(船王)입네다. 신주의 선왕문을 알리는데, 서울 남산 먹자꼴서 솟아나던 허정승의 일곱성제간 영감참봉님도 문 알립서.

(중략)

입무) 영감님, 먹음만이 기쁘혀웨다. 영감님, 음식은 무슨 음식을 조아하여요?

영감) 아, 우리 음식은 남도리 알에 너발공상 가문족바리 한족바리, 좌갈리나 우갈리나 좌전각이나 우전각이나 좌머리나 우머리나 열두신 빼 조아하고 시원석석 횡간이나 염통 태두 조아하고 훤은 베설 증진 베설 큰 대창 창도름도 조아하고 더운 설 단 설 조아하고 수시떡 수시밥 오곡밥을 조아하고 우거린건 청주나 알거린 건 다박주나 올롱출롱 즈소지나 이태백이 먹다 남은 포도주도 조아하고 문들문들 계알안주 물콧 ㄱ똥 백시리나 청감주에 조아하고 서천강의노기메나 동이 와당 메역체나 각서추물 조아하오

입무) 하, 영감니 앞의 받은 도입상을 브레여 보시오. 입에 맞인 음식이나 시커까.

229) 강소전, 앞의 논문, 21쪽 참조.

230) 문무병, 앞의 논문, 201쪽.

영감) 하하하, 요게 나 조아흐는 음식이로구나 요건 가문족바리 한족 바리 너발공상이 아니오? 요건 씨원석석 헛간, 요건 더운 설 단설이로구나. 야, 이거 너엄이 벗어지게 먹다 남을 음식이로구나.(중략)

입무) 이건 무스기요?(짚으로 만든 배를 가리키며)

영감) 상선이오, 중선이오, 하선이오, 감동선이오, 쾌각선이오, 이건 누게 탕 갈 전배독선인고?

입무) 영감 태왕 갈 방선이요.

영감) 하하, 그렇고나. 오늘은 내 동승 드랑 전배독선 잡아아정 깃발 가는 냥 벳발 가는 냥 가고픈데로 갈로구나.

입무)(-전략) 이 동승 거느리곡 구신 생인 곱을 갈라 돌아사기 어찌 하여요?

영감) 아, 염네도 마시오. 나 동승 거느리곡 저인정 많이 반앙 풀상 흐고 가련흐 신벳자를 이별흐고 어서어서 돌아가겠소. 자, 그러건 이별 잔이나 작별잔이나 흐곡 마냥 떡곡 마냥 어야두야 살강깃소리 닷강깃 소리로 일천간장 풀러, 놀대로 어서놀아 구신 생인 곱갈르레 가자. 나 동승아, 이디 앞이라. 이별잔 작별잔이나 흐곡 어서어서 돌아사자.²³¹⁾

위 영감놀이를 보면, 돼지고기는 영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²³²⁾ 신앙민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영감신이 동생 도깨비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배에 가득 고기가 잡히도록 해달라고 기원도 한다. 결국 영감놀이의 중심 내용은 변덕스런 영감을 달래어 그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영감신이 실제로 제주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신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영감신이 술을 좋아하고, 호색적이거나 심술을 잘 부리는 측면도 있으며, 제주 사회에 별반 도움을 주지 않은 ‘이주신’인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로육서또는 어떤 신인가. 성산면 신앙리의 해신당본풀이를 보

23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73~489쪽 참조.

232) 문무병에 따르면 제주도 당신앙에 ‘돼지금기’가 많은 것은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깨비신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선신인 영감신에게 돼지 희생을 바치는 뜻제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서, 바다에서 하는 해전경작이나 어장의 풍어를 기원하는 축제로서 <요왕굿>이나 <선왕굿>에서는 돼지를 통째로 올리거나 돼지 머리, 또는 돼지 턱뼈를 올리는데 이는 영감신의 식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했다(문무병, 앞의 논문, 1993). 필자는 영감신이 외래신이며, 그의 식성이 돈육식성임을 비추어 볼 때, 돼지고기를 먹는 풍습이나 돼지사육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라 생각한다.

자.233)

족지 일뢰 정관스 정스경 용해대부인. 나는 선 드는 선 츠지하고, 포귀 츠지하고, 개로육사 해신당. 영급 좋고 수덕 좋아서 만민즈손을 그늘롭네다. 정살³이여, 수문⁴이여, 고장⁵이여(이상 신양리 앞바다 이름), 개말 포귀마다 갱변마다 남제주군 성산면 신양리 개로육스도. 해신당은 그 조상이 영급이 좋아서, 살갱기에, 출갱기에, 놀래로, 풍래로 날을 새고, 눈이 물던 서낭님, 귀가 물던 서낭님. 산뎛 잡아 장제 맞이하고 제육안주 술에 탐낭하고 먹으면 먹은 값하고 씨민 썬 값 하고, 우리 제주도 안에선 아주 영급흔 당이우다. 상불턱에 상즘녀, 중불턱에 중즘녀, 하불턱에 하즘녀, 만민 수다 많흔 단골에 스해요왕에 지장 읍시 잘 그늘롭네다.²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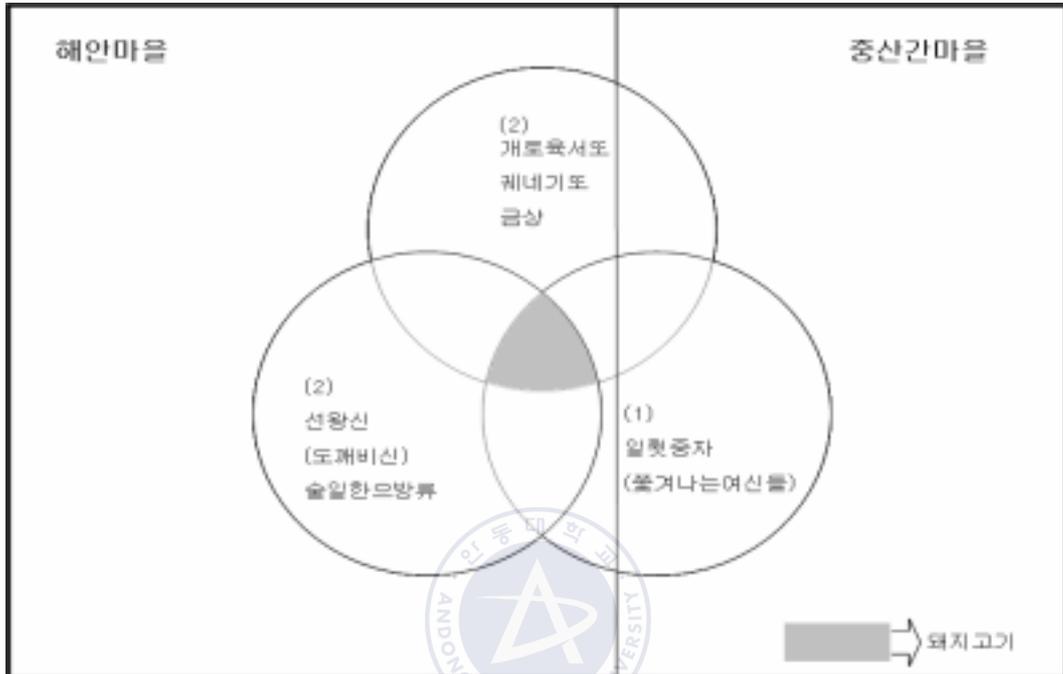
신양리 해신당에 좌정한 개로육사는 ‘나는 배, 드는 배’와 포구를 차지한 신이다. 신양리 포구, 앞바다, 강변을 지켜주는 개로육사는 ‘뎛감는 노래와 풍악에 날을 새고 눈과 귀가 밝은’ 서낭이다. 눈과 귀가 밝아야 선박과 바다와 포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은 산뎛지를 잡아 제를 지내고 돼지고기 안주에 술을 먹으면 먹은 값을 해주는 신이다. 제주 앞바다를 지키며 ‘우리 제주도 안에선 아주 영급한 신’이란 점에서 토착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에 한라산신이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는 포구를 지켜주는 포구의 신인 개로육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로육사는 돼지고기 안주와 술을 먹는다는 점에서 도깨비신과 식성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들이 ‘식성’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간과 해안 마을에 각기 좌정하는 예가 있고, 해안 마을에 ‘돈육식성’을 가진 신들의 당이 분포하며, 돈육식성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도깨비신(선왕신)이나 어부나 혹은 바다를 차지한 인격신들, 해안이나 하천에 거주하는 개로육사또, 그리고

233) 강권용(앞의 논문, 2004, 16쪽)에 의하면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분향당의 당신 개로육스 또는 돼지고기를 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로육스또는 돈육공회를 받으며 어부를 수호하는 생업수호신이다(문무병, 앞의 논문, 223쪽).

234) 진성기, 앞의 책, 444쪽.

돼지고기를 먹고 쫓겨나는 일렛중좌로 대표되는 여신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쫓겨난 여신은 바람알로 내려서거나, 해각으로 가서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2> 돼지고기를 먹는 성격과 지리적 환경

위 그림에서 교집합 부분은 돼지고기이다. 돼지고기를 취해 해각으로 쫓겨난 여신들, 하천이나 해안가에 있으며 돼지고기를 먹거나 뚝체를 받는 개로육사또류의 신, 그리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으며 선왕신이 된 도깨비신은 결국 해안마을에 좌정한 신이다. 그런데 이들을 이어주는 실질적인 매개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바다를 누비며 사는 어부, 즉 해민(海民)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선왕신이나 개로육사또는 어부를 관장하고 요왕신은 잠녀를 차지하고 해각으로 쫓겨난 일렛중좌 여신들도 결국 잠녀와 어부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삶의 문제로 바꾸었을 때, 어부들의 부인은 제주 여인이고 상당 부분 잠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를 먹는 (1), (2), (3)의 신격은 아래와 같다.

(1)산육치병의 여신	(2)어업수호신·영감신	(3)장수신
제주시 내왓당 동해용궁 말жат딸		
제주시 용담동 궁당 정절상군농		
제주시 오라동 남새분향 남새할망	애월면 하귀리 개할망	
제주시 외도동 외도분향 송씨할망	당	
구좌면 월정리 월정분향 황토고을 황정	바람알또짐씨할으방	
승의 따님	한림읍 금릉리 큰당	구좌면 세화리 금상
구좌면 종달리 종달분향 분향할망	소왕물술일할으방	한집
구좌면 종달리 종달분향 일퇴중자할망	애월면 동귀리 동귀본	구좌면 김녕리 케네
구좌면 평대리 평대분향 서당할망	향 짐씨할으방	기한집
구좌면 평대리 수되깃당 서당할망	한경면 낙천리 오일한	구좌면 송당리 송곡
표선면 토산리 토산분향 신중부인	집(도깨비신)	성
서귀읍 보목리 보목분향 허씨과무집	각 마을 해신당 개로	
한경면 저지리 저지분향 한디사는 할망	육서또(어업수호신)	
한경면 판포리 산지당 축일당 장씨할망	구좌면 행원리 남당밖	
한경면 판포리 널갯당 김씨할망	중의또(어업수호신)	
애월면 고내리 고내분향 별궁자따님		
애월면 어음리 비매닛당 할망		
애월면 금덕리 금덕분향 허씨할망		

돈육식성의 신은 (1) 산육·치병의 여신과 (2) 어업수호신이나 영감신 (3) 육지에서 건너온 장수신 금상이나 소로소천국 2세대인 케네깃또나 송곡성류다.²³⁵⁾

235) 돼지고기를 먹는 신격을 분리한 것은 문무병(1993)의 연구를 참조했다. 문무병은 여기에 수렵, 목축신을 더하고 있다. 그가 예시한 돈육을 먹는 사냥의 신은 한경면 저지리 허리궁전 한집(사냥의 신), 구좌읍 송당리 소로소천국(사냥의 신), 구좌읍 덕천리 송씨하르방(사냥의 신), 대정읍 신평리 일똥한집(사냥의 신)이다(문무병, 앞의 논문, 225쪽). 그러나 그가 제시한 위의 예들을 본풀이 내용으로 살펴본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한경면 저지리 허리궁전한집의 경우, 죽은말жат아들의 부인인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구좌읍 송당리의 소로소천국은 ‘소’를 먹으며, 그의 아들 송곡성 혹은 문곡성이 동해용궁에 가서 ‘돛도 전머리, 소도 전머리, 독도 전머리’를 먹는다. 대정읍 신평리 일똥한집 본풀이에는 사냥의 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 구좌읍 덕천리 송씨하르방의 경우는 산신인 것은 맞지만 ‘산돛’을 먹는다. 이는 금기로 여겨진 ‘돛’이 본풀이 맥락상, ‘통시안의 뇌발공상’인 집돼지라는 점에서 논의로 해야 한다고 본다. 사냥, 혹은 목축의 신들은 ‘집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 신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래 식성	식성의 변화	원인	토착/이주 여부
일릿중저	- 미식	돈육식	금기파기/축출당함	토착신/이주신
개로육서또	- 육식성	없음	.	토착신
퀘네깃또	- 육식(부계)+미식(모계)	없음	이계 여행 ²³⁶⁾	토착+이주(2세대)
금상님	- 육식성(소, 돛 전마리)	없음		이주신
도깨비신	- 돈육(+수수밥/떡)	없음		이주신

이 가운데 일릿중저와 같이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린 여신들은 쫓겨나서 돛제를 받게 된다. 개로육서또는 주로 오름, 하천, 해안가를 다니며 사냥을 하는 신으로 이들의 식성은 주로 육식이다. 퀘네깃또는 아버지신 소천국과 어머니신 백주또 사이에 난 자식으로, 동해용궁에 가서 육식성, 대식성을 드러내고 쫓겨나고 강남천자국에서 영웅성을 드러내다가 제주로 돌아와서 돛제를 받는다. 퀘네깃또의 이러한 ‘돈육식성’은 토착적이라기보다는 외부 세계, 외부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상님은 원래부터 육식성의 신격으로 제주에 와서 미식인 백주또와 결혼하기 위해 식성을 바꾸고 생명의 위기에 도달하자 돛제를 허락받았다. 도깨비신은 만주에 있다가 제주에 들어온 신으로 어부와 잠수를 차지하며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았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신격은 제주의 토착적인 것이기보다는, 이주신과 함께 들어온 것이며, ‘돼지고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해안가’ 마을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타문화의 접촉 가능성이 큰 해안가 마을의 생업이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타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기존의 집단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식성을 둘러싼’ 신들의 갈등으로 신화에 표상되었

돈육식성을 가진 신들은 결국 해신, 또는 해전수호신, 산육·치병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렵·목축의 신격이 농경의 신격을 상실해 돈육제물을 받는 신이 된다는 논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236) 퀘네깃또나 송곡성 혹은 문곡성은 소천국과 백주또 사이에 난 자식신이다. 이들의 식성문제는 처음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부모신의 결별 이후, 아버지를 찾아 갔다가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고, 동해용궁으로 가서 지내다가 ‘소도 닭도 돼지도 전머리’로 먹는 대식성을 보이는 데서 식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들의 대식성은 부신(父神) 소천국처럼 육식성을 전제로 한다.

다고 할 수 있다.²³⁷⁾

한편, 돈육식성에 따른 토착신과 이주신의 갈등이 본풀이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돼지고기를 취하는 신들이 여신이든, 남신이든 간에 ‘바람알’이나 ‘해각’으로 혹은 마을 밖으로 쫓겨난다는 점이다. 문무병은 이에 대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의 ‘淨-不淨’, 서열의 ‘優-劣’, ‘上-下’를 구별하는 단서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식성은 인간의 식성과 유사하므로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속화된 신, 다시 말하면 인간에 가까운 신이라고 한다.²³⁸⁾

어느 마을에서나 그들의 당신을 “맑고 맑은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대부분 농경신이며, 육식을 하지 않는 米食의 신으로, 농경 사회의 식생활을 반영하면서 돈육식성을 경계함으로써 농경의 우위를 강조하고, 어업이나 사냥에 의한 육식 생활을 천시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신들이 대부분 어업 수호신이거나 사냥의 신인 것을 보면, 생업수호신으로 좌정한 당신의 식성은 그들을 모시고 있는 인간사회의 식성과 같다. 반농·반어업, 반농·반수렵 사회에서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식의 필요성도 있음을 신화에서 ‘신들의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 신들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생업의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부와 관련을 맺고 dot제를 받고 수확의 풍등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풍어제나 영등굿에서 영감신

237) 이에 대한 논의는 4장 2, 3절에서 진전시키기로 한다. 한 가지 언급한다면, 제주인들은 육지나 육지인에 대해 상당히 배척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육지사둔을 맺는 것, 특히 육지 메뉴리를 맺는 것’은 아직도 ‘꺼리는’ 일이며 ‘육지메누리’는 화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4·3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나 임란이후 조선조 때 ‘제주인의 육지 이동’을 금했던 것(공물이나 교역의 경우만 육지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본풀이 사설에도 나타난다), 더 거슬러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었던 탐라국의 역사로 올라가서 그 때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어온 제주의 역사에 기인하지 않나 싶다. 즉 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은 ‘타문화와 자문화의 차별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며, ‘결국 타문화를 수용하게 된 갈등의 표상’이 아닐까 싶다.

238) 이 논의에 따르면 산신은 세속화된 신이라는 결론에 달한다. 하지만 일례로 애월면 신엄리 본향 송씨할망은 한라산신으로, ‘산똥’ 희생을 받지만 도깨비나 술일할으방처럼 세속화되지 않았다. 육지의 경우에도 산신에게 돼지머리를 올리는데, 이때의 산신 역시 결코 세속화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dot제에 올리는 돼지가 산돼지인지 집돼지(통시안의 돼지)인지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라고 생각된다. 돈육금기모티프에 나오는 돼지는 모두 통시안의 집돼지이다. 도깨비신인 영감신이 먹는 돼지도 그렇다. 산돼지에는 부정관념이 없으나 집돼지, 통시안의 집돼지에는 부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

을 위한 제사를 차릴 때도 돼지머리를 올린다. 요왕신 선왕신 모두 돈육식성의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신당의 신들은 돛제를 받는 신이기 때문에 농경신격을 상실한 신이며, 서열이 낮고 속화된 신, 다시 말하면 인간에 가까운 신이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 밀착되어 ‘일만 잠수 일만 어부’를 위하여, 생업수호신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²³⁹⁾

위에서 언급하듯이,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부정한 신이며, 서열상 아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또 해안마을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돈육식’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 좌정한 당의 위치가 왜 해안가에 주로 몰려 있는지, 궁극적으로 돼지고기를 둘러싼 갈등이 왜 마을신화에 드러나게 됐는지 알 수 없다.²⁴⁰⁾ 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왜 부정한지, 그러한 관념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슬람문화권의 돼지고기 금기는, 중동의 생태적 환경이 돼지의 사육에 적합하지 않아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태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그리 쉬웠을 것 같지는 않다.²⁴¹⁾ 전통적으로 제주에서는 山稻는 조금 재배했지만, 대부분이 조, 기장, 보리 등을 재배했고 쌀의 경우는 육지에서 양곡을 무역해서 해결했다. 그러나 그도 형편이 넉넉한 경우어야 가능했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조나 보리로 생활을 했다. 따라서 기근이나 흉년이 한번 닥치면 몇 천명씩 목숨을 잃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음식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돼지’가 오직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39) 문무병, 앞의 논문, 226쪽.

240) 신들이 돼지고기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마을신화인 당신본풀이에만 있고 일반신본풀이에는 없다. 당신본풀이가 마을의 설촌, 역사, 마을사람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돼지고기를 둘러싼 신들의 갈등은, 어쩌면 마을이 형성되던 당시의, ‘돼지’를 둘러싼 마을사람들의 마찰 및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41) 그러나 중동 지역의 돼지고기 금기는 그 지역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신격에 따라 맑은 신은 돼지고기를 금하고, 도깨비신이나 해신등은 돼지고기를 취하며, 오늘날 제주사람들 역시 당을 다니는 사람만 당에 가기 며칠 전부터 이 금기를 지키는 것인 만큼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빈 해리스의 생태학적 전략을 그대로 제주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데 옛 문헌에 가축으로서 돼지가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동국여지승람』이나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1520~1521),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1635)에 가축으로서 돼지 사육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비롯한 소와 말이 가축으로서, 혹은 제의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돼지의 가축화 여부는 돈육금기를 둘러싼 신들의 갈등 문제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축으로서 돼지와 소의 쓰임 및 식용의 역사

앞 장에서는 돈육식성을 본래부터 가진 신은 밖에서 들어온 금상이나 도깨비 같은 이주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축으로서 돼지 역시 어느 시기에 제주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나 몽고, 혹은 유구국 등 다른 나라와의 교역 등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는 다룰 수 없고, 한반도와 제주를 중심으로 돼지를 희생(犧牲)으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으로 키운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돼지가 등장하는 가장 오랜 기록은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와 <읍루>조에 있다. 먼저 부여조에는 가축의 이름을 따서 ‘馬加·牛加·猪加·狗加·大使’라 했으니, ‘돼지’를 가축으로 키웠음을 알 수 있다.²⁴²⁾ 또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돼지우리에 버렸는데, 돼지가 입기운으로 덥히고 마굿간의 말이 밟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⁴³⁾ 읍루의 경우는, ‘그 풍속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축으로 옷을 해 입고, 겨울에 돼지비계를 몸에 여러번 두껍게 칠하여 추운 바람을 막는다’고 하였다. 읍루에서는 돼지를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이나 비계도 활용하였으니, 그들의 삶에 돼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나 옥저 삼한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돼지에 관한 언급이

242)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猪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243) 王揖之於溷中 猪以喙嘘之 徙至馬閑 馬以氣嘘 不死.

없다.²⁴⁴⁾ 다만 마한조에 마한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인 주호에 있는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기르기를 좋아한다는 기술이 있는데, 제주 역사학계에서는 ‘주호’를 제주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²⁴⁵⁾ 마한 조 주호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또 주호(州胡)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소 몸집이 작고 언어가 한(韓)과 다르다. 모두 선비족처럼 머리를 깎고 가죽옷을 입는데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 옷은 윗도리는 있으나 아랫도리가 없으니 대략 알몸과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韓)과 교역한다.

(辰韓在馬韓之東，其耆老傳世，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馬韓割其東界地與之。有城柵。其言語不與馬韓同，名國爲邦，弓爲弧，賊爲寇，行酒爲行觴。相呼皆爲徒，有似秦人，非但燕、齊之名物也。名樂浪人爲阿殘；東方人名我爲阿，謂樂浪人本其殘餘人。今有名之爲秦韓者。始有六國，稍分爲十二國)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고, 사람들이 다소 몸집이 작으며, 언어가 한과 다르고, 가죽옷을 입으며, 아랫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주호가 곧 제주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²⁴⁶⁾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도 아

244) 왜조에서는 ‘其地無牛馬虎豹羊鵠’이라 하여 돼지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45) 이영권은 탐라국에 관한 사료가 워낙 궁한 처지라 제주의 대부분 역사가들은 이 주호를 끌어당겨 탐라국과 동일한 국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주호와 탐라가 동일한 국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926년 제주 산지향에서 발견된 기원후 1세기 중국 화폐인 오수진, 용담동 무덤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 2자루와 그 일대 분포하는 고인돌, 1996년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지 집터자리 236기, 그리고 그 곳에서 출토된 고급옥환 등 고고학적 유물을 근거로, 탐라국은 대략 기원 전후에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국으로 보고 있다(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6, 33~34쪽).

246) 일례로 정루시아는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당신앙 연구」(중앙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1999)에서, 이러한 사학계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돼지를 사육해 왔다고 보고 있다. 김녕의 퀘네기굴에서 발견된 초기 철기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토기를 바탕으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 김녕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던 시절에 이미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며 김녕리에서 행해지는 뚝제의 전통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돼지는 최소한 제주의 토산물이었을 것 같은데, 『동국여지승람』이나 『탐라지』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제주는 고려말 이후 본국에 복속되었는데 조선조까지 소와 말을 공급하였다. 만일 제주의 돼지사육이 그토록 오래된

직 마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며, 단순히 위에 기술된 몇 가지의 풍습이 비슷하다는 이 기록만으로는 주호를 제주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²⁴⁷⁾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본기 <유리왕>조와 <산상왕>조에 ‘교시’(郊豕)가 달아나는 내용이 있어 제례에 돼지를 썼음을 알 수 있다.

○ 19년 8월에 郊豕가 (농여) 달아나니, 왕이 託利와 斯卑란 자로 뒤를 쫓게 하였는데, 長屋澤中에 이르러 발견하고 칼로 그 돼지의 脚筋을 끊었다. 왕이 듣고 노하여 말하기를, "祭天할 犧牲을 어찌 (함부로) 傷할 것이냐" 하고, 드디어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넣어 죽였다. 9월에 왕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말하기를, 託利·斯卑가 준 병이라 하였다. 왕이 그를 시켜 사과케 하니 곧 나왔다.

(十九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 殺之,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祟, 王使謝之, 卽愈-유리왕조)

○ 21년 3월에 郊豕가 (농여) 달아나니, 왕이 犧牲을 맡은 薛支로 뒤

일이라면, 조선에서 굳이 중국이나 요동을 통해 돼지를 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제주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풍속이 일찍이 있었다면, 제주인들의 귀신 섬기기나, 제주여인들이 물허벅을 등에 지고 다니는 모습 등 한반도 내륙과는 상이한 제주의 풍속을 적은 이건의 『제주풍토기』나 김정익의 『제주풍토록』 등에 동시에 기르는 돼지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조선에서는 민간에서 돼지의 사육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주식 ‘돛통시 문화’가 한반도 남부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본토에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47) 주호를 제주도로 처음 비정한 학자는 과거 일본의 白鳥庫吉이다. 그는 주호를 북방계통의 종족인 선비족이나 오환족 가운데 해상을 통해 제주도로 이주한 집단으로 본 것이다. 그 근거로 주호인의 두발양식과 가죽옷 및 가축을 사육하였다는 사실이 선비나 오환족의 생활풍속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 이와는 달리 마한의 위치를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 주호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북한의 리지린은 白鳥庫吉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선비족이나 오환족의 유물과 유적, 풍습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에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白鳥庫吉의 설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마한 지역이 한반도 이남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압록강까지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한 서해의 큰 섬을 제주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둥반도와 발해만 사이에 위치한 廟島列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38~39쪽).

를 쫓아가게 하여 國內 尉那巖에 이르러 잡았다.

(二十一年,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一삼국사기 권 13 고구려 본기 제 1.유리왕조)²⁴⁸⁾

○ 12년 11월에 郊豕(祭天用的 돼지)가 놓여 달아났다.

(十二年, 冬十一月, 郊豕逸, -삼국사기 권 13 고구려 본기 제 1.유리왕조)

그런데 제천용으로 돼지를 사용한 것만 가지고는 돼지를 사육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만일 사육했다면, '놓여 달아나게' 된 것으로 보아, 사육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기록은 고구려인들이 낙랑의 구릉에 모여 사냥하고, 사슴과 돼지를 잡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한다는 것으로 제천용의 돼지가 산에서 잡은 멧돼지였음을 시사한다.

『古記』에 이르기를, "東明王 14년 8월에, 王母 柳花가 東扶餘에서 돌아가니, 그 王 金蛙가 太后의 禮로 장사지내고 드디어 神廟를 세웠다. (중략)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樂浪의 丘陵에 모여 사냥하고, 돼지·사슴을 잡아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한다"고 하였다.(삼국사기 권 31 잡지 2.제사)

(又云, 高句麗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

<신라>조에는 태종왕 10월에 안동군(굴불군)에서 두 몸과 발 여덟이 달린 흰 돼지를 바친 기록이 있다.²⁴⁹⁾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제사 때 희생으로 소와 양을 썼음이 기록되어 있다.²⁵⁰⁾

한편 발해는 말, 소, 돼지, 개, 양 등 가축을 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¹⁾ 발

248) 삼국사기 원문과 본문 해석은 <http://k5000.nurimedia.co.kr>에서 가져왔다.

249) 10월에 牛首州[춘천]에서 흰 사슴을 바치고 屈弗郡(안동군 임하면)에서는 흰 돼지[白猪]를 바쳤는데, 한 마리에 두 몸과 발 여덟이 달렸다.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屈弗郡進白猪, 一首二身八足(삼국사기 권 5 신라본기 권 5. 태종왕).

250) 1년에 5廟는 여섯 번 제사드리니, 즉 정월의 2일과 5일, 5월 5일, 7월 上旬, 8월의 1일과 15일이었다. 12월 寅日에는 新城 北門에서 8축[楛]을 제사하되 풍년에는 大牢[牲牛]를 쓰고 흉년에는 小牢[牲羊]를 썼다.

251) 이후 발해에서 돼지를 기른 것과 관련한 내용은, 누리 한국학 DB 발해사 연구 3 .경제 부

해에서 기른 가축으로는 말 다음으로 돼지가 유명했는데, 사료에는 ‘막힐의 돼지’라는 표현이 나온다. 막힐부는 관하에 막주와 고(힐)주를 포괄하고 있는 옛 부여국 땅으로, 부여 이래 이 지방에서 돼지를 많이 기른 것과 관련이 된다. 채태형에 의하면, 발해에서의 돼지 기르기는 육류보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발해 지역에서 나오는 집짐승 뼈 중에서 돼지뼈는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발해영역에서 살고 있던 말갈인들은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가축으로는 옷을 해 입었다고 한다.²⁵²⁾

고대국가에 대한 옛 문헌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여와 읍루, 그리고 발해 즉 한반도 북부지역, 요동이나 만주에 거주했던 조상들은 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하고 고기와 가죽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제례 때 돼지를 올렸으나 사냥에서 잡은 멧돼지이며 가축으로 키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길례대사인 환구에는 송아지를, 섭사(攝事)인 경우에는 오방신에게는 돼지를 제물로 하고, 풍사, 우사, 뇌신, 영성등 길례소사에 소와 돼지를 썼으며, 보사(報祀)에 양이나 돼지, 마조(馬祖)에 돼지, 사한(司寒)에 돼지, 석전 의식등에 돼지를 희생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 무자 15년(1228년) 장생서(掌牲署)의 관리가 얼굴이 고운 여자를 범하려다 위협하여 돼지우리에 가두어 죽게 한 기록으로 보아, 제사용 돼지를 국가가 장생서에서 관리하며 기른 것을 알 수 있다. 또 민간에서도 돼지를 기른 것으로 보이는데, 세 차례에 걸쳐 기형 돼지 새끼를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²⁵³⁾

문의 채태형 박사의 연구를 참조했다.

252) 舊唐書에 ‘그들이 돼지를 기르는데 부유한 자는 수백 마리에 이른다. 고기는 먹고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는 기록이 있다. 앞의 채태형의 연구 참조.

253) 태조(太祖) 12년(929) 5월에 서경 백성 능배(能盃)의 집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대가리는 하나요 몸뚱이는 둘이었다. /현종(顯宗) 9년(1018) 4월 병자일에 죽주(竹州) 민가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대가리는 하나요, 몸뚱이는 둘이요, 귀는 넷이요, 발은 여덟 개였다. / 숙종(肅宗) 3년(1098) 2월 계묘일에 군인 경연(景延)의 집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발이 3개인데 앞에는 두 개요, 뒤에는 한 개였다./고려사에 관한 예문은 모두 <누리 한국학 DB 고려사>에서 가져왔다. 여기서 가져온 글은 앞으로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돼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기사는 충숙왕 무진 15년(1328) 경인일에 있었던 것으로 돼지를 둘러싼 호승(胡僧)과 계림부 마을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경인일에 호승(胡僧) 지공(指空)이 연복사(演福寺)에서 불교의 계를 설교하였는데 선비들과 부녀들이 모여들어 설교를 들었다. 계림부 사록(司錄) 이광순(李光順)도 또한 무생계(無生戒)의 설교를 듣고 임지(任地)에 가서 그 지방 인민들로 하여금 성황제(性隍祭)를 지내는 데 육류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돼지도 기르지 못하게 엄금하였더니 그 고을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있는 돼지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엔 민간에서 성황제 때 돼지를 희생으로 썼으며 민간에서 돼지사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호승이 무생계를 설교하자, 사록 이광순이 설교대로 돼지 기르는 것과 돼지희생을 엄금하자 고을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마을에 있는 돼지를 모조리 죽였다는 것이다. 이는 돼지고기 금기가 불교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고려의 건국과 관련한 설화 중, 신라의 김량전이 당나라 사신으로 갈 때 작제건이 그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던 길에 서해용왕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처치한 대가로, 용왕의 장녀 저민희와 결혼한 이야기에 '돼지'가 보인다. 용녀는 작제건에게 칠보 대신, 칠보보다 더 귀중한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달라고 시켜 작제건은 돼지를 얻어 온다. 그런데 이 돼지는 작제건과 용녀에게 개성에서 송악산으로 이사가도록 유도하고 길을 안내한다. 이 설화는 돼지는 칠보보다 귀하며, 신이함이 있고, 작제건이 고려에 들어왔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를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저(唐猪)를 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짚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돼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히 많다. 중국 사신을 대접하고 제사의 희생으로 쓰는 것이 돼지를 사육한 주목적인데, 사료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기도 하고, 전호나 종친, 관리들에게 상급을 주면서 돼지를 키우도록 격려하

고, 민간에서 납세의 돼지고기를 돈이나 쌀로 대신 내게 하다가 돼지의 값이 너무 비싸 민폐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는 전구서에서 기르는 돼지가 너무 많아 민간에 나누어 주어, 늙은이를 봉양케 하는 등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소소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몇 기사를 살펴본다. 먼저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다는 기록이다. 이는 오늘날 돼지고기가 흔하게 먹는 고기 중의 하나여서 실록의 기록이 의심이 갈 정도다.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 김을현(金乙玄)이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 아뢰었다. “신이 아뢰기를, ‘사신 정구(鄭矩)는 정비(鄭妃)에게 동성(同姓)의 친척이 됩니다.’하였더니, 황제가 내관(內官) 구아(狗兒)를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광록시(光祿寺)로 하여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하고, 수가(隨駕)하라고 명하여 10일에 북경(北京)에 이르렀습니다.”²⁵⁴⁾

윤근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일찍이 ‘그대의 나라에서는 은(銀)도 캐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돼지도 기르지 않는데 어떻게 통화(通貨)하며 어떻게 고기를 먹는가?’ 하였습니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세종조에 일찍이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선통보(朝鮮通寶)라는 돈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상소(上疏)가 있어 중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은을 캔다면 중국과 재물을 통할 수 있습니다.”²⁵⁵⁾

우참찬 이숙치(李叔時)·병조 판서 정연(鄭淵)·참판 신인손(辛引孫)이 채소와 날고기를 드리기를 청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남새밭 채소 외에 잡종 나물이나 날고기는 드리지 말라.”하고, (중략)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내 각도로 하여금 날고기를 드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쉼내 여러 곳에서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려는데 어떠한가.”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호가(扈駕)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사오니, 보통 사람도 그러하온데 어찌 쉼내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 도는 진상하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되, 가까운 도는 정지시킬 수 없사옵

254) 태종 33권 17년 윤5월 8일 / 【원전】 2집 166면 /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255) 선조 48권 27년 2월 4일 / 【원전】 22집 215면.

니다.”하였다.²⁵⁶⁾

그런데 위 기록들보다 앞선 시대인 태조 4년의 기록을 보면, 닭과 돼지를 쳐서 늪고 병든 사람을 봉양하고 제사에 이바지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놓았으나 거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⁷⁾ 세종조에서도 여전히 닭과 돼지는 흔하지 않았으므로 쌀이나 소를 가지고 중국과 무역하여 돼지를 수입하도록 했다. 또 전구서에 돼지 수요가 늘어나면 돼지를 민간에 나눠주어 기르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신은 조선에 들어올 때 예물로 돼지를 가져왔으며, 조선에선 중국산 돼지가 작고 볼품이 없어 나중에는 크고 살이 잘 찌는 요동 돼지를 체례를 위해 사오기도 했다. 중요한 대목 기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전구서(典廐署)의 보고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옛 글을 상고하오니, ‘계돈구체(鷄豚狗?)를 기르되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면, 70된 늪은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것으로 보아도 모든 여염집에서 짐승을 쳐서 늪은이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재료를 준비하였던 것이운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법을 따라 행하고 있삽거늘, 우리나라에서는 닭과 돼지가 흔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늪은이를 봉양하고 조선(祖先)의 제사를 받드는데 보통 저자에 가서 좀 먹고 썩은 물건을 사다가 쓰므로, 《가례(家禮)》의 짐승을 쓴다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이제 전구서(典廐署)에 암돼지 5백 8마리가 있사온즉, 그 어미 돼지의 수요가 너무 많사오니 그 중에 크고 살이 찌서 새끼를 많이 번식시킬 만한 3백 마리만 골라서 남기고, 그 나머지 2백 마리는 자원하는 자에게 시세대로 팔아서 집집마다 두루 기르게 하여 번식시키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늪은이를 봉양하고 선대를 제사하는 소용에 갖추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⁵⁸⁾

256) 세종 99권 25년 3월 4일 / 날고기의 진상을 중지할 것을 물으매 대신들이 반대하다/ 【원전】 4 집 466 면.

257) 태조 8권 4년 12월 25일 / 음사 휘철, 가묘 건립, 축산, 토지분배 등 시무에 관한 법령을 각도에 이첩하다/ 지익주사(知益州事) 민유의(閔由義)가 음사(淫祠)를 헐어 버리고 가묘(家廟)를 세우며, 닭과 돼지를 쳐서 늪고 병든 사람을 봉양하고 제사에 이바지하게 하며, 절간[僧寺]에서 여중을 시켜서 반찬 장만하는 것을 금하고,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의 유이(流移)를 금하고 호적을 만들어 토지를 주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미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으나, 다만 거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사사(使司)로 하여금 각도에 이첩(移牒)하게 하라.” 【원전】 1 집 88 면.

임금이 신숙주·권남·한명회 등과 더불어 닭[雞]·돼지[豚]의 축양(畜養)을 의논하고, 드디어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닭·돼지·개·뚝[歲]의 가축을 그것들의 번식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70대(代)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정(王政)의 먼저 할 바이다. 우리나라의 토풍(土風)은 가축을 기르는 것에 일삼지 않아서 혹 손님 접대와 제사의 수용(需用)에 있어서도 오히려 또한 넉넉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경중(京中)·외방(外方)의 대소가(大小家)는 다 닭과 돼지를 기르고, 경중은 한성부(漢城府)·오부(五部)에서, 외방(外方)은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항상 고찰(考察)을 더하되, 세초(歲抄)마다 수효를 갖추어 계달(啓達)하라. 그 중에 가장 많이 번식한 자는 논(論)하여 상(賞)을 주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하여 벌(罰)을 주며, 관리(官吏)도 또한 빙고(憑考)하여 상벌(賞罰)하라.”하였다.²⁵⁹⁾

축양(畜養)의 문제는 위 기록에서 보여지듯, 사신 대접이나 제사나 늙은이의 봉양, 그리고 야인을 접대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어서 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풍(土風)이 가축을 기르는 것에 일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세종은 경중 외방 대소가에 가축을 기르게 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인 축양이 쉽게 자리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 13년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데 쓰이는 닭과 돼지를 국고에 있는 묵은 쌀로서 무역하여 쓰게 하였고²⁶⁰⁾, 27년에는 의정부에서 요동돼지를 들여와 사들일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따랐다.²⁶¹⁾ 이밖에 사축서와 전구서, 분예빈시에 있는 돼지의 사료나 생초,

258) 세종 28권 7년 4월 20일 / 전구서의 남은 암돼지를 민가에 나누어 팔도록 청한 예조의 계 / 【원전】 2 집 666 면.

259) 세조 28권 8년 6월 5일 / 호조에 경중·외방에서 대·소가에 가축을 기르고 세초마다 보고 토록 전지하다 / 【원전】 7 집 538 면.

260) 세종 54권 13년 12월 22일 /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 【원전】 3집 363면.

261) 세종 107권 27년 1월 18일 / 의정부에서 요동 돼지를 들여와 사육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요동(遼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마다 염소와 돼지를 사서 가져오게 하고, 또 통사(通事)로 하여금 먹여 기르고 불까는 [作馴] 법을 배워 익히게 하여 그대로 분예빈시(分禮賓寺) 별좌(別坐)를 삼아서 그 먹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또 전에 기르던 제사 소용의 중국 돼지는 토종과 잡종이 되어 몸이 작고 살찌지 않아서 제향에 합당하지 아니오니, 함께 사 가지고 오게 하사 이 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604면.

쌀겨 등을 경기 지역 민간인에게 부과하였고, 각 지역에서 공물로 돼지를 바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는 수를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면포 7,8필과 의복까지 주어 겨우 돼지를 사서 바치게 된다. 돼지값은 점점 더 올라서, 중종 16년에는 생돼지 한 마리당 배 60여필²⁶²⁾, 연산 9년에는 무명 40필²⁶³⁾, 정조에 이르러서는 생돼지 한 마리당 쌀로 5섬에까지 이르렀다²⁶⁴⁾. 그리하여 ‘백성들이 소를 끌고 가서 돼지 대신 바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²⁶⁵⁾ 이렇게 돼지값이 오르는 것은 첫째로 돼지의 사육이 우리의 민간 풍속이 아니었으며, 돼지를 키우는 일이 비용면에서도 만만치 않았고, 돼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농사를 망치는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종 1년 국정 전반에 관한 양성지의 상소에는 돼지를 기르는 데, 얼마만한 비용이 드는 지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모든 일이 그 명목은 있으나 실체는 없으니, 그 폐단을 혁파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 방납(防納)할 때에 방납하게 하였더니 백성에게서 많이 취한 것이 소목(燒木)만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 수백 구(口)를 기른다면, 돼지 한 마리당 사료를 불때는 데 드는 소목(燒木)이 1일에 11냥(兩)이고, 1두(斗)의 사료에는 나무 1근(斤)을 불때게 되니, 10두(斗)의 사료라면 10근의 나무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석(石)을 합하여 불때게 되면 1,2근을 더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1년에 돼지를 기르는 데에 사료를 불때는 나무가 2백 50근이니, 그 값을 쌀로 계산하면 23두(斗)이고, 그 사료인 콩도 72두이며, 밀기울[麥麩]은 반이 됩니다. 그러나 돼지 한 마리에 1년에 드는 비용이 가히 10여 필(匹)인데, 하물며 돼지의 본래 가격도 또한 각기 10여 필이겠습니까?²⁶⁶⁾

양성지의 계산에 의하면, 돼지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불때는 나무를 쌀로 계산해서 23두, 사료인 콩 72두, 밀기울 36두로서 1년에 드는 비용이 10여필이

262) 중종 41권 16년 2월 1일 / 【원전】 16집 16면.

263) 연산 49권 9년 4월 7일 / 【원전】 13집 556면.

264) 정조 32권 15년 5월 22일 / 각도에서 납제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치다/ 【원전】 46집.

265) 중종 91권 34년 8월 29일 / 【원전】 18집 330면.

266) 예종 6권 1년 6월 29일 / 국정 전반에 관한 공조판서 양성지의 상소. 【원전】 8집 393면.

다. 여기에 돼지 본래의 가격은 당연 10여필을 넘으니, 백성들이 기르기에 경제적으론 너무 부담스러운 ‘가축’인 것이다.²⁶⁷⁾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보다는 ‘각 고을의 역세고 교활한 무리’가 돼지를 기르며, 이 돼지가 민간의 화곡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다.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 고을의 역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양·돼지를 치우는데, 놓아 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옵니다. 삼가 《대명률》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는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한다.’ 하였고, 《속형전등록(續刑典謄錄)》에 이르기를, 성밀 10리 안 사유지(私有地)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율에 따라 태형을 처결하고, 그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몰수하여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 나누어 붙인다.’고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그 놓아먹이는 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피해를 덜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방은 성밑[城底]과는 다르오니, 단지 율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²⁶⁸⁾

호조에 전지하기를, “듣건대, 여러 고을에 새끼 치는 어미 돼지[孳息母猪]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전곡(田穀)을 해친다 하니, 각년(各年)의 새끼친 돼지를, 경중(京中)에 상납(上納)하는 것과 관가(官家)에 소용(所用)되는 것 외에는 모두 화매(和賣)하여, 원액(元額)을 넘지 말게 하라.” 하였다.²⁶⁹⁾

그런데 바로 위 기사는 어미돼지가 전곡을 해치는 것 뿐 아니라, 성종 대에 이르러서는 돼지의 수가 급증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화매케 하였으

267) 양성지는 위 글에 이어, 양도 돼지와 비슷하고 닭은 더욱 심하다 하였으니, 이로써 가축을 기르지 않는 민간의 풍속과 함께 육식을 즐기지 않았던 조상들의 식성을 유추할 수 있다.

268) 세종 87권 21년 10월 18일 / 예조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데 다른 폐해의 논죄 방법에 대해 아뢰다 / 【원전】 4 집 247 면.

269) 성종 17권 3년 4월 17일 / 돼지를 적당히 처분하여 원액을 넘지 않게 하도록 전지하다 / 【원전】 8 집 651 면.

니 돼지고기를 먹는 일 또한 이 시기에 와서는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싶다. 연산 9년에 오면 식용돼지를 전생서에서 기르게 한 기록²⁷⁰⁾이 남아있으니, 궁중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는 일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²⁷¹⁾ 그러나 연산군 같은 해 4월 기록에 돼지 한 마리당 40필이라 했으니, 민간에서는 돼지고기를 쉽게 구해 먹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논의를 정리하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으며, 민간 풍속 역시 축양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사신을 접대하거나 주자가례의 제사의식을 따르는 데 돼지가 소용되어, 무역을 통해 수입하기도 하고, 경중 외방 대소가 그리고 민간에까지 돼지를 기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돼지를 기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따라서 민폐를 많이 일으켰으나, 성종, 연산에 접어들어서는 그 수가 늘었다는 것, 그러나 민간인이 사 먹기에는 여전히 값이 비싼 고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에 소는 이와 달랐다. 농정(農政)이 기본이었던 조선은, 민풍이 예부터 소를 가축으로 길러 농우로서 활용하고²⁷²⁾, 나라에서도 사축서에서 따로 관리해 제사시 대퇴에 썼으며, 흉년을 만난 때나, 변방에 이주민을 정착시킬 때, 농우가 없는 농가에 소를 공급하여 농민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가에서는 소가 번성할 때나, 특히 흉년이 들 때나 농우를 잡아먹어서 정부에서는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소고기를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푸줏간마저 생겨 이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근의 야인들 또한 조선의 소를 교역하기를 원했으며, 야인

270) 연산 49권 9년 5월 10일 / 식용 돼지를 전생서에서 기르게 하다. 전교하기를, ‘식치(食治)에 쓸 저장(猪腸)은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른 것으로 쓰게 하라.’하였다. 【원전】 13 집 561 면.

271) 식치에 쓸 돼지에 관한 언급은 연산군 9년에 와서 처음 보인다. 영조 48권 15년 1월 18일에는 임금이 친경의 예를 묻는 가운데 노주(勞酒) 때에는 마땅히 소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겠으나, 친경하여 농사를 권장할 때에 농우(農牛)를 죽일 수 없으니 돼지로 갈음하도록 하라고 하고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소 대신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지 않았나 싶다.

272) 민가에서는 세금이 가혹할 경우, ‘곡식이 있는 자는 조석거리까지 모두 실어다 바치고, 곡식이 없는 자는 집안의 가산(家産)을 팔아서 바치는데, 심한 자는 농우(農牛)와 토전(土田)까지도 모두 판다’는 기록이 태종 9년 기록에 보인다. 이는 민가에서 소를 기르는 것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의 초피(貂皮)를 좋아하는 조선인들은 소로써 그것을 바꾸었으므로, 농우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소 천여마리를 본국의 쌀과 무역하게 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에 대한 일은 마땅히 황제에게 주문(奏聞)하여 면제하게 하겠다.하였는데, 지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드디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 것이다.하니,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창성·윤봉의 뜻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소는 사세(事勢)가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 보내면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되니, 마땅히 금년에 먼저 3, 4천 두 보내고, 나머지는 명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니, 판서 신상(申尙)이 아뢰기를, 농민이 쓰는 데에는 황소가 소중하고 암소가 가볍습니다. 황소는 마땅히 10분의 2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암소로 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암소는 생식하는 이치가 있는데 어찌 이(利)됨이 없겠는가. 황소가 비록 소중하나 다만 그 힘을 이용할 뿐이라고 하니, 상이 아뢰기를, 민간(民間)에 암소는 매우 많사오나 황소는 적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口전일에 여럿이 의논한 것에 좃아 황소 4천 두, 암소 6천 두로 정하라.하였다.²⁷³⁾

위 기록을 보면 조선은 명에 소를 진헌하거나 교역하였는데²⁷⁴⁾, 그 수가 황소 4천, 암소 6천두에 이른 것을 보면 오랫동안 소를 축양해왔으며, 농우로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후원(李厚源)이 치계하기를, 청나라 차인(差人)이 후춘(厚春)에서 나와서 농우(農牛) 1백 30두(頭)를 기어이 사려 합니다. 각 고을에 분정(分定)한 것은 70두뿐인데, 그가 줄곧 내라고 요구하면 몇 두까지 주어야 합니까? 북도(北道)는 막 병화를 겪고 또 우역(牛疫)을 겪었는데, 이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의 소를 몽땅 털어서 다른 나라의 수요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묘당을 시켜 지휘하소서.하였는데,

273) 세종 56권 14년 6월 3일 / 소를 교역하는 일을 의논하다 / 【원전】 3집 395면.

274) 영조 때에도 청나라 사람들은 개시(開市) 때 오로지 소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록이 보인다. 영조 82권 30년 11월 4일 / 【원전】 43집 545면.

비국이 1백 두로 한정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1백 두는 너무 많으니 팔구십 두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²⁷⁵⁾

이전에 병조(兵曹)예조 참관 이장곤(李長坤)은 서계(書啓)하기를, 병(兵)은 농(農)에 의지하고 농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병농(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인은 초피(貂皮)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농우(農牛)를 아끼지 않고서 이것과 바꾸거나 또 철물(鐵物)로 바꾸기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과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두 지나치게 사치를 숭상하기 때문에 초피는 날로 더욱 귀하게 되고 우리 백성의 소[牛]와 철(鐵)은 모두 저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소는 농사를 여유 있게 하는 것이요, 철물은 병기(兵器)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해 뒤에는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²⁷⁶⁾

위 두 기록을 보면, 중국인이나 야인이나 조선의 소를 교역하기를 원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초피 등을 얻기 위해 우마와 철기를 가지고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흉년을 만나서 혹은 식욕 때문에 소를 도살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고기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푸줏간이 정조때에 생겨나게 된다.

전교하였다. 전라 어사 임보신의 단자(單子)를 보니, 전라도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도살하여 이를 팔아 살아간다고 했다. 이것이 비록 굶주림 때문이기는 하나 만일 금지하지 않는다면 농우(農牛)가 장차 다 없어져 실로 내년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니, 이런 뜻도 아울러 본도에 하서하여 금지하게 하라.²⁷⁷⁾

하교하기를, 한때의 식욕(食慾)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농우(農牛)를 잡아 죽이는 것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 중첩된 도살이나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라.²⁷⁸⁾하였다.

275) 인조 50권 27년 3월 15일 / 함경 감사 이후원이 청나라 차인이 농우 1백 30두를 사려함을 치계하다 / 【원전】 35 집 346 면.

276) 중종 21권 9년 10월 13일 / 【원전】 15집 33면.

277) 명종 17권 9년 7월 16일 / 전라 어사의 단자에 의거하여 소 도살을 금지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원전】 20 집 217 면.

소의 도살에 대한 금령(禁令)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도 근래에 법망(法網)이 해이해져 도살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옛 의금부 건물 안에는 무뢰배들이 모여 무리를 지어서는 날마다 어두운 밤을 틈타 소를 훔쳐다가 그 속에 몰래 감추어 두고 고기를 파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기전(畿甸)의 농우(農牛)가 오래지 않아 씨가 마를 것이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소를 도살하는 자들을 포도청으로 하여금 비밀히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²⁷⁹⁾

아래 양성지의 상소는 농우를 잡아먹는 것이 이미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잡힌 것을 개탄하는 것으로, 농우로서 뿐만 아니라 ‘고기’를 제공하는 축양으로서의 소의 가치가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중략)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산의 소나무는 진실로 없어서는 안되지만, 설혹 없다면 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외(中外)의 소[牛畜]는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데 자산(資産)이 되니,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저 큰 창고는 곡식을 들여다가 저장하는 그릇이고, 소는 곡식을 생산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곡식을 생산하는 소가 없다면, 곡식을 들여다 저장하는 창고가 있더라도 이를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옛날에는 백정(白丁)과 화척(禾尺)이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경외(京外)의 양민(良民)들도 모두 이를 잡으며, 옛날에는 흔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 안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잡고, 옛날에는 남의 소를 훔쳐서 이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에서 사서 이를 잡습니다. (중략) 그리고 지난날에는 소를 잡는 도적[宰牛賊]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거골장(去骨匠)이라 칭하고, 여염(閭閻)의 곳곳에 잡거(雜居)하면서 소를 잡아도 대소(大小) 인리(隣里)에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략)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소를 잡는 풍속이 아주 달라져 농우(農牛)가 절종(絶種)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²⁸⁰⁾

278) 영조 125권 51년 11월 13일 / 중첩된 도살이나 사사로운 도살을 엄금하다 / 【원전】 44 집 502 면.

279) 선조 207권 40년 1월 17일 / 헌부가 용렬한 관리의 체차, 종묘 령 괘지선의 추고, 소 도살자의 처단 등을 아뢰다 / 【원전】 25 집 303 면.

280) 세조 41권 13년 1월 4일 / 농우 도살 금지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 / 【원전】 8책 56면.

그러나 선조 때 양성지의 이러한 상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를 먹는 풍속’은 보다 더 확고해져서 정조 때 큰 도회지에는 성균관 하례들이 푸줏간을 설치하고 가난한 집과 피폐한 마을에서는 백성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고, 심지어 쇠고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가게가 생겼다.

농가의 으뜸으로 치는 물건 중에는 소가 제일인데 소를 길러 번식시키는 일은 점차 그전만 못하고 날마다 마구 잡아먹는 일은 이 근년에 가장 심해졌습니다. 이름 있는 고을이나 큰 도회지에는 성균관 하례들이 푸줏간을 설치하고 가난한 집과 피폐한 마을에서는 미혹한 백성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심지어 큰 거리의 늘어선 가게에는 쇠고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데 쌓아놓은 고기가 마치 산더미 같습니다.²⁸¹⁾

위 기록은 소고기를 먹는 것이 풍속으로 자리 잡은 조선조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돼지고기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는 우리 민족에게 밭을 갈아주고 고기도 제공해주며 나라에서는 제사에도 소용되는 중요하고도 매우 친숙한 가축이었던 반면, 돼지는 중국이나 요동을 통해 들여와 주로 사신이나 야인을 대접하거나 제사에 썼고 우리 민족은 정작 즐기지 않았던 것이 조선조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은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당시 조선에서는 소가 부족할 경우, 제주의 소를 육지에 내다가 쌀과 무역하게 하였다. 아래 기록은 이 사실을 보여준다.

경기 관찰사 이자견(李自堅)이 수원(水原) 사람 어모 장군(禦侮將軍) 박장손(朴長孫)이 고하는 말에 따라 제주(濟州) 농우(農牛)를 육지에 내다가 사사로이 무역할 것을 허락하여 경작(耕作)에 편리하게 할 것을 주청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²⁸²⁾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이 도내(道內)에 농우(農牛)가 적

281) 정조 38권 17년 9월 11일 / 대사간 임제원이 올린 농우의 도살과 백징의 폐단에 대한 상소 / 【원전】 46책 409면.

282) 중종 15권 7년 1월 18일 / 제주의 소를 육지에 내다가 무역할 수 있게 하다 / 【원전】 14 집 554 면.

다는 이유로써 제주(濟州) 목장(牧場)의 소 1천여 두(頭)를 보내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소는 본디 1천 두에 불과한데 매년 빗갈이 검은 소로 20두씩을 가려서 경사(京司)로 보내어 희생(犧牲)에 제공하고 있으니 사체상 옮겨다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서(關西)의 둔전(屯田)에 있는 소 1천여 두를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²⁸³⁾

위 기록은, 제주에서 소를 농우로 활용하며 가축으로 길렀고, 매년 경사로 보내 희생에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0년 전만 해도 제주도의 각 마을 집집에 하나씩 있었던 돼지는 희생이나 식용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보낸 기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장황하리 만큼 논의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이 있음에도, 돼지고기를 먹는 신격이 자리 잡은 제주의 당신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의 논의에 보다 다가가기 위해 제주도에서 가축으로서 어떤 동물을 길렀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제주에서 소는 말과 함께 오래전부터 길러졌다고 할 수 있다. 탐라국 신화인 삼성신화에는 ‘벽랑국 혹은 일본국의 세 처녀가 우마와 오곡을 가지고 왔다’는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신화에서는 ‘가지고 말하기 좋은 자연의 과편’을 다루기 때문이다. 구좌읍 세화리 당신본풀이에는 명동소천국이 사는 곳을 ‘쇠뿔 물뿔이 실그락 흐렸구나’ 혹은 ‘멍굴눈이 따주애기 골리눈이 잡박눈이 쇠뿔, 물뿔 실그랑 하여서(쇠뿔과 말뿔이 앙상하여서)’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명동소천국이 최소한 우마를 기르면서, 이를 잡아먹고 사는 목축의 신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마의 축양이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의 토산물 가운데 말에 대해서는, ‘원나라 지원(至元) 시대에 탐라를 방성 분야라 하여 목장을 두고 단사관이나 만호(萬戶)를 두어 목축을 주관하게 하였다’는 사실과 정이오의 기(記)에 ‘마축의 생육이 진나라의 굴산과 같아서 여러 고을과 비할 바 아니라 했다’²⁸⁴⁾. 한편 소에 대해

283) 영조 37권 10년 1월 20일 / 조현명이 도내의 농우(農牛)의 부족함을 상소하다 / 【원전】 42 집 414 면.

28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8권, 제주목(『역주 신증동국여지승람 4』, 아세아문화사, 1983, 102쪽).

서는 검정이, 누렁이, 알록이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뿔이 심히 아름다워 술잔을 만들만하다는 주석과 함께 집집마다 목축하여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룬다고 했다.²⁸⁵⁾ 이외에 야생동물로 麋子(고라니), 미록(麋鹿)이 이 고을에서만 나고, 해달(海獺), 지달(地獺), 환(獾)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돼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읍 <토산>항목에는, 마소에 관한 언급은 위와 같고, 고라니(麋), 사슴, 노루(獐), 돼지(猪), 샫쟁이(狸), 해다리(海獺-큰화탈섬과 작은 화탈섬에서만 난다), 너구리(地獺)가 기록되어 있다.²⁸⁶⁾ 돼지(猪)가 등장하는데, 우마와 같은 가축에 나열되어 있지 않고, 고라니, 사슴, 노루와 같이 분류된 것을 보면, 여기서 ‘돼지’는 ‘산돼지’로 보인다.²⁸⁷⁾

그러나 <탐라지> 제주읍 <목양>에는 마장(馬場), 牛屯(췌둔), 양잔(羊棧), 저권(猪圈), 고유(羔圍)에 대해 기술하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마장에 대해서는 장오리 오름부터 감은데깃내에까지 7개 소장 38자, 말의 수는 6450필, 매 소에 말 감독 하나, 매 字에 우두머리, 부우두머리 1인씩, 목자 4인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牛屯(췌둔)²⁸⁸⁾은 제주 동쪽 어등개 위에 있는데, 순흑색은 적고 잡색이 많으며, 나라의 제향에 20마리를 보내고, 매해에 봉진하면서 소를 합쳐서 보내는데, 항상 부족함을 염려하여 민가의 소를 골라 충당하고 대신 잡색의 소를 주었다. 민가에는 기르는 소가 많아서 목동이 비록 사사로운 일일지라도 간호하지 않으면 발정한 암수가 서로 유혹하여 달아나서 곡식을 먹어버

285) 4-50년 전만 해도 집집이 한 두 마리씩, 넉넉한 집은 여남은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어 마을마다 계를 만들어, 집집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 소를 돌봤다고 한다. 왜냐하면, 발농사는 발농사대로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초봄에는 계를 조직한 사람들끼리, 소의 번성을 위해 들판에 가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정영평씨(72세) 제보.

286) 이원진은 이외에 사향쥐지(香鼠)와 전복, 모시조개, 옥돔, 은어, 상어, 갈치 등의 어류도 기록해 놓았다. 이원진은 1651년 5월부터 3년동안 제주목사로 있었는데, 1654년까지 새로 부임한 이태호가 ‘제주 민간의 풍속을 상고하고 세속의 인정을 살피고는 고을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근심하자’ ‘동국여지승람을 취하여, 본 기록에 빠진 것을 수집하여 찬술’한 것인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서 요점이 되는 것 또한 추렸다. (이원진 저, 김찬흡외 역, 『역주 탐라지』, 2002년, 푸른 역사, 51쪽, 279쪽)

287) 토산물에 대한 이원진의 분류는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곡식, 가축, 야생동물, 어류, 소금, 해조류, 버섯류, 발작물, 꿀 종류, 나무열매, 나무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288) 원문에 國屯이라 되어 있다. 민가에서도 소를 키우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원진, 앞의 책, 원문은 부록 탐라지 영인본 참조.

털 염려가 있어서 관에서부터 정하여 주었다. 양잔(羊棧)은 사라오름 남쪽에 있는데, 털을 얻어서 진상마(進上馬)를 장식하는 데 썼다. 고유(羔圍)는 염소를 놓아 먹이면서 기르는 동산으로 췌섬(우도)과 비양도에 있다.

여기서 저권(猪圈)이 눈에 띄는데, 제주 사창 가운데에 있던 돼지우리이다. 원문 기록은 다음과 같다.

猪圈 在州司倉中 此地家猪瘠小 不及山猪之肥大 乃知山猪恣食草根木實 而家猪養飼不 之所致也(저권은 제주 사창 가운데에 있다. 이 땅의 집돼지는 여위고 작아서 산돼지의 비대함에 미치지 못하였다. 곧 산돼지는 마음대로 풀과 나무뿌리, 나무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집돼지는 기르면서 부족하게 먹이기 때문이다.)²⁸⁹⁾

돼지에 관한 언급으로는 처음인데, ‘돼지우리’가 사창에 있다는 것은, 제주읍에서 따로 관리하며 길렀다는 것을 말한다. 양의 경우는 진상하는 말을 장식하기 위하여 관에서 길렀는데 돼지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 진상하는 공물 명목에도 돼지는 올라가 있지 않다. 한라산신제나 제사(향사)에 쓰기 위해 기르지 않았나 추측해본다.²⁹⁰⁾ 오늘날 유교식 포제에는 돼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저권은 제주읍에만 있고,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없었다.²⁹¹⁾ 따라서 민가에서도 돼지를 길렀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소의 경우에 민간에서 많이 길렀다는 것을 언급한 반면에 돼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앞선 시기의 기록인 『제주풍토기』에는 가축과 동물 항목에 돼지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 시기에 민가에서 기른 것으로 보기에 어려울 듯싶다. 이원진은 ‘집돼지가 작고 여의다’는 것에 대해, 먹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라고 했는데, 그 당시 조선 내륙에 들어왔던 중국산 돼지가 모두 작고 살이 잘

289) 이원진, 앞의 책, 원문은 부록 탐라지영인본 참조.

290) 삼성단에 지낸 제사는 유교식이므로 당연히 돼지를 썼을 것이다. 아마 이를 위해 돼지를 사창에서 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 정부에서 전생서에서 제사용 가축을 기른 것처럼 말이다. 마을에서 치러지는 당굿과 구별되는 유교식 포제에도 돼지가 쓰였다.

291) 대정현과 정의현 <목양>항목에 각기 ‘마장’과 ‘양잔’이 있었는데, 양잔은 역시 司倉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원진, 앞의 책, 원문은 부록 탐라지영인본 참조.

찌지 않으며 몽고에서 요동돼지를 사들였다는 실록의 기록에 비추어, 제주 돼지 역시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아닌가 한다.

한편 제주도 지역풍토지로는 연대가 제일 이른 김정익의 『제주풍토록』²⁹²⁾에는 ‘소는 매우 많이 사육하나, 값은 3,4정에 불과하며, 고기맛은 육지의 것만 못하다. 모두 산야에서 곡물을 먹지 못한 때문’이라고 했다.²⁹³⁾ ‘짐승은 노루, 사슴, 산돼지, 오소리 등이 많고 여우, 토끼, 호랑이, 곰 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조류는 꿩, 까마귀, 솔개, 참새 등이 있고 황새, 까치 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돼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지 못했다.²⁹⁴⁾ 이건의 『제주풍토기』²⁹⁵⁾에는 ‘동물에는 소, 말, 고라니, 사슴, 닭, 꿩, 까마귀, 제비’가 있으며, 곰, 호랑이, 송냥이, 이리 등의 사나운 짐승이 없고 토끼, 여우, 까치 등의 동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건은 목축의 어려움이나 광양당에서의 굶, 잠녀가 미역 따는 모습 등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돼지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만 해도 통시 안에 돼지를 기르는 풍속은 일반화되지 않았거나 없지 않았나 싶다.²⁹⁶⁾

292) 김정은 성종조와 중종조(1486-1521) 때 문신으로 을묘사화(1519) 때 제주도로 유배되어, 다음해 10월 사사된다. 따라서 그의 기록은 1년 2개월의 제주 유배 생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제주도의 특수한 기후조건과 그것에 따르는 가옥 구조, 풍속 특히 蛇神과 무당의 피해, 관원의 횡포, 토지 경작의 양상과 제주도의 동물과 어류, 토산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신의 유배생활의 정신적 상황을 수록’하였다(양순필, 「16,17세기 제주풍토록과 풍토기의 비교」 1992,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위원회, 449쪽).

293) 양순필, 앞의 논문, 457쪽에서 재인용. 해당 원문은 ‘牛畜即多 有價不過三四丁 而味不及陸地子 皆山野不食穀物故也’이다. 육지에서는 소 여물로 주로 콩을 사용했다. 제주는 밭작물을 얻기 어렵고 목초지는 넓은 까닭에 풀을 먹인 것으로 보인다.

294) 『탐라문헌집』(제주교육위원회, 1976)에 이건의 『제주풍토기』, 김정의 『제주풍토록』, 김상헌의 『남사록』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95) 이건은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의 셋째 아들이다. 인성군이 광해군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는 연유로 온 가족이 제주도로 유배와 8년을 제주도에서 머물렀다(1628-1635). 그의 『제주풍토기』에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뱀신앙, 제주도의 기후와 민폐, 목축상황과 목자의 고통, 농사의 경작 상황, 제주도 여인의 풍속, 굴의 종류, 잠녀의 풍속과 관원들의 횡포, 신당과 神社, 제주도의 동식물, 삼성혈의 신화, 김만일의 鈍馬 등과 유배시절의 심정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다(양순필 「이건의 제주풍토기 소고」, 『어문논집』 20, 고려대학교 민족어문학회, 1980).

296)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풍요로운 사람들은 밭벼를 심었는데, 산도를 심은 밭에 우마의 분을

사실 돼지를 기르려면 잉여농산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남사록>에서 김상헌은 ‘백성은 곤궁한 자가 많다. 이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치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은 부박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달리게 해서 밟아줘야만 한다. 목화솜과 삼이 나지 않아 의식이 모두 부족하다. 오직 해물로 연명해 나간다’고 했다.²⁹⁷⁾ 이때만 해도, 불과 30여년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돛통시와 밭에 돛거름을 주거나 돛거름과 보리씨를 함께 뿌리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제주 돼지는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는데, 우선 사람의 똥을 처리해주고, 또 음식 쓰레기도 다 처리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돼지똥을 모아당 보리씨를 섞어 밭에 뿌리는 겹주. 그냥 안하민, 또 소에나 말에야 돼지거름을 싣거나 밭에 뿌려, 밭을 갈아주. 괜하네 돼지는 생태학적으로 지금도 필요현 거여²⁹⁸⁾.

제주에서의 돼지는 ‘통시’의 구조를 통하여, 척박한 땅을 위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찌꺼기(음식, 인분)를 처리해 주었던 유용한 동물이었고 돼지의 사육은 해안마을의 생태지리학적, 생존전략적인 요구였다²⁹⁹⁾고 한다. 일례로 서귀포시 중심에서부터 동쪽으로 2.5km 떨어진 바닷가 마을인 보목리에선 1970년대 초 제주도에 화학비료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풀을 캐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었다³⁰⁰⁾고 한다. 이 거름용 바다풀을 보리과종을 끝낸 밭이나 고구마 모종을 놓은 밭 위에 깔아 거름으로 썼는데 비슷한 시기에 성산면 신양리에서

받아서 재삼 변경한 후에 파종한다고 하여, 돛거름을 쓰지 않고 마소의 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은 ‘島中 饒富之人即 種山山稻於田 以代米用 而山稻所種之田即 經年奮田 再三翻耕 然後 乃可播種’이다. 제주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197쪽

297) 김희동 역저 『남사록』 1992년, 영가문화사, 55쪽. 원문은 民多貧窮 地多巖石 鋪土數村 土性浮藻 墾田必驅牛馬以踏 又不產木棉麻枲 衣食 乏 惟採海物 以里生業.

298) 성산읍 고성리 정영평(남, 72세) 제보.

299) 김정숙, 앞의 논문, 30쪽.

300)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49~50쪽.

는 돼지에게도 이 바다풀을 먹였다 한다. 그러나 2,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런 돛통시와 돼지 사육의 역사가 얼마나 소급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민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따라서 국가에서나 어떤 특정 마을에 따로이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였는데, 제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신을 접대하는 염소와 돼지는 먼 도(道)의 각 고을에서는 수를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때에는 면포 7·8필과 의복까지 곁해 주고 겨우 사서 바치게 됩니다. 그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컨대, 경기(京畿) 좌·우도에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양축장(養畜場)을 4, 5곳 설치하고, 또 충주(忠州)·직산(稷山)의 두 곳에 양축장을 설치하여 예빈시(禮賓寺)·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 목자(牧子)를 정하고, 또 부지런하고 검소한 품관(品官)을 골라서 감고(監考)로 임명한 뒤에, 염소와 돼지를 나누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보살펴 길러서 번식하게 하여, 먼 도의 폐해를 덜어 주게 하소서.”하니, 호조에 내려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하였다.³⁰¹⁾

위 기록으로 보아, 사신을 대접할 때나 제례에 소용되는 돼지고기를 위해, 빈에서 말고 따로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나 충주, 직산 등지에 양축장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의 수를 각 고을에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한다.

결국 이 장의 논의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소는 우리 민족에게 토산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민간의 풍속에 농경의 도구로, 유사시에는 고기로 활용되었으며 그만큼 친숙한 것이었던 반면에, 돼지는 조선조까지 중국이나 요동에서 들여와 제례에 썼으며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민간이나 궁중에서 고기로 즐기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육 또한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제주에서도 비슷해서, 17세기에 제주읍 사창에만 저권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제주에서 언제부터 통시 안에 돼지를

301) 세종 56권 14년 4월 17일 / 【원전】 3 집 384 면.

사육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낫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돼지는 ‘금기시되기’ 쉬운 동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4) 항해와 표류로 인한 타문화의 수용

앞장에서 논의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조만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았으며, 돼지고기를 기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신이나 제례에 소용되는 돼지고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별도로 양축장을 두거나 빈예사에서 기르게 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잘 키우는 관리에게는 상급을 줄 정도였던 것이 본국의 형편이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돼지고기를 즐긴 신들과 그들이 보살피던 단골들은, 일찍이 돼지고기를 즐겼던 사람들, 즉 중국이나 요동, 만주에 거하던 민족들이나 혹은 유구국이나 남방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그들 민족의 이입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³⁰²⁾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나 유구, 일본 그리고 남만과의 교류가 가능한 요충지에 제주섬이 위치했으며, 제주의 해민들이 이른 시기부터 다른 나라와 무역하며 지낸 것과 관련이 있다.

제주인이 바다로 진출하여 인접한 국가들과 공식교류를 했다는 문헌 기록은 476년(문주왕2년)에는 백제와, 662년(문무왕2년)에는 신라와 공식 관계를 기록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661년에 공식 교류를 기록한 「일본서기」와 「제명기」가 있다. 8~9세기 경 당나라의 해외무역 최대 상대국은 바로 탐라국이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난 15~19세기 전반까지의 제주인들이 중국, 일본, 유구 등에 대해 쓴 견문록(표류기와 풍토기)만 보아도 7종이나 되고 15세기 후반 반세기 동안의 기록에는 표류하다 생환한 사람이 2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하여 해외나들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문물의 전수자로 표도자(剽到者)들도

302) 진성기는 ‘본도의 고인들을 비롯한 민속물에도 남방계 요소가 적지 않으니, 여기에는 안남(安南), 비율빈(比律賓), 남양제도(南洋諸島) 혹은 인도, 마래반도(馬來半島)로부터 난류에 의하여 북상하여 유구(琉球)를 경과하고 본도에 표착한 선주민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진성기, 「제주도무신의 내생관」,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회, 1975, 45).

많았는데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 본토와 중국, 일본, 유구국, 서양 등의 선박이 표도하여 섬에 머물거나 돌아간 사람이 5,000명이나 보고 있다.³⁰³⁾

위 글에 나와 있듯, 제주인들이 해상으로 인근 나라들과 무역하며 지낸 것은 탐라국 시기까지 올라간다.³⁰⁴⁾ 이런 오랜 경험이 제주인들로 하여금 덕판배와 같은 날쌔고 견고한 배를 만들어 동아시아를 누비게 하였을 것이다.³⁰⁵⁾ 아래 기록은 제주사람들과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접촉을 보여준다.

“내가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을 보니, 잡아온 사람들이 왜적이 아니고 곧 유구국(琉球國) 사람이라고 했다. 이도 역시 이웃 나라 사람이니, 의복과 음식물 등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별히 더 조치하여 송환하도록 해야 하는 일을 시급히 고찰하여 아뢰라.”³⁰⁶⁾

제주 목사(濟州牧使) 정인운(鄭仁雲)이 치계(馳啓)하기를,

“작은 배 한 척이 대양(大洋)에서 오므로 신이 적선(賊船)이 아닌가 의심하여 곧 친히 군졸(軍卒)을 거느리고 정박한 곳을 포위한 뒤 변에 대비했다가 마침내 모두 포획했습니다. 배안에 실려 있는 것은 단지 햇벼[新稻] 열 여덟 묶음뿐이옵고 그 성명과 어디에서 왔느냐를 물으니, 문자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말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차고 있는 막대로써 압직(押直)한 사람을 마구 치는데 포악하기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³⁰⁷⁾ 하니, 병조(兵曹)에 압송하도록 명하였다.³⁰⁷⁾

303) 송성대, 앞의 책, 284쪽.

304) 이는 제주도 일반신화인 <문전본풀이>에는 남선비가 일곱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곡(貿穀)’ 치러 가는 대목이 나온다. 무역에 의해 곡식을 구하여 왔음이 신화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른 시기부터 해상무역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05) 송성대, 위의 책, 315쪽 참조. 덕판배는 제주포작인(보재기)들이 만든 것으로 조선배보다 날쌔고 일본배보다 견고했다고 한다.

306) 중종 69권 25년 8월 9일 / 잡아온 유구국 사람들을 잘 대우하여 송환하도록 전교하다 / 【원전】 17 집 244 면.

307) 연산 26권 3년 8월 29일 / 제주 목사 정인운이 괴선 한 척을 포획한 일에 대해 치계하다 / 【원전】 13 집 273면.

제주와 같은 섬에서,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은 그 특성상 다른 문물을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겨진다. 위 두 기사는 유구국 사람이 표류한 경우와 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햇벼 몇 단을 갖고 어디론가 항해하다가 제주에 표류한 경우이다.

전에 제주(濟州) 사람들이 안무사(按撫使)를 죽였는데 최영(崔瑩)이 토벌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고황제(高皇帝)께서 또한 우리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탐라(耽羅)는 본래 달단 사람들로써 군신(君臣)의 분의를 모르고 오직 목축(牧畜)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니, 국왕(國王)에게 말하여 잘 무마하도록 하라. 또한 왜인(倭人)들과 늘 상통하므로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³⁰⁸⁾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제주는 곧 정금사(鄭錦舍)의 배가 일본에 왕래하는 길인지라 요망(瞭望)하는 일을 착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 고을 수령의 출척(黜陟)을 반드시 엄명(嚴明)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 다른 배가 와서 정박하는 때는 붙잡을 필요없이 그들 마음대로 맡겨두어 돌아가게 하고, 이미 잡은 한인(漢人)은 북경(北京)에 들여보낼 수 없으며, 만약 배가 파손되었다면 그 사람을 처치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배를 주면 혹시 저들 나라에 누설될까 두렵고 또 차마 북경으로 보낼 수 없으니, 오직 고의로 배 한 척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여 저들이 흠쳐서 타고 가기를 용납하고,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이것을 아울러 분부(分付)하라.□□³⁰⁹⁾

물론 일본사람과 중국 사람이 표류해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주인들이 왜인과 늘 상통한다는 게 중국과 조선 정부의 생각이었고, 중국 선박의 표류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조정에서 가르치기도 있다. 이들 기사로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항해나 표류 등으로 다른 나라 사람

308) 중종 15권 7년 2월 15일 / 대사헌 윤금손 등이 왜인 접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다 / 【원전】 14집 559면.

309) 숙종 5권 2년 1월 24일 / 제주 목사 윤창형에게 중국 선박이 표류하였을 때의 처리 방법 등을 가르치다 / 【원전】 38집 319면.

과의 문화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⁰⁾

제주도 지역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특히 뱃고사나 영감(도깨비)한테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통째로 바친다. 돼지고기와 술을 즐기는 외래신인 영감(도깨비신)을 모시는 당이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사실,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신들이 섬으로 쫓겨나거나 해안가로 가는 본풀이 내용 역시 돼지와 해안가 마을의 친연성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들을 매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선왕(船王)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며, 본국과 인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며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제주 뱃사공, 곧 해민(海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인들이 본국에 공물을 바치러 가거나, 양곡을 교역하러 갈 때 표류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³¹¹⁾. 다음 기록은 제주인이 폭풍을 만나 중국 남경에 표류하여, 거기서 보고 들은 바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제주의 해민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남경에서 돼지고기를 대접받는 대목은 주목된다.

제주의 표류인 만주(萬珠) 등 【만주는 자칭 첨지(僉知) 서후(徐厚)의 종이라 하였다.】 이 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20일에 제주에서 신공(身貢) 을 배에 싣고 떠나 추자도(楸子島)에 닿았을 때, 폭풍을 만나 표류되어 윤2월 1일에 중국 남경(南京) 회안위(淮安衛) 지방에서 정박했습니다.(중략)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냐?’고 묻는 듯하기에 저희들이 ‘우리는 고려 백성들이다.’하니 그들은 곧바로 이장(里長)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장이 곧 나와서 둘러보고 배를 끌고 가 상사(上司)에게 알렸고, 그곳 관원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만호(萬戶)와 같았는데, 걸어 나와 살펴본 다음 최만동(崔萬同)만 데리고 회안부(淮安府)로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의 옷 모양을 보고서야 조선 사람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10) 장보웅에 의하면, 제주도 남서부 열대 해역에서 흘러오는 난류 쿠로시오의 지류가 제주도 의 남쪽 해역을 흐르고 있어서 제주도 남부 해안에는 야자나무의 열매가 표착되고 주민들은 그것을 주워다 쪼개서 바가지로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앞의 논문(1995), 256쪽.

311) 제주사람 손효기가 말하기를, “우리고을은 멀리 큰 바다 가운데에 있고 파도가 다른 바다 보다 가장 흉하고 거칠은데 貢船과 商船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바닷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죽는 자가 열에 다섯 여섯은 된다” 하였다(김상헌, 앞의 책, 61쪽).

회안위에는 육사(六司)가 있는데 육사가 저희를 둘러본 다음 사창(司倉)에 유치(留置)시키고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끼마다 일인당 쌀 두 되, 돼지고기 한 근 그리고 간장·식초·생강·마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도 구경꾼은 매일 뜰을 가득 메울 정도로 모여들었는데 군사들이 문을 지키며 금지하자 은(銀)을 뇌물로 바치고 들어와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³¹²⁾

이들 제주 표류인들은 6개월이 넘도록 중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위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끼 돼지고기를 대접받았다. 앞에서 이 당시 한반도나 제주에서는 돼지사육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돼지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음을 알았다. 따라서 이 기록은 제주인들의 이러한 표류 경험이 돼지를 접하게 하고 이를 도내 다른 지역에 전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제주인들이 유구국에 표류하여 돼지를 접하기도 하고, 유구국 왕자나 사신들이 제주에 표류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말해주는 기록도 있다. 먼저 제주인이 유구국에 표류한 기록을 보자.

처음에 병자년 정월 25일에 선군(船軍) 양성(梁成) 등이 제주(濟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서 2월 초2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이르렀었다. (중략) 소산(所產)은 금(金)과 은(銀)이 나지 아니하여 남만(南蠻)·일본(日本)에서 사서 사용하였다.¹⁾ 금수(禽獸)는 가축으로서 소·말·돼지·닭·개가 있었고, 날짐승으로서 까마귀·참새가 있었는데, 그 풍속이 앵무새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여 항상 중국에서 사왔었다. 수륙(水陸)의 산물은 물에서 나는 것이 다만 어물(魚物)뿐이었고, 육지에서 나는 것은 유자(柚子)·귤(橘)·감(柑)뿐이었다. (중략) 초득성(肖得誠) 등 8인이 금년(今年) 정월 24일에 나주(羅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초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 미아괴도(彌阿槐島)에 이르렀다. 섬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실어 와서 먹이고 인도하여 이 섬에 머물게 하고서 섬사람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여 공급하였다. (중략)저자[市]는 강(江)가에 있었는데, 남만(南蠻)·일본국·중국의 상선(商船)이 와서 서로 교역하였다. 남만은 나라의 정남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3개월 만에 도착할 수

312) 『조선왕조실록』 중종 78권 29년 11월 24일 / 【원전】 17집 550면. 淮安衛中有六司, 六司巡視俺等訖, 留置于司倉, 供饋三時不輟。一時每一人, 用二升米, 豬肉一斤, 醬醋薑蒜皆在焉。

있고, 일본국은 나라의 동남쪽에 있는데 5일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중국은 나라의 서쪽에 있는데 순풍이면 2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¹³⁾

위 기록에 의하면 양성 등은 1456년 정월 25일에 제주에서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국(琉球國)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이른다. 이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만난다. 또 일본인, 남만, 중국인들이 서로 교역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제주인 초득성 등이 표류하여 그곳에서 대접받은 이야기도 듣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돼지고기인데, 당시 유구에는 가축으로 소, 말, 닭,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술과 고기로 표류인들을 대접하였으니 거기에는 돼지고기도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기사는, 표류하여 온 유구국 사신이 조선 정부에 전하는 유구의 풍속으로, 특히 여성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해신인 천비에게 지내는 제사가 제주의 요왕신에게 보내는 지드림 혹은 선왕신에게 드리는 뱃고사와 비슷한 일면이 있다는 점이다.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의 선위사(宣慰使) 이계손(李繼孫)이 문견사목(聞見事目)을 올리기를, (중략)신(神)에게 제사하는 예(禮)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라에 신당(神堂)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으며, 만약 남에게 혐의(嫌疑)가 있으면 무당[巫人]에게 부탁하여 신(神)에게 축원(祝願)하는데, 무당이 신(神)의 말을 전(傳)하기를, ‘마땅히 그 집을 불태워야 한다하면, 즉시 신(神)의 불이 일어나서 다만 그 집만을 불태우고 잠시라도 그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으니, 그것이 두렵기가 이와 같다. 만약 남편이 술로 인하여 아내를 학대(虐待)하여 아내가 곧 신당(神堂)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에서 즉시 그 남편을 목 베는데, 목 베지 않으면 먼 섬에다 던져 놓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한다. 또 신(神)이 노(怒)하면 나라 안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역질(疫疾)이 발생하는데,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祈禱)하면 곧 중지된다. 또 바닷가에 천비(天妃) 낭랑전(娘娘殿)을 지어 놓고, 만약 배가 떠날 때에는 말과 돼

313) 『조선왕조실록』 세조 27권 8년 2월 16일 / 유구국 북쪽의 구미도에 표류하였다 돌아온 양성의 표류기 / 【원전】 7집 512면.

지를 목베어 제사지내며, 배를 큰 바다에 띄웠다가 혹시 풍랑(風浪)을 만날 때에는 배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천비(天妃)에게 묵념(默念)하고 붓[筆]을 달아 놓으면 그 붓이 저절로 떨어져 스스로 쓰기를, 「평안(平安) 무사(無事)하리라.」 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말은 괴탄(怪誕)하니 꺾어 보지 않고서는 족히 믿지 못하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나도 또한 일찍이 들었으나 믿지 않았는데, 내가 행선(行船)하다가 여러 번 풍랑(風浪)을 만나서 과연 이러한 경험을 하였으니, 맹세코 허망(虛妄)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³¹⁴⁾

유구인들이 바닷가에 지어놓은 ‘천비 낭랑전’은 바다의 여신을 섬기던 사당이다. 배가 떠날 때 말과 돼지를 목 베어 제사지내는 것은 제주도에서 선왕신에게 드리는 뱃고사나 요왕신에게 보내는 ‘지드림’과 유사하다. 물론 제주도에 ‘말’머리는 올리지 않고 돼지머리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점이 다르다.³¹⁵⁾

따라서 이들 기록을 바탕으로 제주 해민들은 표류나 항해 등으로 이러한 경험을 종종 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이들로 하여금 타문화를 접촉하고 이를 제주에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중산간 마을과 달리 해안마을에 살았던 해민들은 ‘항해’와 ‘표류’를 통해 다른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돼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³¹⁶⁾ 물론 이

314) 세조 27권 8년 2월 28일 / 유구국 사신 선위사 이계손의 문견 사목(聞見事目), 해신 천비에게 제를 지내는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又於海邊, 作天妃娘娘殿, 若發船則斬馬豬祭之, 泛舟大洋, 或遇風浪, 船中人共齊心念天妃懸筆, 則其筆自落自書云 “平安無事。” 臣曰, “此語怪誕不經, 無足取信。” 答曰, “吾亦嘗聞而未信, 吾行船屢遇風變, 果有此驗, 誓不妄談。” 問朝中朝常貢之數, 答曰, “一年一度遣臣朝貢, 硫黃六萬斤, 良馬四十四, 如珠貝等物, 不拘數。” 問女國之事, 答曰, “女國在處吾未曾見知, 但聞在西良之地, 水流無力, 投鵝毛即沈, 人不得淺。未知其國風土、人物何如” / 【원전】 7집 521면.

315) 이를 잘 보여주는 당신본풀이가 있다. 조천면 <조천분향>으로 ‘군마진상’ 바칠 때 당고사 뱃고사를 올리고 이 때 돼지머리를 바쳤다는 것이다. 본풀이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중부인 정중아미 서월 먹장골서 솟아난 정중도령. 우리나라 군마진상 바칠 때 조천 수천포로 군마진상 바칩네다. 군마진상을 바치레 갈 때 돼야지 잡아서 당고스광 배고스를 하여야 배 파산을 아니시키고 고스를 아니흐민 배파산을 흡네다. 이 당은 정중물이 시여서 정중부인이 그 밭디 살명 이 물을 먹었수다. 진성기, 앞의 책, 367쪽.

316) 16-17세기 한반도 본토와 중국, 일본, 유구국, 서양등의 표도인이 5,0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돼지고기문화 유입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16,17세기 초반 이전까지 제주에는

때 ‘돼지’는 한반도 내륙으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나오듯, 당시 제주목 ‘司倉’에는 돼지우리가 있었고, 그것은 제주목에서 제사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한반도 내륙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선후를 가릴 수는 없으나, 제주의 해민들이 항해나 표류로 타문화를 접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제주섬으로 새로운 문물을 실어 나른 메신저로서 해민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가축으로서의 ‘돼지’는 그 놀라운 번식력으로 해촌에서 점차 중산간으로, 그리고 전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는 돼지를 사육할 잉여농산물이 전제되어야 한다.³¹⁷⁾ 따라서 가축으로서의 돼지의 사육이 가능하던 때, 그러나 여전히 ‘낮선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에, ‘돼지를 둘러싼 신들의 갈등’이 당신본풀이에 전사되지 않았나 싶다.

5) 여신 축출의 기제로 쓰인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

음식은 많은 경제활동 중 가장 중심된 것으로 가장 폭넓고 가장 친숙한 상태 위에 만들어진 사회조직의 산물이자 거울이다. 그리고 음식 속에 내재된 의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는 성 개념과 성욕 사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먹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 성적 경험 혹은 성차별의 경험이었다. 많은 문화 속에서 특히 음식이 부족한 문화 속에서, 음식 선물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볼리비아 서부지역 저지대의 시리오노에서의 식량부족에 대해 홈버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음식은 혼외의 성 파트너를 얻는 데 가장 좋은 미끼의 하나이다. 그리고 남자는 종종 미래의 부인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음식게임을 이용한다.” 많은 문화에서 먹는 행위, 성교,

돼지사육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와서 사창에 돼지우리가 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따라서 인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유입이 많던 이 시기에 돼지고기문화 유입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17) 일례로 서귀포시 중심에서부터 동쪽으로 2.5km 떨어진 바닷가 마을인 보목리의 경우, 1970년대 초 제주도에 화학비료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풀을 캐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었다. 이 거름용 바다풀을 보리과 종을 끝낸 밭이나 고구마 모종을 놓은 밭에 위에 깔아 거름으로 썼다(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49~50쪽), 이 때 돼지먹이로 바다풀을 먹었다고 한다(강봉녀 (여, 65세) 제보).

출산은 서로 관련이 있다.³¹⁸⁾

캐롤 코니한의 말처럼, 돼지고기를 둘러싼 갈등에서 우리는 한 쪽 성이 다른 한쪽 성에 요구하는 특정 음식의 금기를 본다. 그것은 한라산신 계열의 남신이 함께 좌정한 여신에게 요구하는 ‘돼지고기 금기’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경우 여신들은 대체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였거나 하여 입이 ‘굽번’ 상태, 즉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때이다. 임신과 관련 없이 ‘뚝고기’가 먹고 싶은 것 역시 식욕에 대한 갈망이다. 여신들은 남신이 없는 상황에서 ‘금기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는다. 본풀이에 따라 돼지털을 그슬리거나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일곱명의 딸애기를 낳기도 하고, 출산 후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여신 - 돼지고기 - 임신 혹은 출산’으로 정리된다. 이는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는 곧 성교 행위로 임신 혹은 출산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를 보이는 본풀이의 여신은 결국 다른 남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가. 다음 구절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

㉔“양반의 부인 행실이 부족하다” 물도 낭도 엇인 더위섬에 귀양을 보냈더니, 예즈로 홀로 살 수 엇어, 개삼싱(浦三神)이 느리고 애기를 일곱 개 배였더니. 낭군님이 혼채 살 수 엇어서 소과부채(小家夫妻)를 장만했더니, (토산 본향 옷당, 471쪽)

㉕신중부인은 아길 일곱을 찾뚝골이 배여 놓고(토산 본향 옷당,464쪽)

㉖공주아미가 흐는 말이 “신선또가 천상배필이라 신선또를 츠산 오는 질이우다”, “나가 신선또우다.” 들안 오란 천상배필이 됩네다. 애기가 흐나 둘 낳는 것이 딸만 일곱을 낳난, 일곱 애기 설고 배고 낳젠 흐난 입이 굽번, 잔칫집이 놀래 갔단, 도새기괴길 얻어먹언 오라시난, 신선또가 흐는 말이, “어떤 일로, 부인님아 전이 엇이 칼또지 동경내가 낱네까?” “전이 엇이 입이 굽부난 잔칫집이 간 뚝숯은 국물을 얻어먹었수다.”“큰 사름 부인 노릇 못흐겠다. 땅 갈르곡 물 갈르라.” 신작로 ㄱ로 비연, 옷칫 서당할망 일곱 애길 거느려 낳안 살암시난.(신선당, 구

318) 캐롤 코니한. 앞의 책, 28~35쪽.

좌면 평대리 평대본향, 429쪽)

㉔는 돛털을 취해 귀양을 가게 된 부인이 그곳에서 바닷가 신을 만나 일곱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고 ㉕는 신중부인이 ‘만삭이 된 돼지같이’ 아기 일곱을 가졌다는 것으로, 모두 일곱 아이의 출산이나 임신이 돼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㉕는 딸애기 일곱을 낳은 공주아미가 잔칫집에 가서 돛 삶은 국물을 먹고는 동경내가 나서 ‘땡 가르고 물 갈라’ 신선또와 따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³¹⁹⁾ 그런데 돼지고기를 취한 여신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보다 명료함을 주는 대목이 있다.

㉔ 부인 일뿔할망은 브르뭇도광 ㄴ찌 송당서 느려올 때 목이 ㄴ웃ㄴ 웃 몰라지니 도치자국에 물을 빨아 먹단 도치술이 코레레 들어 동경내가 과히 나서 “부정한다. 동이술넷ㄴ이(천번)로 좌정하고 몸 목욕을 하라. 나 서답 빨래나 허여 도라. 구뭉 일뿔로 만민즈손이 정성을 드리건 동이술동산 사서 후망을 하고 치매깍이 모질도록 눈아피 이질 배아피 급흔 급질 만경 급경 경풍 경세 급흔 호일즈 ㄴ뜨거 세벨 막아주라”하여 위흔는 한집입네다.(〈〈세화본향〉〉당, 표선면 세화리)³²⁰⁾

㉕ 부배간 일뿔할망은 부정한다 허연 옷말캐미 좌정하고 연세답이나 허여 도라(표선본향, 표선면)³²¹⁾

㉔와 ㉕는 표선면 <세화본향>과 표선리 본향인데, 남신은 돼지를 취해 부정한 여신에게 냇가로 가서 ‘몸 목욕’을 하고 빨래나 하라고 주문한다. ‘목욕’을 하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빨래나 하라’는 것 역시 일차적 의미로는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취한 여신의 부

319) 코니한은 음식과 성에 대한 본능은 비슷하다며, 그것들은 대개 일치되는 상징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감, 즉 성적 친밀감과 친족관계를 의미하고’, 먹고 성교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또한 사회적 결합을 상징한다는 것이다(캐롤 코니한, 앞의 책, 34~35쪽).

32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705쪽.

321) 현용준, 위의 책, 702쪽.

정함이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땡을 가르고, 물을 가르’ 수 밖에 없으며, 남신의 경우 후첩을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신은 결국 ‘돼지고기 금기의 맥락’을 떠나서 여신 혹은 여성을 축출하는 기제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³²²⁾ 아래 <토산웃당본풀이>가 이를 보여준다.

㉞ “예즈란 혼 것은 혼를 열 번 죽을 일도 혼곡 살 일도 혼네다. 그만쪽 혼 일에 성님을 귀양을 보내여시니 그만 못혼 일에 나를 귀양 보낼 것이니 나도 가오리다”-중략-“설룬 성님. 귀양풀리레 왔습네다.” “누게라 되느냐?” “새로 온 금상이 됩네다. 훗처로 오랐습네다.” “그만쪽 혼 일에 귀양을 보내여시니 죽어도 아니갈로라.” 새로 금상이 말을 하도 “예즈는 지아жат법이 있습네다. 나 인정을 뺏 읍서 가게.” “아시 하는 일도 고맙다.”(웃당본, 표선면 토산리, 466쪽)

당신본풀이에서 남신이 여신을 축출하는 대표적인 두 기제는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와 ‘양반’으로 명암을 내미는 경우이다.

드리본향 한집님은 산신또입니다. 송당당 아홉척 아들롭서 삼천백매 일만초깃발을 거느려오던 산신또 한집님. 하로하로산으로 산설 물설을 뽀아 돛배오름 오라 좌정하여 앉아보니 굴묵낭목 서안상 받아오던 서당국서 큰부인 고씨 할마님. 방이오름 서안상 불러오던 큰도안전 좌정하여 시니 명암을 드려 “언관도스 곁은 양반이 우리곁은 이런 가인네 안티 명암은 무신 명암입네까?” “당신님안티 명암을 드릴 적이 무신 일로 드립네까?” “언관도스 곁은 어른은 브름 우로 좌정흡서. 우리는 브름 알로 좌정하겠습네다.”<산신또>(교래본향②, 조천면 교래리, 358쪽)

조천면 교래본향에서 산신또는 굴묵낭목에 이미 고씨할망이 좌정한 곳에

322) 이는 제주에 여자가 많았고, 또 후처나 첩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회 풍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송성대, 앞의 책, 432~450쪽 참조. 또한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地誌에 의하면 딸 낳기를 중히 여긴다. 진상 상선이 전후하여 이어지고 바닷길은 험하여 자주 표물을 당하기 때문에 섬사람은 딸 낳기를 중히 여기며 여자 수가 남자의 세곱이나 되어 거지라 할지라도 다 처첩을 가지게 된다.’ 『남명소승』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비록 殘疾이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를 얻는 것이 많으면 팔구인까지 된다.’ 제주교육위원회, 앞의 책, 53쪽.

‘양반’의 모습으로 명암을 내밀고 ‘바람우’로 좌정한다. 이러한 예는 당신본풀이 여러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³²³⁾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를 가진 본풀이는 돼지고기를 취한 여신에게 남신은 ‘양반의 부인은 못된다’, ‘큰 사람 부인 노릇 못한다’, ‘양반의 부인 행실로는 부족하다’며 쫓아낸다. 즉 양반의 부인이란 ‘유교적 관념’이 당신본풀이에 스며들어 돼지고기금기 모티프와 결합하여 여인을 축출케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대립되는 의미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식성 갈등과 의미

	바람우		바람알	
중산간 마을	米食, 중산간 여신, 농경 백주또, (-大食) 맑은도, 이주신, 백메, 백돌래 (-부정함), 남신, (-돼지) ³²⁴⁾	↔	生肉食, 산간 남신, 수렵·사냥 소천국, 大食 토착신, ‘따뜻한 간’ ‘맛있는 피’	산간 마을
	중산간, 양반, 바람우또, 산신또, 언관도서 농업 또는 목축, 소, 맑은도, (-돈육식), 보수, 익숙함	↔	부정함, 여신(일뤼중저), 돼지 해안, 선왕, 도깨비, 개로육사 또, 늘내 보재기, 바다, 어부, 잠수, 돈육식 개방, 새로움, 바 다	해안 마을

위 표의 ‘바람우’와 ‘바람알’을 구별하는 ‘키워드’는 식성이다. 식성 혹은 음식습관은 그만큼 신들의 세계이든, 인간의 세계이든 어떤 한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습관은 철저히 사회적이고 관습적이며, 자기 공동체와 타 공동체를 구별하고, 한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의 방식이 된다.

위 표에서 ‘바람우’와 ‘바람알’은 신격의 지위를 나타낸다. 당연히 바람우가 더 우월함을 말한다.³²⁵⁾ 바람알에 있는 신들의 식성의 공통점은 ‘늘내, 비린

323) 조천면 <와흘본향>, 제주시 영평동 <다라콧신대기마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24) 여신이 돼지를 취한 반면, 남신은 돼지를 취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것, 육식'으로 상대편 신들에 비해 '부정하거나' 또는 '열등하다.' 그리고 이들이 배경으로 한 사회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자연을 얼마나 문화화했는가 하는 것과는 관련된다. 한라산신이 있는 산촌이나 요왕신이 있는 바다는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신이든 인간이든 어느 정도 '늘 내'를 맡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중산간은 인간이 오기만만하게 자연을 '경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산촌과 해촌 사이에서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체되고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 금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일뤼중저류의 여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마 거기에 기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고히 한 것은 조선조 중·후기에 뒤늦게 들어온 '유교적 관념'이다.

이 장의 결론은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는 중산간에 거처한 남신이 이 금기를 파기한 여신 혹은 여성을 축출하는, 도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돼지의 부정함은 '통시 안의 돼지'가 주는 더러움, 잡식성, 낮섬, 이질적인 것 등에서부터 부정한 성적 관계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어떤 신의 제물로서 특정 역할을 해온 음식이나 또는 집단 내에서 금기시되어온 음식은, 그 집단 혹은 민족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징코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한 집단 혹은 민족의 언어가 그들 삶의 문화와 사회, 역사를 옹송그리 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325) '근데 그 도새기 받는 한집이 어디냐, 김녕. 열일곱차 아들이 그디 가신디, 김녕, 아차 일곱차 아들이 김녕을 가신디, 그디 가면 아들 하나만 고개를 칠 수가 있는데 옛날엔 가시낭 거더당 구언먹으낭 식으루 가시 그 줄뵈는 가시낭을 걷어다가 고기를 도새기를 잡으면 열일곱 꼬지를 쫓대요. 열여덟꼬지 열여덟 성제 본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없었대. 고기. 까져서 갈라먹을거 빼만 남고 예 우린 안 봤어. 그런 거. 거 이제 한주차한테 나면 그영 또 그서 또 갈랑 먹고 경한디 그 사깨난 남자들은 고길 먹고, 여자는 깨끗한 데로 앉아서 우트레 들어 아꼐다는 거지. (여자들은 깨끗한데 앉으려고 위에 앉고 남자들은 고기 먹느라고 밑에 앉고)'(양정순심방 구술, 필자채록본 참조)

V. 결론

제주에는 무속제의에서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을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한라산과 바다 등 그 지리성을 긴밀하게 반영하며 토착성이 강한 자생신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설촌 과정을 설명하며 마을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제주도의 여러 마을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당신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마을 신화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신들의 식성 갈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에 채록된 제주도 당신본풀이들에 나타난 식성갈등의 양상과 구조를 분석하고, 현지 심방들과 주민들의 면담 조사 및 본풀이 구연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텍스트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당신본풀이에는 식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식성을 중심으로 한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식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느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체계 안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사회로 올라갈수록 어느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와 금기는 그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롤 코니한이 언급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규칙들, 금기들, 요리법 등은 어느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며, 신체이미지이기도 하고,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이나 음식에 관한 금기 등은 어느 한 집단의 의미체계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다루기 좋은’, 다시 말하여 ‘우리 사회의 숨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신들의 식성은 신화에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금기와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며, 또한 제물로서 나타난다. 제주의 당신본풀이에 등장하는 당신들은, 자기의 제물을 명시하는 특성이 있다. 가령 ‘맑고 맑은 신’들은 백돌래, 백메, 청감주에 달걀 안주를 원하며, 날뽕내, 놀낭내가 나는 육식을 금기시킨다.

이에 비해, 육식의 신들은 스스로 돼지고기나 혈반(血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미식신의 우월함과 이에 대한 육식신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신들은 동거나 혼인의 조건으로 식성을 묻는데, 이때 상대방의 신이 육식을 할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하여 따로 좌정시키거나 아예 쫓아낸다. 그런데 특히 돼지고기금기 모티프가 있는 신화의 경우, 아직도 심방과 단골들에게 그 금기가 지켜지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식성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은 다시 그 대상이 날고기인가, 육식인가, 농우인가에 따라 조금씩 양상이 다르지만, 육식이 금기시되었으며, 특히 목축이나 농경의 자산이 되었던 소나 말의 식용에 대해서는 터부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농경문화에 대한 지향으로 해석된다. 제주도 당신본풀이는 수렵시대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더불어 농경문화의 유입을 보여주는데, 미식의 여신과 육식의 남신 사이의 식성갈등은 이러한 문화수용의 갈등이 본풀이에 표상화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는 신들이 대식성으로 인해 쫓겨나는 것이다. ‘대식가’인 신은 소천국, 송곡성이나 케네깃또와 같은 소천국의 2세대, 그리고 이주신인 금상과 같은 장수신이다. 신들의 대식은 모두 육식과 연결된다. 금상은 ‘밥도 장군, 술도 장군, 피기도 장군’인 식성을 가지고 있으나 백주와의 결혼을 위해 자기의 식성을 포기했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뚝제’를 받는다. 송곡성의 대식은 용왕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화 속에서 신들의 대식성은 자신의 출신지가 아닌 곳, 즉 용왕국과 같은 이계에서 표출되는데, 이 대식성으로 인해 그 세계에서 쫓겨나거나 또 다른 갈등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것은 척박한 토양과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제주인들이 ‘많이 먹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 따라서 소박하게 먹고 절약해야 한다는 관념을 신화 속에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신이든 남신이든 돼지고기를 먹으면 쫓겨나는, 소위 돼지고기금기 모티프이다. 이들 신화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취

한 신들은 부정하게 여겨져 귀양을 가거나 쫓겨난다. 이러한 신화에서는 대체로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어 해안가 마을로 쫓겨나는데, 이는 실제로 이러한 여신을 모시는 당이 위치한 곳과 일치한다. 그런데 해안가 마을에서 어부와 잡녀를 관장한 신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에 대한 부정 관념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깨비신인데, 이 신은 만주나 한반도에서 들어온 신으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다. 토착신 중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개로육사또와 일뤼중저 여신들이다. 개로육사또는 포구의 신으로서 ‘날내’가 나기에 미식의 신들에게 기피되며, 일뤼중저 여신들은 바로 돼지고기금기를 깨뜨려 쫓겨난다. 그런데 이들 신은 모두 돼지고기라는 공통분모와 함께 바다나 어부, 잠수, 선박 등을 차지하여 주로 해안가에 거주한다.

해안가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는 탐라국 시대부터 인근 나라와 교역을 하였다. 또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표류되어 오거나 제주 사람들이 표류되어 다른 나라로 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주의 해민들이 중국이나 유구 등에서 돼지고기 음식을 접대 받았고, 돼지머리를 가지고 뱃고사를 지내는 것을 경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해민들이 제주에서 어찌면 맨 처음으로 돼지와 돼지고기 문화를 받아들인 집단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제주도의 돼지사육은 통시 안에서 기르는 것으로 한반도 내륙 지방과는 다르고, 전북 남원이나 경남 산청 등 남쪽 일부 지방과 비슷하다. 제주도과 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오키나와도 소위 제주식 돼지 사육, ‘똥돼지 문화’가 발견된다고 한다. 이로 보아 똥돼지 문화는 가장 오래전부터 돼지를 키운 중국이나, 유구국(오키나와) 등지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등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돼지는 ‘즐기지 않은 음식’이었으며 ‘낮선 것’이었고, 또 사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가축’으로 기록한다. 조선 전기나 중기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전생서나 축생서에서 돼지를 키웠으나 사육에 애로가 많았던 만큼 민간에서 돼지의 사육이 보편화된 것은 ‘식용’으로 돼지를 쓰라는 기록(연산군 9년) 이후일 것이다. 제주도에는 언제 돼지가 들어와 단백질을 공급하고 똥거름을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7세기에 처음으로 이원진의 탐라지에 ‘사창 안에 돼지우리가 있다’는 기록이 보이고 그 이전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 토산물에는 돼지에 관한 기술은 없음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통시 안에서의 돼지사육의 보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소와는 달리 돼지에게는 잡식성인 식성과 더불어 ‘낮섬’, ‘부정’의 의미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돼지가 ‘똥돼지 문화’와 함께 유입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를 보이는 본풀이가 존재하는 곳은 해안가와 중산간의 접경지대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금기 모티프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에 거주했던 집단의 갈등이 신화로 표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은 농업이 중심이 된 양반문화를 특징으로 하며 해안 지역은 어업을 중심으로 한 반농업의 비양반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해안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알뜨르 보재기’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반 조건 역시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해안가에서 먼저 수용한’ 집돼지, 즉 통시안의 ‘늑발달린 흑사추물’인 돼지에 대한 ‘혐오’와 ‘금기’를 만들었으며, 돼지를 취한 여신을 해안으로 쫓아내었고 이러한 갈등이 당신본풀이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식성 갈등은 미식과 육식, 여신과 남신, 해안가 마을과 중산간 마을과의 갈등 구조로 나타났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갈등은 외래에서 유입된 낮섬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이 신화적으로 표상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가축화된 돼지의 사육 기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제주도에 이미 야생의 멧돼지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소위 똥돼지로 알려진 제주도의 돈육문화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제주도 똥돼지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주도 똥돼지의 기원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명확해지리라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고대경, 『신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2002.
- 김상헌 저·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메리 더글라스 저,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제주인의 해민정신』, 각, 2001.
-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이원진 저·김찬흡 외 역,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6.
-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제주도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인문지리』, 도서출판 각, 2004.
- 주영하, 『음식 전쟁 문화전쟁』, 사계절, 2000.
- 진성기, 『현용준박사 회갑기념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 박사 회갑기념 논총발간 기념위원회,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 _____, 『제주도 금기어 연구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2.
- _____,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 _____, 『남국의 무속-제주도무속논고』, 민속원, 2003.
- 질베르 뒤랑 저, 유평근 옮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살림, 1998.
- 캐롤 M 코니한 저, 김정희 옮김, 『음식과 몸의 인류학』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1999), 갈무리, 2004.
- 프레데릭 J 시몬스 저, 김병화 옮김, 『이 고기는 먹지 마라-육식문화의 터부사』, 돌베개, 2005.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 논 문

- 강소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2005
- 강용권, 「돼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민속학연구』 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2002.
-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2.
- _____,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송당세화서귀포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_____, 「행원리의 민간신앙」, 『백록어문』 3·4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87.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0.
- 김창민, 「제주도의 역사와 당제」,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 김현선,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바다의 세계」, 제 3회 민속학국제학술회의, 한국민속학회, 1999.
- _____,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의 위상」, 『비교문화연구』 5호, 서울대비교문화연구소, 1999.
- _____, 「제주도 토산당 옷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03.
- _____,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계보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4.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3.
- 박종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2.
- 양순필, 「이건의 제주풍토기 소고」, 『고대어문논집』 20집, 고려대학교 민족어문학회, 1986.
- 유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94.
- 이기욱, 「제주도 사신승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
- 장보용, 「한국 통시 문화의 지역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0권 3호, 대한지리학회, 1995.
-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3집, 제주학회, 198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년.
- 장주근, 「제주도 서사무가(본풀이)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11집, 제주학회, 1994.
- 전경수, 「을나신화와 탐라신화 산고」,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1992.

-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9.
- 정진희,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9.
- 주영하, 「식사, 기호, 민족음식; 음식에 대한 민속학적 조망」,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 진성기, 「제주도 고산리의 민간신앙」, 『한국문화인류학』 4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1.
- _____, 「본향당의 신앙과 당신의 유형」, 『한국문화인류학』 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_____, 「무격과 신격의 흑백양태」, 『민속학논총2』, 석주선박사회갑기념논총발간위원회, 형설출판사, 1987.
- _____, 「제주도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7.
- 천혜숙, 「민속신화의 범주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 『인문과학』 2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 현용준,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학회, 1989.



**The Study on the Conflict of Food Habits from the Village
Myths (*Dangsin-Bonpuri*) from Jeju**

Min, Yoon Suk

Supervised by Chun, Hye Sook

Major in Folk Literature and Arts

Department of Folklore

General Graduate School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ultural significance on the conflict of food habits from the gods (*dangsin*) based on the village myths (*Dangsin-Bonpuri*) which have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ostly by shamans in Jeju, Korea.

From the village myths, it is frequently quoted; counterpart of *Dangsin* was usually denied or expelled if he/she answered meat-eating when he/she was asked the food habit for the condition of marriage or living together. This taboo was more stringent about pork-eating, and it is still observed by the shamans and customers of Jeju shamanic rituals.

Food conflicts expressed in *Dangsin-Bonpuri*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First, the conflict arouse between rice-eating goddess and

meat-eating god. In this case, eventhough the degree of negativeness would be somewhat variable for the meat-eating habits such as eating meat as raw or not, or eating farming cattle, it was tabooed for god eating meats, specially cattle or horse which were the valuable assets in agriculture. This pattern may imply cultural conflicts and the inclination toward agriculture of Jeju villagers amid from the long, ancient tradition of hunting and a new inflow of rice-based agriculture. Second, the conflict arouse from heavy eating and being expelled. Even gods were not accepted as having voracity, possibly because of the infertile land and poverty of mundane life of Juju villagers who still value their life in a simple and thrifty way. This is stressed from the verb, "if you eat much, then you will be bankrupted"

Third, the conflict arouse from eating pork by no matter of god or goddess. There was a clear conceptualized taboo of eating pork. Generally once the goddess contacted or ate pork, then expelled from mountain regions which seemed more divine to the coastal villages which was mundane. This coincide the locations of many *dang* (shamanic shrine) worshipping those expelled goddess. On the contrary, preexisting *dangs* where the main customers are fishers and woman divers (*jamnyeo*) in the coastal regions have no anti-pork culture. The representing example would be *Doggaebi-Dang* (Bugaboo Dang) of which the goddess came into Jeju from the mainland Korea through Manchuria.

From the historic records, Korean did not enjoy the pork and also were not well acquainted with rearing pig until King Yeonsan year 7 in Chosun dynasty when King began to utilize the pork as food. The situation would

be same in Jeju as in the mainland since there was no record of rearing pig in Jeju until the mid 17 century. Even though there had been wild pigs in the mountain area, domestication of pig would have been introduced from outside, which was strange with the *Ddongdoiji* (pig fed human excrements as a part of diet) culture and also costly to feed the pig (recall that pig requires good source of protein and carbohydrates, but Jeju villagers were very poor). Thus the dirty and costly rearing of the pig brought out the negative image and consequently provoked the cultural conflict. This hypothesis is supported by the historic records that the first contact to pork was made by the fishers who were more inclined to drift away to, or to have chance to meet and experience the draftees from south China or their culture of rearing, pork-eating and rituals with pork.

Summarizing, the rearing and pork-eating culture would have been introduced from outside and firstly accepted by the coastal villagers. The conflicts between the mid mountain villagers and coastal villagers were expressed in the form of village myths (*Damgsin-Bonpuri*). Since the woman, specially in Juju, was responsible for the households including rearing pig, once she took the pork (depriving the house asset), she would has been expelled. The details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cluding sociological and biological aspect are anticipated to support and unveil the conflict of food habits expressed in *Damgsin-Bonpuri*, especially for pork-eating and domestication.

Keywords: *Damgsin-Bonpuri*, Jeju, food habit, pork, culture

<부록1>

<세화본향>

구좌면 세화리 큰심방 오인숙님(여, 81세) 구술

조사; 2006.8.2(세화리 큰심방 자택)

조사자: 민윤숙/ 채록; 민윤숙, 박혜영

1.

우리 세화리 본향 영실은

이 채암에 이디 한로 영산 중허리에서 솟아나쨌하지.

그 할아버지가 솟아날 때

청갓때 청무디 능흙만건

솟을랑 녹악산 좌우두르는 안음 버음 금책.

(미신타과 해났지. 우리 그때 요만씩 할 때 저기 우리 당. 우리 큰 할마니가 해나신디 그 당집 나라에서, 경찰에서 다 불부쨌배서. 괴난 그디 전설만 냉 나 시민 그거 진짜 서울이고 어디고 다 늑음해가곡 해실건디. 그 손드랑머리로 행 저 큰질로 행 넘어가는 디 그 당고개 가면 말탄 사름도 말 아래 내려서 넘어가주 몰 탄낭 가젠허민 건방지땡 험, 말 발목아지를 딱 꺾어부러서. 손드랑 머루)

그 하르방은 안음 버음 금책에 좀 도은 금북에

일천장에 배릿돌에 삼천장의 먹을 글아

낱는 날은 날젠형 생산 받고 죽는 날은 죽엿정 물고 받고 그런 할으방.

2.

백주님은 저 서울 남산

(서울 남산 이슨가. 우린 신이서 배완 끝는 말만 끝는디)

서울 남산 백옥산서 이제 솟아

청몰래왔디서 솟아난 임이임정국

서울 남산 백옥산 고는대왓 소대왓서 대왓(대밭)속에서 솟아났쨌게.

계난 임의임정국 또님애기라

혼 일곱에 아방눈에 골리나고 혼 일곱에 어멍눈에 미움반앙

요왕 황제국에 백주님이지. 건 여자. 백주님은 여잔디.

천제님은 남자 하루방이고
 백주님은 여잔디 경헨 어멍아방 눈에 나니깐(요왕 알아져).
 요왕황제국에 외삼촌안티 들어가니깐 열두부술을 내줘서.
 청걸리 청중추 노걸리 노중취 황당상 별마작
 이제 열두부술 청폰체 내권
 제주절도 들어가그넵
 천자할으방이 외할으방이랜.
 외할으방 세숫물 떠놔그넵.
 혼공일공 허랜해난.
 오란 천자할으방님 찾앙 한루영산 중허리 가부난
 할으방영 풀아 아자난 방석만 무쇠방석만 있고
 할으방은 어슨거라. 경헨 내려오당 보니깐
 (삼천년금 소렴당이렌 건 저 할로산서 내려오당 보민
 들이 어디 그 남빈긴생이라. 너름보담끼 잉.)
 삼천년금소렴당 삼천선부들이
 이제 두전장군 푸덕장군
 피리단지 옥단지 귀악기 내논 맨 노념을 햄시니깐
 그거슬 호슬 나도 빌리민 내가 노념을 반앙
 나도 시름을 쉬영 할으방도 없고 하난 돌아오는 찰라에
 나가 시름을 호슬 쉬영 가키영 허난
 여자는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인디(재수가 없는디)
 지나가는데 어지럽젠,
 계난 청폰체 내놔 동더레 서테레 고닥고락 흥그러부니깐
 그 삼천선부들이 그 시간에 곧 죽을성향이라.
 (부술을 부려부니깐).
 계난 그 사람들이 죽기전에 어디간 물으니깐
 백주님의 노시리엔, 백주님의 노릇이니까 백조님을 풀리렌.
 계난 이제 막 귀악기도 가져갑서 후리좋은 달기항기도 가져갑서
 모든 걸 다 내준거라. 모든 걸 다 내주니깐
 백주님이 자기 노념을 해영 시름을 쉬언.
 이제 또 청폰체를 흔들어부낭
 또 풍뭉치 죄 준거를 다 거두왔지.

내려오당 보니깐
 명동소천 고비금상 상원님은 호술 나쁜 사람이지
 (지치사농마사농하는 건 산에 사농댕기는 사람
 네눈이 반동개비 하는 건 개지.
 거시기 도돌피 감티 하는 것은 가족감티 이)
 가족감티 쓰고 네눈이 반동개 거느리고
 지치사농마사농 감시냥 계난
 “어디 가며는 천자할으바님 사는 디 가지느니.”, 물으니까
 자기 사는 집을 가르치고서,
 백주님이 예쁘고 고우니까 자기가 홀목이라도 한번 심어보쟁
 백주님은 질로 오는 세에,
 그 소천국은 캣담질을 넘어낸 깡 지네집이 들어완
 도돌피 감티도 벗어붙고 갈람저고리 갈람중의 다 벗어두고
 풀한 진창웃 입어넣, 천자할으방 곁이 앉은기라.
 백주님은 그 올래 들어가명 한발을 디디고 한발을 내디디명 가보난,
 사농해 먹은 것들 쇠짱 말짱이 막 탕천해 있으니까
 “말도둑놈 쇠도둑놈 투, 더럽다.”
 으 천자 할으바님 사는 디 가르쳐도랜해난 나쁜 행동 함쳐 해낸
 확 돌아서서 올 때 뒤로 돌아왕이넝 백주님 홀목을 팍 잡아븐거라.
 (백주님이 예쁘니까)
 “더러운 잡아난 홀목인든 뵈당 뵈하리?”
 토시칼로(백주님이 가정칼이신디 심어난) 홀목을 깡안
 벚름알래래 던져븐거라.
 계난 피가 난거라 피가 나니깐, 소아쟁 전대로 푼툼 묶언
 천자할으방님 처음엔 돈돌땅이라고, 저 동쪽에 살아났주.
 다시 두 번차는 요 손드랑ㄴ루랑 살았신디,
 (나중에는 여 부추밭이 당집 짓어주. 크게. 15평만한 집 짓었지.
 여기서 배래져. 우리 올래에 가면 배래져).
 계난 할으바님이 지난 “어떻하난 너가 오나네 날핏내 날항내가 하덴?”
 “고자 곧든 할으바님 살으난디 가르쳐도랜 하난
 명동소천고비금상 자기 사는 집을 가르쳐 작피를 했수덴” 하넝
 으 께쌌하덴 난 불쭈안으로 장남으로도 안 돌안 살아난 놈이

“내 손주 오는 디 잭피짓을 하난

물 갈라라 땅 갈라라”

(요 갯머리 그디 바름물이라고 물바다 곁곁에 바람물 이서.

물탕탕 내려오는 디 그 머리에 배를 간간 붙인 거라. 배를 싹 붙인 거라.

이 팽디 사람 이리로 못 넘어오게 하고,

여기 사람 거기로 못 넘어가게 하고

또 팽디 사람하구 세화리 사람하구 사둔두 안 혀곡.

이제는 다 어울려졌지 이제는. 현대잖아. 옛날엔 딱 갈라)

팽디 사람 세화리 시집 못 오구 세화리 사람 팽디 시집도 못 가곡 지냈신디
그추룩하넌 백주님광 천자할으방은 혼공일공 사는디,

3.

금상한집은 돼지피기 받아먹는 조상이라.

그거는 나양 동축서 솟아난 조상.

(이거는 아방도 없고 어명도 없이 자기 작패로 난,

중심 어디서 그냥 나온 거 같이 그냥 나온거라.)

혼 일곱에 우레 크고 나래 크고 장수가 된 거라 일곱 살에.

저갱이로 날개 들고 계난 우레크고 나래크니까

(너무 억세니까, 장수가 되니까,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일곱 살 난 도령을 이
겨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불제)

무쇠집 짓어 놓고 무쇠불무를 붙어 구웁 죽어불젠

혼 일곱난 애기업개가 돌아댱기단,

“미웁한 저 장수님아.

저 장수를 잡아불젠

무쇠성 둘러놓고 무쇠집 지어놓앙 무쇠풀무 불엄시덴”,

계난 사름이래도 우레크고 나래크고 자기 작피로 나오란

겨갱이로 날개 다 들고 그러니까

뒷꼭댱이도 비늘이 이신 생이라. 비늘이.

칼로 비늘을 뒷꼭댱이 비늘을 슬슬 거시랜

칼 끝에 꿰어난 군사를 거느린거라

삼천명이 제군서 사천명이 제군서

오천명이 제군서 육천명이 제군서 칠천명이 제군서

팔천명이 제군서 구천명이 제군서
 육쌍대쌍 할미초광 각시광 갈채광대 일놀이 희롱하게 불빛 창빛으로
 피란나오젠. 거기서 잡아불젠 피란 나오젠
 제주 열도로 피란 나오난 이제 사라봉.
 사라봉 들어가는다,
 사라봉을 근당하난 그 뱃머리계서 사라봉을 영 쳐다보니까
 삼천 선비들이 투전장구 바둑장구 두시다가
 “목 베인 제 장수가 (목이 막 칠구 진짜 비늘 거시리고 뭐하난)
 목 베인 제장수가 우리국을 망하게 들어온다
 우리 입김으로 불어불자, 게 푸! ”
 (그 심방들 그 대목엔 거의 옛날엔 막 저기 해도, 오잠 말명으로 푸 해영, 푸
 를갱을 주게)
 계난 소섬 진질작을 채려놔서
 오조리 당머리루 들어완 (오조리가 당이 있는 색이라)
 오조리 당머리로 들어오라
 (큰 와야미 하난 거 모르지, 이 오름이저 거 저 시흥이 떠오린다)
 큰 와야미 청주에 들러받고
 죽은 와야미 흑주에 들러받고
 멀미오름은 세안상을 들러받아
 상사바리 돈도르당 들어오랑
 천자하라방님이 인제 들어간거라 계난)
 “어디 장수가 되는냐?” 하난
 “나영전서 소사난
 날로 지어 금상이고 들로 지어 금상입니다
 아방무유 어명무유 무의유아 소사나난
 하늘은 아방이고 시야는 어명 되어
 혼일곱에 장수가 되어 우리크고 너리크니까
 전안에서 저를 잡저
 무쇠성 둘러놓고 무쇠집 저나 무쇠불미 불르거난
 피란쳐로 제주도로 나오난 (피란 나온거지 몰르게 나온 거지 피란으로)
 천자하루방님 전에 명함을 드려
 혼공일공하고 후댕고탱 살주댕 왔습네다.”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천자 하루방님은 뭘 음식을 잡습니까?”
 “우리는 백돌리 백시레 맛이 좋아 청감주 청감주 먹느니라”
 “백주님은 무슨 음식 먹습니까?”
 “백돌리나 백시리나 칼로 베면 쇠내 나니까, 참실로 뻥 실로 뻥 정경패나
 (정경패난 건 이렇게 이렇게 진뻑이서 이렇게 이치록 이치록하게 이당계)
 덜꺾 잡아(닭을 잡아) 안전지나 맛이 좋아 창감주 계알안주 먹느니라”
 “나는 술도 장군 먹습니다. 안주도 장군 먹습니다.
 술 보면 안주 생각나고 안주 보면 술 생각나고
 술도 전동이 동이로 먹고 안주도 전머리
 “돼지도 혼 머리씩 먹고”
 경하난 천제하루방이 “푸” 더럽덴, 나가랜 이디는 못 산대
 그날 이제 백주님이 문당이 가마이 선 들난
 이제 경하난 금상이 나가젠 풋짐 철레 나오는 거라.
 “에 미육한 제 장스님아 혼이름난 두루를 몰랑쿠나.
 천자하루방님 잡수는 냥 먹쿠뎡 고릅생.
 전에 먹던 음식을 버리크덴 고릅생”
 해나제 경 고르나니
 게면 핏죽썩 목 계해라 핏죽 씨갓고 세(허) 계해라
 청감주로 목욕허라 자소지로 염불염질을 아리우라
 혼공일공에 석달 열흘 살아가난
 먹던 음식을 못 먹은난 금상이 막 죽을상이 된거라
 (응) 백주님이 “어떻헨 금상한집은 죽을상이 됩수겠?”
 “피골이 상식이 되어 죽을 사경이 됩수게난?”
 “우린 먹던 음식을 못 먹은난 피골이 상식 되난.”
 백주님 이제 천자하루방님한테 골아사
 “금상한집은 먹던 음식을 못 먹은난 죽을 사경이 됩수다”
 “게면 우리가 상을 받아 도라상 뒤에 금상한집만 떨어여땅,
 이제 먹던 음식을 먹으랜.”
 (우리 세화리는 게난 우리도 피기 잘 못 먹지. 못 먹어 못 먹는 게 아니고 불
 공을 뎡기려고 못 먹지. 열에 이틀 돌아오정 하면 벌써 이들난만 이들부터는
 그냥 쾌기를 못 먹어. 제일루 영, 우린 젊을 때 한창 머슬 뎡긴느니 뭐 머슬

안 덩길 때 먹젠 해도 불연히 일당 뭐 푸닥거리도 해도라, 애기도 뭐 시식해
도라, 뭐 요왕에도 요양맥이래도 가도라, 초왕제도 해도라, 시왕하는 때문에
먹을 틈이 어성 못 먹어 이제는 늙어가지고)

혀난 이디 해두 다 청허기는 다 곳찌 청해여 잉 다 고지 청해

불공은 다 해놔잉 이제 잔 집혀 (잔 집히는 거 아라져? 잔 올리는 거)

잔 껌혀그녕 이젠 “조상 읍서읍서” 조상 이젠 계난 잔 껌혀멍, 이제 먹음 갑생
하지 갑생 하연. 그 몹은 조상을 문딱 보내동

도새기나 잡앙 대접할 적에는 여 금상한집만 특별 안집서.

잔 집혀멍 “다른 조상은 다 갑사 갑사당 금상한집만 뒤떨어집서.

이제 자손논들 아무 자손 남도리도 네발공사 올리쿠다.

백근근량 준주위 초흐레 열두살반 호곤 대잔치 왜계할류 올리코다”

형형이제 다른 조상은 다 갑생해동 그 조상만 뒤떨어져 십쟁에

계난해 신랑치빈 (예) 새서방 프린 떠는 새각시가 들어온딩히

은행해 든봉고사 멀머리 베르고사 이바지코사 톨 프는 식의 잔치할 때

톨 프는 집이는 톨이 나간댕 하는 뜻에서 난봉고사 멀머리 베르고사

이제 백근열량 춘춘히 자우리 열두살반 호곤대잔치 왜계한류 올라코다” 경했
다.



<부록2>

<신양리 본향>

성산면 신양리 큰심방 양정순(여, 74세) 구술

조사; 2006.7.31(신양리 큰심방 자택)

조사자: 민윤숙/ 채록; 민윤숙, 박혜영

별로 뭐 들을 거 없구. 곳 허는 걸 해야 특이허지.
가정집이서 곳허는 거.
본향제일은 본향만 거느리고.
그런데 여기 본향은 어디냐 하믄,
여기 본향이 저 송당 아들 다섯째 아들이야.
다섯째 아들. 여 송당이라 불리거든. 다섯째 아들인데.
영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거든.
옛날에 배울 때부터 분리를 아는 사람을 안 해노니까
아방국 소천국 어멍국 금백주 송당아들 다섯째 아들이라고
그 당을 이리 가지갈라 와서 지금
(아 여기서 송당에서 가지갈라온 당이에요.)
옛날은 그리 전부 다 갔었는데 사람이 많이 불어부니까
이 쪽이 이 부락에서 가지 갈라다가 당집 짓고 있어요. 당집 짓어서.
그런데 거 영감은 뭐영 하나면 생각도 없이 말을 하영
아방국은 저 열룬이³²⁶⁾ 어멍국은 저 종달리라고.
(아방국은 저 열룬이? 온평리)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랬당 했단 내빌구.
원 분리는 나가 아까 말한 대로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백주또?)

326) 성산면 성산읍 온평리의 방언이다.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금백주 송당 아들 다섯째아들
이렇게 해 여는.

(다섯째 아들 백주가 어멍신이네요)

백주애기씨는 옛날 송당 아들,

아들 가지가 열여덟, 딸가지 스물여덟,

손지 삼백예순칠수신을 벌어진

그거에 삼역을 벌어지신디

어디어디 벌어진 걸 나도 잘 모르겠어

(백주애기씨가 바깥에서 들어온 신이네요)

송당원국이라는 데 원래 송당서 솟아난 한집이라는 게.

그게 본토맥이야 (백주신이 본토백이란 얘기네요)

천제 백주, 그런 게 그게,

옛날 무인국 시절에 들어왔는지 아무 사람 없을 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거든.

(근데 어르신 제 올릴 때 돼지고기는)

안 써. 못 써.

(돼지고기 못 쓰는 거예요)

천제님허고 백주님하고 국이를 하명

옛날 정성허던 심방들은 참 술도 안 올려놔어.

감주, 계알안주. 지금은, 술 다 써.

(왜 술은 안 올려놔어요)

술 안 먹구 고기 걸은 거 안 먹는다 해서.

고기도 돼지고기 걸은 거. 소고긴 올려도.

돼지고기는 굿 할 때도 안 쓰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돼지고기는 못 올려.

돼지고기는 이 산에 가도,

이 보살들은 돼지고기

등어리 칼에 꽂아놓고 불공하거든. 기도드리는데.

우리는 안 해. 산에 특히나 안 해.

산신백환이라해서, 산신백환이라해서

산신신령이 그만큼 좀 깨끗하다는 거지.

(아, 산신이 깨끗해서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는 얘기죠?)

응. 부정한 걸 아니 쓴다. 그래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구신을 봤어.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르신 그러면 그 돼지고기가 동경내 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동경내 난다고 하는 거.
그 천제도 쓰긴 쓰지 포제. 포제, 포제때 도새기 잡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후택들은 심방들부터가 안 쓴다 하니까,
아예 안 쓰는 걸로 알죠. 우린.
(응 안 써 왔으니까.
어르신은 그럼 대대로 이렇게 심방이셨어요.
계속 심방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니예요, 나 불 없이 왔어요.
(어 언제부터 그러면)
불 없이 한참 물질하다가 몸 아파서 땡기는 거예요. 몸 아파서.
(아 몸 아파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서른닷에.
(아 그 때부터 이제 몸 아파서. 그 전에는 이제 물질하시고,
신양리에서 나셨어요)
본래는 우도. 우돈데 부산서 물질하다가
(부산서 물질하다가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왔지.
(아 신양리 들어오신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른 넷. 여기 우리 언양으로.
(그러면은 송당, 송당에도 내일 마풀림을 하나요?)
송당 마풀림을 지금 식절하게 심방은 아니고 삼신할망이 한다든데. 몰라.
(삼신할망이?)
몰라. 거시기네 석남이 아시 땡김신가. 시에.
석남이 아시, 문석남이 아시,
(아시 동생, 아 그 분이 지금 송당에 있어요?)
송당에 그 저 당 하나 맡아 이신디, 몰라.
송당이 큰당 맡아 땡긴댄 말이 이신디. 몰라.
당이 두 군데지. 송당이
(송당이 두 군데, 웃송당 있고 알송당 있고)

웃송당은 금백주, 알송당은 천제,
 (아 알당은 천제 소천국?)
 알송당은 천제고 웃송당은 백주니까
 그 천제하고 또 그 포수처 군졸른,
 송당 아들들 살았을 때, 평도 놀이 사농하구,
 평도 사농하고 그러니까 포수총
 (아 포수총)
 알송당 어딘지 몰라. 우린 안 가봤어.
 (그니까 웃송당 알송당,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래보다)
 남자는 아무거나 땡기면 젓 먹으니까,
 저 백주애기씨가 정성을, 위로 보름 위로 올라가.
 백주 아가씨가 부정 안 할라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송당은 그래도 산신 뭐 그런 거 해도.
 알송당이 지금 왜 하느냐면 고기 대접할 때는
 백주 애기씨는 청하지 안 허도
 돼지고기 대접하는 아들이 있었어. 송당아들 가지에서.
 거 왜 허냐면 거 여러 성제하고 키우면서,
 우린 일곱째 아들로 들었는데,
 일곱째 아들이 밭을 갈러 보내난,
 밥 차롱에 큰 밥 차롱에 점심을 담아 싸주멍
 이거 먹고 점심 때 되믄 먹고 밭 갈러 보내나 두언,
 잠되 멩에예 밥차롱을 걸어 놓구,
 저 멩에 갈아망 한 숟가락 먹고,
 이 멩에 갈아망 한 숟가락 먹고
 그에 밥은 없거든.
 배고플 때 사시자 시장하니까
 밭 갈던 쇠를 콥³²⁷)으로 뺏겼데.
 얼마나 장순지.
 (손으로요)

327) 콥은 손톱을 가리키는 제주도 방언이다.

죽여서 콧으로 뱉겨,
 가시 흠애비냥을 뱉겨다
 가시두둥 줄버른 가시냥,
 그거를 걷어냥 불살라. 그걸 다 구워 먹언.
 어멍은 점심에 와 보난, 챔은 없고 잠대만 이시멍
 밧을 갈아 업퍼난 아까 말하듯이 사실대로 말하난
 그게 이전 아빠 눈에도 그게 그냥
 제주 표준어론 아방눈에 굴리나고 어멍 눈에 시시나고
 죽으라고 내보내니까 여 어디가 스님이신데는 투시
 요왕 황제국이 어딘지, 거 요왕 황제국을 가단,
 궤난 그게 본이야, 본. 송당본.
 황제국을 가단 드난, 어디서 왔느난
 부모눈에 굴리나고 시서난 노네는 못허고
 어디 저 외국서 난 들어왓젠
 새변 도원수 막으래 가단
 길은 멀고 밤은 들고 시장허여션
 하룻밤 셋당 가정 들어오려난
 아이고 이거 귀한 집이 자식이로구나
 하룻밤을 머치냥 이젠
 그디 황제국 말쑤말애기 존뽕레기시난
 이젠 큰 딸방으로 들젠해도 아녀고
 셋딸방으로 들젠 해도 아녀고
 죽은딸방으로 들랜 허난,
 그 사람이 송당아들이 들어간 잠을 자난 하진 얹안
 서루 인연이 마즈난 거기서 암해도 연 석달을 산 게지.
 사람이 죽으라고 내보낸 얘기가
 늦은 백이 정하님이
 저, 죽어라고 내보낸 얘기가 살아난
 가속 달안 오람수다, 말해부난
 죽으랜 허난 얘기가 살아난 오람시난에
 그걸 바래지난 그 메느리 바람신게
 청부채로 후딱하게 부친게



콩 벌리던 콩각지가 눈에 들어가서
 이엔 메누리 오는 거 못 보난
 아요아으 죽으랜 현 애기 살안 가속 달안 오람꾸난
 한쩍 지베 갈랑하는게
 가당가당 좌배낭 아래가 솟국하난
 어멍은 죽어배렸잖아.
 그게 난 그게 그 송당아들이 어디냐 하면
 지금 그 본을 팔아 아주 멀어요.
 근데 그 도새기 받는 한집이 어디냐, 김녕.
 열일곱차 아들이 그디 가신디, 김녕,
 아차 일곱차 아들이 김녕을 가신디,
 그디 가면 아들 하나만 고개를 칠 수가 있는데
 옛날엔 가시낭 거터당 구언먹으낭 식으루
 가시 그 줄번는 가시낭을 걷어다가
 고기를 도새기를 잡으면 열일곱 꼬지를 췌대요.
 열여덟꼬지 열여덟 성제 본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없었대. 고기.
 까져서 갈라먹을거 빼만 남고 애 우린 안 봤어. 그런 거.
 거 이제 한주차한테 나면 그영 또 그서 또 갈랑 먹고 경한디
 그 사깨난 남자들은 고길 먹고
 여자는 깨끗한 데로 앉아서 우트레 들어 아꼐다는 거지.
 (여자들은 깨끗한데 앉으려고 위에 앉고
 남자들은 고기 먹느라고 밑에 앉고)
 아 왜 그러는 말 들었고 우린 김녕에도 안 가보고
 난 한집을 어떡해서 대접하는 것도 몰르고 들은 말만
 (여기 본향은 송당 다섯째아들) 다섯째 아들
 (그러면 상은 뭘 차려요)
 떡, 밥. 떡헨 사름은 떡 해 놓고 밥 헨 사름은 밥 벌리고
 자기 헨 거대로 그거대로 그냥 올려
 해나든 말든 냉중엔 내병 버그러 다줘.
 이런 거 배워서 뭐 할거여.